節序

雷

晝夜

夢

雨

雪

雲

杜諺 十一之二

分類杜工部詩卷之十一

節序古詩律詩共五十首

大歲日

楚岸行將老巫山坐復春 楚ㅅ두들게ᄃᆞᆫ녀셔將次ㅅ늘구니巫山애안조니ᄯᅩ보미로다 病多猶是客謀拙更何人 病이하ᄆᆡ오히려이나그내ᄃᆞ외요니ᄭᅬ踈拙ᄒᆞ니ᄯᅩ엇던사ᄅᆞ미아노 閶闔開黃道衣冠拜紫宸 閶闔은天門이라黃道ᄂᆞᆫ日之所行이니喩御路ᄒᆞ다紫宸은天子ㅅ宮名이라○大闕ㅅ門은누른길흘열엇고衣冠ᄒᆞ닌紫宸을절ᄒᆞᄂᆞ니라

榮光懸日月賜予出金銀 榮光은五色也ㅣ라上句與此句는想元日會朝之事ᄒᆞ니라○비츤ᄒᆡ와ᄃᆞᆯ왜ᄃᆞᆯ엿고주시ᄂᆞᆫ거슨金과銀괘나오ᄂᆞ니라

愁寂鴛行斷參差虎穴隣 甫ㅣ言此日에流寓夔州ᄒᆞ야不得陪鴛鷺之行ᄒᆞ고相近虎穴也ㅣ라○鴛鷺入行列에그츠믈시름ᄒᆞᄂᆞ니參差ᄒᆞᆫ버믜굼글이웃ᄒᆞ엿노라

西江元下蜀北斗故臨秦 西江은蜀江이오北斗ᄂᆞᆫ長安이上直北斗ㅣ니라甫ㅣ在西江ᄒᆞ야想望長安也ㅣ라○西江은본ᄃᆡ록蜀으로ᄂᆞ려가ᄂᆞ니北斗ᄂᆞᆫ짐즛秦에디렛ᄂᆞ니라

散地逾高枕生涯脫要津 散地ᄂᆞᆫ閑散之地ㅣ라要津은言要職也라○閑散ᄒᆞᆫᄯᅡ해더옥벼

개ᄅᆞᆯ노피벼요니사라쇼매 조요ᄃᆞ왼ᄂᆞᆫ올버서나라 天邊梅柳樹相見幾回新 하ᄂᆞᆳᄀᆞᆺ梅花와버드남기여 서ᄅᆞ보니몃디위ᄅᆞᆯ새롭거뇨

立春 在雲安作

春日春盤細生菜忽憶兩京梅發時 齊人月令에立春日에食生菜ᄒᆞᄂᆞ니迎新之意라◯봄날 봄盤앳ᄀᆞᄂᆞᆫ生菜ᄅᆞᆯ두ᄉᆡ울梅花플제먹던 이ᄅᆞᆯ忽然히ᄉᆞ랑ᄒᆞ노라 盤出高門行白玉菜傳纖手送青絲 盤ᄋᆞᆫ노ᄑᆞᆫ門으로나 흰玉이녀고菜ᄂᆞᆫ ᄀᆞᄂᆞᆫ소내傳ᄒᆞ야프른시ᄅᆞᆯ보내더니 라 巫峽寒江那對眼杜陵遠客不勝悲 巫峽 옛초

기ᄅᆞ몯얻뎌누네對ᄒᆞ얫가니오社陵에멀리왯ᄂᆞᆫ나그내ᄂᆞᆯ슬프믈이기디몯ᄒᆞ노라

此身未知歸定處呼兒覓紙一題詩이모미가이숄ᄃᆡᄅᆞᆯ아디몯ᄒᆞ야아ᄒᆡ블러죠ᄒᆡ어더ᄒᆞᆫ번그를스노라

、元日寄韋氏妹

近聞韋氏妹迎在漢鍾離요ᄌᆞᅀᆞᆷ드르니韋氏ㅅ누의漢人鍾離ㅅᄀᆞ올히마자가잇도다

郎伯殊方鎭京華舊國移郎伯은即妹壻韋氏也ㅣ라○郎伯이먼ᄯᅡ해가鎭守ᄒᆞ야잇ᄂᆞ니셔울ᄒᆞᆫ녜나라히옴맷도다

春城回北斗郢樹發南枝郢은鍾離縣人所在라○봄城

에北ㅣ라ㅣ 횟도ᄂᆞ니 鄜엣 남ᄀᆞᆫ 南녁 가지 ᄧᅬᆺ도다 不見朝正使啼痕

滿面垂 祿山之亂에 道路ㅣ 隔絶也ㅣ라○ 正朝앳 使臣을 보디 몯ᄒᆞ야 눈믈 그제를 ᄂᆞ치 ᄀᆞᄃᆞ기 드리우노라

元日示宗武

汝啼吾手戰吾笑汝身長 老病故로 手戰也ㅣ라○ 너는 내 손 ᄢᅥ로ᄆᆞᆯ 우ᄂᆞ니 나는 네 모미 기루믈 웃노라 處處逢正月迢迢滯遠方 迢迢는 遠也ㅣ라○ 곧마다 正月을 맛냇ᄂᆞ니 迢迢히 먼 ᄯᅡ해 와 留滯ᄒᆞ얏노라 飄零還栢酒衰病只藜床 元日에 飮栢葉酒ᄒᆞᄂᆞ니라○

블여ᄃᆞ뇨매도ᄅᆞ혀栢葉酒를먹노니 늘근病에오직도ᄃᆞ랏平來이로다

訓諭青衿子名慙白首郎 青衿은子ㅣ事父母之飾이니指宗武ㅣ라○프른깃ᄃᆞᆫ옷니븐아ᄃᆞ롤ᄀᆞᄅᆞ치고셴머리예郎官ᄃᆞ외여옛ᄂᆞᆫ일후믈붓그리노라

賦詩猶落筆獻壽更稱觴 그를지어쉬오히려부들다여스노니목수믈나아셔盞올드ᄂᆞ다

任不見江東弟高歌淚數行 時예嵩之弟在江東ᄒᆞ니라○江東에갓ᄂᆞᆫ아ᅀᆞᆯ보디몯ᄒᆞ야노ᄑᆞᆫ노래예ᄂᆞᆫ믈두어주를흘류라

人日寄杜二拾遺 蜀州刺史高適

人日題詩寄草堂遙憐故人思故鄉 故人은 指

甫ᄒᆞ다○人日에 그를 서 草堂애 보내노

니 故人ᄋᆡ 故鄉ᄉᆞ랑호ᄆᆞᆯ 아ᄋᆞ라히 슬노

라 柳條弄色不忍見梅花滿枝空斷腸 버들

오리 비츨 놀이거든 ᄎᆞ마 보디 몯ᄒᆞ고 梅

花ㅣ 가지예 ᄀᆞ독ᄒᆞ얫거든 ᄒᆞᆫ갓 애ᄅᆞᆯ 긋

노다 身在南蕃無所預心懷百憂復千慮 上句

ᄂᆞᆫ 言甫ㅣ 居荊楚之地而不預政事也ㅣ

라○모미 南蕃에 이쇼ᄃᆡ 參預ᄒᆞ욘 배 업스

니 ᄆᆞᄋᆞ맷 온 혜아룜과 ᄯᅩ 今年人日空相

조므 혜아룜ᄋᆞᆯ 머겟도다

憶明年人日知何處 올人日에 ᄒᆞᆫ갓 서르 ᄉᆞ랑ᄒᆞ노니 오ᄂᆞᆫ 힛

人日엔다노라어뒤가실고一臥東山三十春豈知書

劒老風塵下ᄂᆞᆫ適ㅣ自叙ㅣ라○東山애ᄡᅳ혼번눕건디설흔힛보미러

니글와갈ᄒᆞ로風塵에셔늘글고ᄃᆞᆯ어느알리오龍鍾還忝二千

石愧爾東西南北人龍鍾은섯不進皃ㅣ라二千石은謂爲蜀

州刺史也ㅣ니言老爲太守而有愧於爾之東西南北에任其所之也ㅣ라○龍鍾

ᄒᆞ야도ᄅᆞ혀二千石벼스를더러유니러東西南北에ᄃᆞ니ᄂᆞᆫ사ᄅᆞ믈붓그리노라

追酬故高蜀州人日見寄

開文書帙中ᄒᆞ야檢所遺忘ᄒᆞ다가因得故高

常侍適이 往애 居在成都時예 高ㅣ 任蜀州刺史ᄒᆞ야 人日에 相憶見寄詩ᄒᆞ고 淚洒行間ᄒᆞ야 讀終篇末호라 自枉詩로ᄒᆞᆫ 已十餘年이오 莫記存沒이 又六七年矣니 老病懷舊ᄒᆞ니 生意ᄂᆞᆫ 可知라 今海內예 忘形故人은 獨漢中王瑀와 與韶州敬使君超先이 在ᄒᆞ니 愛而不見ᄒᆞ야 情見乎辭ᄒᆞ노라 大曆五年正月二十一日에 却追酬高公의 此作ᄒᆞ야

回寄王及敬弟ᄒᆞ노라○글월가온ᄃᆡ롤
어리니존바롤撿察ᄒᆞ다
가지즈로녯高常侍適이네내成都개살
제高適이蜀州刺史ᄒᆞ야人日에셔ᄅᆞᄉᆞ
랑ᄒᆞ야브쳐보내욘그를어티눈므롤글
行列ᄉᆞ이예션려닐거篇ᄉᆞ그들ᄆᆞ초라
그를보내요ᄆᆞ로브터ᄒᆞ마여나ᄆᆞᆫᄒᆡ오
그리이시며엽수믈記錄아니ᄒᆞ얀지ᄯᅩ
예닐곱히니늘거병ᄒᆞ야셔녯이롤ᄉᆞ랑
호니나ᄂᆞᆫᄠᅳ들可히알리로다이제四海
안해얼구롤너저새괴ᄂᆞᆫ버ᄯᅩᄒᆞ을로漢
中王璃와ᄃᆞ뭇韶州ᄉᆞ敬使君超先이잇
ᄂᆞ니ᄉᆞ랑호ᄃᆡ보디몯ᄒᆞ야ᄠᅳ들말ᄉᆞᆷ애
나토노라大曆五年正月二十一日에ᄯᅩ
ᄀᆞ혀高公이이지운그를조차
가파王과敬弟의게브티노라

自蒙蜀州人日作不意清詩久零落 蜀州ㅅ人日에 지운 그를 바도모로브터 몰곤 그릐 오래 ᄇᆞ려뎌 슈믈 너기디 아니ᄒᆞ라 今晨散

帙眼忽開迸淚幽吟事如昨 오ᄂᆞᆯ 아ᄎᆞ미 ᄒᆞ텻ᄂᆞᆫ 書帙에 누ᄂᆞᆯ 忽然히 ᄇᆞ려보고 눈믈 흘리고 幽深히 이프니 이리 어제 ᄀᆞᆮ도다 嗚呼壯士

多慷慨合沓高名動寥廓 合沓ᄋᆞᆫ 相繼ᄒᆞᆫ 皃ㅣ라 寥廓ᄋᆞᆫ 指天地間也ㅣ라 ○ 슬프다 壯士ㅣ 慷慨ᄒᆞ미 하니 니ᅀᅳ쳐 노ᄑᆞᆫ 일훔미 寥廓애 뮈옛도다 嘆

我悽悽求友篇感時鬱鬱匡君略 鬱鬱ᄋᆞᆫ 言匡君之略을 不得伸也ㅣ라 ○ 나ᄅᆞᆯ 슬허셔 벋 求ᄒᆞᄂᆞᆫ 글워리ᄅᆞᆯ 이프니 時節을 感傷ᄒᆞ야셔 님금 고티

고져ᄒᆞ던謀略이ᄃᆡ답ᄒᆞ도다錦里春光空爛熳瑤墀侍臣

已冥寞錦里ᄂᆞᆫ指蜀州ㅣ라適ㅣ後爲刑部侍郞而死ᄒᆞ니冥寞은謂死也ㅣ라

○錦里옛봄비치ᄒᆞᆫ갓爛熳ᄒᆞ니瑤墀엿近侍ᄒᆞᄂᆞᆫ臣下ᄂᆞᆫᄒᆞ마아ᄃᆞᆨᄒᆞ도다瀟湘

水國傍黿鼉鄠杜秋天失雕鶚上句ᄂᆞᆫ言甫ㅣ在潭州而

酬此詩오下句ᄂᆞᆫ言適의在長安而死也ㅣ라雕鶚은比適也ㅣ니라○瀟湘ㅅ믌나라

해黿鼉ㅅ서리예바라ᄃᆞᆫ니고니鄠杜ㅅᄀᆞ올하ᄂᆞᆯ해雕鶚을일토다東西南

北更堪論白首扁舟病獨存此ᄂᆞᆫ答東西南北之句ᄒᆞ다○

東西南北에ᄃᆞᆫ뇨ᄆᆞᆫ다시議論ᄒᆞᆫ얌즉ᄒᆞ니아ᄒᆡᆫ머리예죠고맛비ᄐᆞ고病ᄒᆞ야ᄒᆞ오아

잇노라
遙拱北辰纏寇盜欲傾東海洗乾坤아ᄋᆞ
라히 北辰을 拱向ᄒᆞ니 盜賊이 얼겻도소니 東海롤 기우려 乾坤을 싯고져 ᄒᆞ노라
邊塞西蕃最充斥衣冠南渡多崩奔西蕃ᄋᆞᆫ 指吐蕃ㅣ라
充斥ᄋᆞᆫ 猶縱橫ㅣ라 南渡 言避亂也ㅣ라。ᄀᆞ애 西蕃이 안직 펴뎻ᄂᆞ니 衣冠ᄒᆞᆫ 사ᄅᆞ미
南녀그로 믈 건너 해 ᄃᆞᆮ놋다
鼓瑟至今悲帝子曳裾何處
覓王門甫ㅣ 在潭州而悲湘靈也ㅣ라 鄒陽ㅣ 云何王之門에 不可曳長裾ㅣ라 ᄒᆞ니
言思漢中王也ㅣ라。거믄고 노로ᄆᆞᆯ 이제 니르히 帝子롤 슬노니 옷기슭 긋우믈 어ᄂᆡ
가 王門을 어ᄃᆞ리오
文章曹植波瀾闊服食劉安德業

尊 劉安은淮南王ㅣ니著書ᄒᆞ야言服食神仙事ᄒᆞ다曹植劉安은皆化王也ㅣ라ㅇ文章은曹植의뭇거리어원ᄃᆞᆺ고藥머구믄劉安의德業이尊ᄒᆞᆫᄃᆞᆺ도다長笛誰能亂愁思昭州詞翰與招魂 晉人向秀ㅣ聞隣人吹笛ᄒᆞ고追思曩遊ᄒᆞ야作思舊賦ᄒᆞ니此ᄂᆞᆫ言追思高蜀州也ㅣ라甫ㅣ遇亂ᄒᆞ야精魂이散矣니昭州ᄂᆞᆫ作詞而招之也ㅣ니라ㅇ긴뎌소리ᄂᆞᆫ뉘能히시름ᄃᆞ왼ᄠᅳ들亂히오ᄂᆞ니오昭州ㅅ글워리내부블로믈與許ᄒᆞ라

、人日兩篇

元日到人日未有不陰時 東方朔占書에正月初一日이爲鷄

二日이爲狗三日이爲豕四日이爲羊五日이爲牛六日이爲馬七日이爲人八日에爲穀이니其日이晴則主生育이오陰則災니甫의此言은人物俱災也ㅣ니라。元日로

人日에 니르리 어듭디 아니ᄒᆞᆫ ᄢᅵ 잇디 아니ᄒᆞ도다

氷雪鶯難至春寒花較遲 어름과 눈에 곳고리 오미 어렵고 보미 치우니 고지 더 ᄀᆡ더듸도다

雲隨白水落風振紫山悲 구루믄 ᄒᆡᆫ 므를 조차 디고 ᄇᆞᄅᆞᄆᆞᆫ 블근 뫼ᄒᆞᆯ 흐ᄂᆞ러 슬프도다

蓬鬢稀疎久無勞比素絲 다봊 ᄀᆞᄐᆞᆫ 구믿터리 드므런디 오라니 ᄒᆡᆫ 실에 가ᄌᆞᆯ뵤믈 잇비 아니ᄒᆞ리로다

此日此時人共得一談一笑俗相看 이 날 이 ᄢᅴ 사ᄅᆞᆷ

미다어더ᄒᆞᆫ말ᄉᆞᆷ과ᄒᆞᆫ우우。므로風俗이서르보ᄂᆞ다 樽前栢葉休隨酒勝裏金花巧耐寒 人日에鏤薄金爲人勝ᄒᆞ야以象瑞圖之形ᄒᆞ ᄂᆞ니라。樽알ᄑᆡᆺ잣니플됴히수를좃고勝ㅅ소갯金으로ᄆᆡᆼᄀᆞ론고ᄌᆞᆫ工巧히치위를 젼ᄃᆡ놋다 佩劉衡星聊暫拔匣琴流水自須彈 伯牙ㅣ彈琴호ᄃᆡ志在流水ㅣ어든鍾子期曰湯湯乎라ᄒᆞ다。첫ᄂᆞᆫ갈氣運이用려소왓ᄂᆞ니로잠깐ᄲᅢ혀고匣애ᄂᆞᆫ거믄고애흐르ᄂᆞᆫ믈을내모로매傳노라 早春重引 江湖興直道無憂行路難 言直道而行ㅣ라無往而不可也ㅣ라。이ᄅᆞᆫ보미다시江湖엣興이혀나ᄂᆞ니고ᄃᆞᆫ도로ᄃᆞᆫ닐서너가ᄂᆞᆫ길희어려우믈시

큼아니ᄒᆞ노라

●社日兩篇

九農成德業百祀發先輝報效神如在馨香舊不違 少昊氏以九扈로爲九農正ᄒᆞ니라 社이爲九土之尊故로春祈穀而秋報賽ᄒᆞᄂᆞ니馨香之祭를自古不違也ㅣ라 ○九農이德業을일오니온가짓이바ᄃᆞ매비치나도다갑ᄂᆞᆫ鬼神ㅣ인ᄂᆞᆫᄃᆞᆺᄒᆞ니馨香으로祭호믈녜브터그르아니ᄒᆞᄂᆞ니라

南翁巴曲醉扶鴈塞聲微 南녀킈늘근사ᄅᆞᆷ온巴州人놀애블르고醉커늘븟녀그려기ᄂᆞᆫᄀ잇소리微微ᄒᆞ도다 尚想東方朔詼諧

割肉歸 伏日에詔賜從官肉이어늘東方朔이拔劒割肉而歸ᄒᆞ니라○東方朔이
노ᄅᆞᆺ말ᄒᆞ고고기버혀가던이ᄅᆞᆯ스처노라

陳平亦分肉太史竟論功 陳平ㅣ里中社애分肉이甚均ᄒᆞ니
라社日에太史ㅣ占事ᄒᆞᄂᆞ니라○陳平이ᄯᅩ고기ᄅᆞᆯ논호고太史ㅣᄆᆞᄎᆞ매功을議論
ᄒᆞ니라

今日江南老他時渭北童 오ᄂᆞᆯ날江南앳늘근내여
다ᄅᆞᆫ쁴渭北앳아ᄒᆡ로다

歡娛看絕塞涕淚落秋風 즐겨서던
ᄀᆞ올보고눈믈을ᄀᆞ올ᄇᆞᄅᆞ매ᄠᅳ들이노라

鴛鷺回金闕誰憐病峽中 鴛鷺ᄂᆞᆫ指公卿ㅣ라○鴛鷺ㅣ金闕에셔도라나오ᄂᆞ니峽中에와셔病ᄒᆞ야

슈ᄅᆞᆯ뉘이엿ㅅ비너기리오

丶熟食日示宗文宗武

消渴遊江漢羇栖尙甲兵 消渴ㅅ病에江漢애와노노니나그내로ᄇᆞ려슈메오히려甲兵아ᄅᆡ잇도다 幾年逢熟食萬里逼淸明 熟食은卽寒食日이라○몃ᄒᆡᄅᆞᆯ니근바ᄇᆞᆯ맛나거니오萬里예淸明이逼近ᄒᆞ도다

松栢卬山路風花白帝城 寒食에省墳ᄒᆞᄂᆞ니甫의先墳이在卬山而流寓白帝城故로傷之也ㅣ라○솔와잣과잇ᄂᆞᆫ卬山ㅅ길히여ᄇᆞᄅᆞ매곳ᄃᆞᆫ白帝ㅅ城이로다

汝曹催我老回首淚縱橫 望故鄕先墳而

感泣也ㅣ라 ○ 너희 무리 내 늘구믈 뵈아ᄂᆞ니 머리 도로혀 ᄇᆞ라고 눈므를 해 흘리노라

ㅣ又示兩兒

令節成吾老他時見汝心 甫ㅣ言身後寒食에 見汝思親之心이니라 ○ 됴ᄒᆞᆫ 時節에 내 늘구믈 일우니 다ᄅᆞᆫ ᄢᅴ 네 ᄆᆞᅀᆞ믈 보리라 浮生看物變爲恨與年深 旣人生애 萬物의 改變ᄒᆞ몰 보노다 슬허ᄒᆞ요ᄆᆞᆫ ᄒᆡ로 다못 깁ᄂᆞ다

長葛書難得江州涕不禁 長葛縣及江州ᄂᆞᆫ 必是弟妹所在니라 ○ 長葛애 글월 어두미 어려우니 江州에 눈므를 이긔지 몯ᄒᆞ노라 團圓思弟妹行坐白頭吟 횟도로 안자 셔 말ᄒᆞ몰 아ᄋᆞ와 누위를 ᄉᆞ

랑ᄒᆞ야거르락난ᄌᆞ락
ᄒᆞ야셴머리예입노라

小寒食舟中作 前寒食一日也ㅣ라

佳辰強飲食猶寒隱几蕭條帶鶡冠 鶡冠은 隱士之服ㅣ라○됴ᄒᆞᆫᄢᅢ고ᄃᆞᆯ파마시며머구니오히려ᄎᆞ나几를비겨蕭條히鶡冠을ᄡᅧᆺ노라

春水船如天上坐老年花似霧中看 霧中看은 眼暗ᄒᆞ야不分明也ㅣ라○봄ᄃᆞᆯ비ᄂᆞᆫ하ᄂᆞᆯ우희안잣ᄂᆞᆫ둣ᄒᆞ니ᄂᆞᆯ근나해고ᄌᆞᆫ안개소개보ᄂᆞᆫ둧ᄒᆞ도다

娟娟戲蝶過閑幔片片輕鷗下急湍 고온노ᄂᆞᆫ나비ᄂᆞᆫ겨르ᄅᆞᆫ帳ᄋᆞ로디나가고片片히가비야온ᄀᆞᆯ며기ᄂᆞᆫᄲᆞᄅᆞᆫ여흐레

ᄂᆞ리ᄂᆞ다 雲白山青萬餘里愁看直北是長安 구루미히오뫼히프른萬餘里로ᄉᆞ니바ᄅᆞ北이이長安이론고돌시름ᄒᆞ야보노라

、寒食

寒食江村路風花高下飛 寒食ㅅᄀᆞᄅᆞᆷᄆᆞ을길헤ᄇᆞᄅᆞᆷ맛고지놉ᄂᆞᆺ가이ᄂᆞ다 汀烟輕冉冉竹日淨暉暉 믈ᄀᆞ이ᄂᆡ는가비야와어른어른ᄒᆞ고대옛힛비츤조하비취엿도다 田父要皆去隣家問不違 問요問遺之物이라不違ᄂᆞᆫ不違逆人意라ㅇ녀름지을아비령ᄒᆞ거든다가고이웃지비녀주거든거스지아니ᄒᆞ노라 地偏相識盡鷄

大亦恩歸이ᄂᆞᆫ 이 옷지비 ᄀᆞᆺ가와 돌가지서
ᄅᆞᆯ오몰ᄂᆞᄅᆞ니라○야히기우러
서로아로미ᄀᆞ장ᄒᆞ니 돐과
가히괘 ᄯᅩ도라가 몰넛ᄂᆞ다

清明

著處繁華矜是日長沙千人萬人出 著ᄂᆞᆫ 直略反 䌹
也ㅣ라 矜ᄋᆞᆫ 誇多也ㅣ라○다ᄃᆞ론 仟햇 繁
華ᄒᆞᆫ 몰오 ᄂᆞᆹ나ᄅᆞᆯ 矜誇ᄒᆞ노니 長沙애 千人
萬人이 나
노ᄂᆞ다 渡頭翠柳艷明眉争道朱蹄驕齧
膝 齧膝ᄋᆞᆫ 良馬名이라○ 건너ᄂᆞᆫ 믈그ᄐᆡᆺ 프
른 버드른 볼곤 눈서비 고ᄋᆞᆫ ᄃᆞᆺ고 길 흘ᄃᆞᆺ
토ᄂᆞᆫ 블근 ᄆᆞᄅᆞᆫ바 ᄅᆞᆫ
齧膝이 ᄀᆞᆯ외ᄂᆞ다 此都好遊湘西寺諸將亦

自軍中至이 都邑이 湘西ㅅ 뎌 계로 몯 즐기ᄂᆞ니 여러 將帥ㅣ 軍中으로 브터 니르러오ᄂᆞ다

馬援征行在眼前 葛強親近同心事 馬援은 比衡州刺史ᄒᆞ다 葛強은 晉人 山簡의 愛將이니 比衡州部將也ㅣ라 ○ 馬援의 녀 가미 눈 알ᄑᆡ 잇ᄂᆞ니 葛強이 갓가이 이시니 ᄆᆞᅀᆞ매 이리 ᄀᆞᆺ도다

金鐙下山紅日晩 牙檣捩柁青樓遠 鐙은 馬鐙也ㅣ라 牙檣은 帆檣之末이 銳如牙也ㅣ라 捩은 力結反ᄒᆞ니 搖柁也ㅣ라 柁ᄂᆞᆫ 正船木이라 ○ 金鐙子로 뫼해 ᄂᆞ려오매 블근 ᄒᆡ 나죄히로소니 엄 ᄀᆞᆺᄒᆞᆫ 빗대예 ᄇᆡ 촐 두루힐후매 프른 樓ㅣ 머도다

古時喪亂皆可知 人世悲歡暫相遣 녜 時節ㅅ 브ᅀᅳ

왜요몰다可히알리로소니ㅅ世예슬
ᄑᆞ며졀거운ᄆᆞᅀᆞ믈잠간서르펴노라 弟姪

雖存不得書干戈未息苦離居 이ᄋᆞ와아ᄎᆞ아ᄃᆞᆯ왜비록
이시나書信을엇디몯ᄒᆞ리로소니사호미
긋지아니ᄒᆞ니여희여사로몰苦로히너기
노라

逢迎少壯非吾道況乃今朝更祓除 漢志예三
月上巳애禊飲東流水上ᄒᆞ야洗祓ᄒᆞ야除
去宿垢ᄒᆞᄂᆞ니謂之祓禊ㅣ라言少壯의逢
迎而遊ㅣ非老人之事ㅣ어ᄂᆞᆯ아更逢令辰
ᄒᆞ니不無感傷이니라○져믄사ᄅᆞᆷ ᄆᆞᆯ히서
르逢迎ᄒᆞ미내道ㅣ아니로소니ᄒᆞ믈며
오ᄂᆞᆯ아ᄎᆞᆷ 모ᄆᆞᆯ 在祓除ᄒᆞᄂᆞᆫ時節이로다

清明二首

朝來新火起新烟湖色春光淨客船 清明日에鑽燧改火ᄒᆞᄂᆞ니라。아ᄎᆞᄆᆡ새블에새ᄂᆡ니러나ᄂᆞ니ᄀᆞᄅᆞᆷ빗과봄빗괘나ᅩ내비예조햇도다

繡羽銜花他自得紅顔騎竹我無緣 亰ㅣ感彩禽之自得ᄒᆞ고嘆少日騎竹之不復得也ㅣ라。어르누근지치고즐다지러뎌거시自得ᄒᆞ니블근ᄂᆞᆺ처대몯토모내말미업도다

胡童結束還難有楚女腰支亦可憐 이ᄂᆞᆫ뎌ᄃᆞᆯ희고오ᄆᆞᆯ보고니ᄅᆞ논마리라。되아ᄒᆡᄃᆞᆯ히ᄆᆡ무어슈믄도로혀뎌러니이슈미어려우니楚ㅅ겨지븨허리와소지ᄂᆞᆫ또可히ᄃᆞᆺ오도다

不見定王城舊處長懷賈傅井依然 定王은長

沙定王이라長沙太傅賈誼宅애有井ᄒᆞ니
라○定王의城ᄡᅥᆺ던녯什ᄒᆞᆯ보디몯ᄒᆞ리로
소니賈傳의우므리ᄉᆞ못
ᄒᆞ믈기리ᄉᆞ랑ᄒᆞ노라 虛露焦擧為寒食
實藉君平賣卜錢에 并州舊俗ㅣ介之推死月禁擧火ᄒᆞ야一月을不
敢炊爨이러니焦擧ㅣ為刺史ᄒᆞ야使還溫
食ᄒᆞ니甫ㅣ貧不能饌故로云虛露而繼有
下句ᄒᆞ니라○焦擧의寒食밍ᄀᆞ로ᄆᆞᆯ虛히
니벗노니眞實로君平의졈卜ᄒᆞ논돈ᄂᆞᆯ藉
賴ᄒᆞ노라 鐘鼎山林各天性濁醪麤飯任吾年 甫ㅣ
言擊鐘ᄒᆞ고列鼎而食ᄒᆞ며隱居山林ᄒᆞ미
各有天性故로我ᄂᆞᆫ安於濁醪麤飯ᄒᆞ노라
○붑치고솓버려머그리와山林에이시리
제여곰하ᄂᆞᆯ性이니ᄒᆞ린술와사오라온바리

ᄇᆡ로 내 낫ᄏᆞ장ᄒᆞ믈 므던히 너기노라

此身飄泊苦西東右臂偏枯左耳聾이 모미 두루 ᄃᆞᆫ녀브터 西와 東과이 苦로이 ᄃᆞᆫ니노니 올ᄒᆞᆫ ᄇᆞᆯ히 偏히 이울오 왼녁 귀 머구라 寂寂繫舟雙下淚悠悠伏枕左書空殷浩ㅣ被廢ᄒᆞ야 終日書空ᄒᆞ야 作咄咄怪事四字ᄒᆞ니 甫ㅣ右臂ㅣ偏枯ᄒᆞᆯ서 左書空也ㅣ라 ○寂寂히 ᄇᆡ를 ᄆᆡ야ᄃᆡ 두 누ᄂᆞ로 눈믈 흘리고 悠悠히 벼개예 업더여 왼소ᄂᆞ로 虛空애 그를 스노라

十年蹴踘將雛遠萬里鞦韆習俗同鞠은 以韋爲之ᄒᆞ고 實以物ᄒᆞ야 蹴蹋以爲戲니라 鞦韆은 北方山戎之戲니 以習輕趫也ㅣ니 蹴踘鞦

韆이皆淸明景物이라○열희ᄅᆞᆯ蹴踘ᄒᆞ매
삿기더브러머리왓노니萬里옛글위ᄡᅳ건
켬俗이ᄒᆞᆫ가지로다 旅鴈上雲歸紫塞家人鑽火用青
楓 나그내그려기ᄂᆞᆫ구루메올아블근ᄀᆞᅀᆡ로가거늘지븻사ᄅᆞᄆᆞᆫ브를비븨여내요
ᄃᆡ프른싣남ᄀᆞᆯᄡᅳᄂᆞ다 秦城樓閣煙火裏漢主山河錦
繡中 此ᄂᆞᆫ想長安風景也ㅣ니思鄕戀主之意로다○秦城ㅅ樓閣은ᄂᆡ낀곳소
기오漢ㅅ님금뫼과ᄀᆞᄅᆞᆷ과ᄂᆞᆫ錦繡ㅅ가온ᄃᆡ잇도다 風水春來洞庭
閣白蘋愁殺白頭翁 此ᄂᆞᆫ嘆其在湘潭而未歸故鄕이라○ᄇᆞᄅᆞᆷ믓
므리보ᄆᆡ洞庭이어위니힌말라미머리센한아비ᄅᆞᆯ시름케ᄒᆞᄂᆞ다

哀江頭 至德二載春作

少陵野老呑聲哭春日潛行曲江曲 野老ᄂᆞᆫ 甫ㅣ自謂라 ○ 少陵에 미햇 늘근 내 소리를 ᄉᆞᆷ켜우러 봄나래 曲江ㅅ 구븨예 ᄀᆞ마니 ᄃᆞᆫ니노라

江頭宮殿鎖千門細柳新蒲爲誰綠 ᄀᆞᄅᆞᆷᄀᆞ 옛宮殿이 즈믄 門이 ᄌᆞᆷ갯ᄂᆞ니 ᄀᆞᄂᆞᆫ 버들와 새 ᄌᆞᆯ퓌 왜 누를 爲ᄒᆞ야 프르렛ᄂᆞ니오

憶昔霓旌下南苑苑中萬物生顏色 曲江南이 即芙蓉苑이라 此下ᄂᆞᆫ 言玄宗ㅅ 遊幸之事ᄒᆞ니라 ○ ᄉᆞ랑ᄒᆞᆫ ᄃᆡᆫ 녜 雲霓 ᄀᆞᆮᄒᆞᆫ 旌旗로 南苑에 ᄂᆞ려오실 저긔 苑中엣 萬物이 비치나더니라

昭陽殿裏第一人同輦隨

君侍君側指楊貴妃ᄒᆞ니라○昭陽殿안햇第一엣사ᄅᆞ미輦에同ᄒᆞ야님금을天子와님금거티뫼ᅀᆞᆸ더니라 輦前才人帶弓箭白馬嚼齧黃金勒翻身向天仰射雲一箭正墜雙飛翼唐制예內官才人이七人이라○輦入안깃才人이화살을차시니ᄒᆞᆫᄆᆞ리黃金구레ᄅᆞᆯ너흐러든모ᄆᆞᆯ드위혀하ᄂᆞᆯ홀向ᄒᆞ야울워러구루매소니ᄒᆞᆫ사래雙雙히ᄂᆞᄂᆞᆫᄂᆞᆯ개正히ᄠᅥ러디더라 明眸皓齒今安在血汚遊魂歸不得此ᄂᆞᆫ言貴妃之死也ㅣ라○ᄇᆞᆯᄀᆞᆫ눈과힌니ᄂᆞᆫ이제어듸인ᄂᆞ뇨피遊魂을더러이니도라오지못ᄒᆞᄂᆞᆺ다 淸渭東流劍閣深去住彼此無

消謂水ᄂᆞᆫ在長安ᄒᆞ고劍閣은玄宗所在
息ㅣ니言或去或住ㅣ此東彼西에兩無音信
也ㅣ라○ᄆᆞᆰᄀᆞᆫ渭水ᄂᆞᆫ東으로ᄒᆞ르고劍閣
山ᄋᆞᆫ기프니가며머므러ᄂᆞᆫ져여긔와이여
긔消息이
업도다人生有情淚霑臆江水江花豈終
極言水花ᄂᆞᆫ無情之物故로長如往時ᄒᆞ야
無有窮極也ㅣ라○人生ᄋᆞᆫᄠᅳ디이실서
눈므를가ᄉᆞ매저지거니와ᄀᆞᄅᆞᆷ믈과
ᄀᆞᄅᆞ매고ᄌᆞᆫ어느ᄆᆞᄎᆞ미기시리오黃昏
胡騎塵滿城欲往城南忘南北나조히되몯
ᄐᆞ니오매ᄃᆞ
ᄐᆞ리城에ᄀᆞᄃᆞᆨᄒᆞ니城南으로
가고져ᄒᆞ다가南北을니조라

麗人行

三月三日天氣新長安水邊多麗人 開元中에 都人이 三月三日에 遊賞曲江ᄒᆞ더니라 ○ 三月三日에 ᄒᆞᄂᆞᆫ 氣運이 새로오니 長安ㅅ 믈ᄀᆞ의 고온 사ᄅᆞ미 하도다

態濃意遠淑且眞肌理細膩骨肉勻 極言麗人之美ᄒᆞ다 ○ 양ᄌᆡ 돗갑고 ᄠᅳ디 멀오 ᄆᆞᆰ고 眞實ᄒᆞ니 ᄉᆞᆯ햇 그미 ᄀᆞᄂᆞᆯ고 ᄉᆞᆯ지고 ᄲᅧ와 ᄉᆞᆯ괘 고로도다

繡羅衣裳照暮春蹙金孔雀銀麒麟 孔雀麒麟은 繡文이라 ○ 繡ᄒᆞᆫ 노옷ᄀᆞ외 暮春에 비취엿ᄂᆞ니 金孔雀과 銀麒麟괘 ᄧᅧᆼ거엿도다

頭上何所有翠為㔩葉垂鬢脣 㔩葉은 婦人鬢邊花ㅣ니 以翠羽로 為飾이라 ○ 머리우흔 므스거시 잇ᄂᆞ니오 프른 거

ᄉᆞ로劃槳을밍ᄀᆞ라구릿과어베드리옛도다

背後何所見珠壓腰衱穩稱身 腰衱은即裾帶니綴珠其上也ㅣ라○등어리옛므스거슬보리오구슬을바갓ᄂᆞᆫ腰衱이편안ᄒᆞ야몸애맛도다

就中雲幕椒房親賜名大國虢與秦 貴妃의姊三人을並封國夫人ᄒᆞ니라雲幕은鋪設帳幕ㅣ如雲霧之浮也ㅣ라○그中에구룸ᄀᆞᆮᄒᆞᆫ지븐椒房애아ᄋᆞ미니일후믈큰나라ᄒᆞᆯ주시니虢과다ᄆᆞᆺ秦이로다

紫駝之峯出翠釜水精之盤行素鱗 橐駝脊上의有肉이高如峯ᄒᆞ니其味最美ᄒᆞ니라此ᄂᆞᆫ極言珍羞之盛ᄒᆞ다○블근약대의고기ᄅᆞᆯ프른가매애ᄉᆞᆯ마내오水精盤ᄋᆞ로흰비ᄂᆞ를다마녜놋다

犀

筯厭飫久未下鸞刀縷切空紛綸 鸞刀ᄂᆞᆫ刀有鸞鈴者ㅣ라 ○犀角ᄋᆞ로 ᄆᆡᆼᄀᆞ론 筯ᄅᆞᆯ 비브러 오래 ᄂᆞ리오디 아니커늘 鸞刀로 실ᄀᆞᆺ티 버휴믈 ᄒᆞᆫ갓 어즈러이 ᄒᆞ놋다

黃門飛鞚不動塵御廚絡繹送八珍 鞚은 馬勒이니 言馬ㅣ如飛而塵不起也ㅣ라 周禮예 膳夫ㅣ 珍用八物이니라 ○黃門의 ᄐᆞᆫ ᄆᆞ리 ᄃᆞ트리 뮈지 아니ᄒᆞᄂᆞ니 御廚에셔 실ᄂᆞᆫ ᄃᆞ시 八珍을 보내놋다

簫鼓哀吟感鬼神賓從雜遝實要津 雜遝은 衆盛貌ㅣ라 要津은 顯要當權之人也ㅣ라 ○픠리와 붑괘 ᄉᆞᆯ피 입펴 鬼神을 感動ᄒᆞ요ᄂᆞ니 뫼셔 어즈러이 왓ᄂᆞ닌 眞實로 조ᄋᆞᄅᆞ왼 ᄂᆞᆯ읫 사ᄅᆞᆷ이로다

後來鞍馬何

逡巡當軒下馬入錦茵 茵ᄋᆞᆫ褥也ㅣ라○後에 오ᄂᆞᆫ ᄆᆞᆯᄐᆞ니ᄂᆞᆫ 엇뎨 머믈리오 軒檻을 當ᄒᆞ야 ᄆᆞᆯ브려 錦茵에 드놋다

楊花雪落覆白蘋

青鳥飛去銜紅巾 西王母ㅣ 以青鳥로 爲使ᄒᆞ니라 紅巾은 婦人之飾ㅣ라 須溪ㅣ 云兩語ᄂᆞᆫ 極當時예 擁從如雲ᄒᆞ야 衝拂開合ᄒᆞ야 綺麗駿捷之盛ᄒᆞ、다이ᄂᆞᆫ 그젯 버들고지 말와 매 두려ᅀᅮᄆᆞ로 賓從雜遝을 가ᄌᆞᆯ비고 青鳥로 比夫人의 侍從ᄒᆞ니라 ○버들고지 눈 디ᄃᆞᆺᄒᆞ야 힌 말와매 두폇ᄂᆞ니 프른 새 ᄂᆞ라가 블근 깁을 므렛도다

炙手可熱勢絕倫慎莫近前丞相嗔 炙手可熱ᄋᆞᆫ 言勢熖ㅣ 熏灼也ㅣ라 丞相ᄋᆞᆫ 楊國忠이니라 ○소ᄂᆞᆯ 뙤면 어루 더우ᄃᆞ뎟 ᄒᆞᆫ 權勢ㅣ 무리 그

ᄎᆞ니 삼가 알퀴 ᄌᆞᆺ가이 말라 ᄌᆞᆷ相이 믜리라

曲江二首

一片花飛減却春 風飄萬點正愁人ᄒᆞᆫ낫고지ᄂᆞ라도봄비ᄎᆞᆯ더ᄂᆞ니ᄇᆞ라매萬點이불가니正히사ᄅᆞᆷᄋᆞᆯ시름케ᄒᆞᄂᆞ다

且看欲盡花經眼 莫厭傷多酒入脣다ᄋᆞ고져ᄒᆞᄂᆞᆫ고지누ᄂᆞ로지나가ᄆᆞᆯ보아셔너무해수리이베드로ᄆᆞᆯ아쳗디마ᄅᆞᆯ디니라

江上小堂巢翡翠 苑邊高塚臥麒麟此聯은感人事의不常ᄒᆞ니堂無人故로水鳥ㅣ來巢ㅣ오塚無主故로石麟ㅣ顚臥ᄒᆞ니所以下句예有細推物理須行樂之語

ᄒᆞ니라○ᄀᆞᄅᆞᇝ우흿져고맛지븨翡翠ㅣ깃
ᄒᆞ엿고苑邊ㅅ노ᄑᆞᆫ무덤엔麒麟이누엇도
다細推物理須行樂何用浮名絆此身物理ᄅᆞᆯ仔
細히推尋ᄒᆞ야모로매行樂홀디니엇
뎨ᄠᅳᆫ일후믈ᄡᅥ이모ᄆᆞᆯ미야두리오
朝回日日典春衣每日江頭盡醉歸朝會ᄒᆞ고도라
와나날봆오ᄉᆞᆯ볼모드리고每日에
ᄀᆞᄅᆞᆷᄀᆞ애셔ᄀᆞ장술醉코도라오노라酒債
尋常行處有人生七十古來稀술비든상녜
간ᄃᆡ마다잇
거니와人生이닐흔ᄉᆞᆯ사
ᄅᆞ믄녜로오매드므니라穿花蛺蝶深深見
點水蜻蜓款款飛고졸들외드ᄂᆞᆫ나ᄇᆡᄂᆞᆫ기
피보리로소니므레다히

ᄂᆞᆫ 존자리ᄂᆞᆫ 傳語風光共流轉暫時相賞莫
ᄌᆞ조 ᄂᆞ놋다

相違 言風光이與人事로共流轉而不息ᄒᆞ
ᄂᆞ니ᄉᆞᆫ春이已暮ᄒᆞ야相賞이不久故
로傳語於人ᄒᆞ야莫相違也ㅣ니라 ○ ᄇᆞᄅᆞᆷ
맛봄비치다ᄆᆞᆺ흘러올마가ᄆᆞᆯ傳語ᄒᆞ야아
니ᄒᆞᆫ덧ᄉᆞ이賞玩호ᄆᆞᆯ서
르어그릇디마롤디니라

曲江對酒

苑外江頭坐不歸水精春殿轉霏微 苑밧긔ᄀᆞ
ᄅᆞᆷᄀᆞᆺᄃᆡ
안자셔도라오디아니ᄒᆞ니水精ᄀᆞᆺ
ᄐᆞᆫ봄殿ㅅ비치ᄀᆞ장ᄋᆞᆷᄋᆞᆷᄒᆞ도다

桃花細逐楊花落黃鳥時兼白鳥飛 복셩ᄋᆞ고ᄌᆞᆫᄀᆞᄂᆞ
리버들고ᄌᆞᆯ조

차지고 누른새ᄂᆞᆫ 時로 힌새와 兼ᄒᆞ야 ᄂᆞᄂᆞ다

縱飮久拚人共棄 懶朝眞與世相違

拚은 棄也ㅣ라 甫ㅣ 性이 放誕ᄒᆞ야 與世相忤故로 縱飮懶朝ᄒᆞ야 甘爲人의 所棄而無顧惜也ㅣ라

○ᄀᆞ장 술 머거 사ᄅᆞᆷ이 모다 ᄇᆞ료ᄆᆞᆯ 오래 ᄇᆞ리고 朝會호ᄆᆞᆯ 게을이 호니 眞實로 世와 ᄒᆞ야 서르 어그릇도다

吏情更覺滄洲遠 老大徒悲未拂衣

言經世爲吏之情으로 想滄洲之遠ᄒᆞ고 歎未能去也ㅣ라

○구우실ᄒᆞᄂᆞᆫ ᄠᅳ데 다시 믈ᄀᆞ이 머루믈 아노니 늘거셔 ᄒᆞᆫ갓 옷ᄠᅥ러 나가디 몯ᄒᆞ믈 슬노라

曲江值雨

城上春雲覆苑墻江亭晩色静年芳城ㅅ우희ㅅ봄구루미苑에다몰두뎃ᄂᆞ니ᄀᆞᄅᆞᆷ亭子ㅅ나죗비체힛곳다온거시寂静ᄒᆞ도다林花著雨臙脂落水荇牽風翠帶長臙脂ᄂᆞᆫ紅藍也ㅣ라○수프렛고지비다ᄒᆞ니臙脂ㅣ지ᄂᆞᆫᄃᆞᆺ고믈엣荇이ᄇᆞᄅᆞ매잇기이니프른ᄯᅴ긴ᄃᆞᆺᄒᆞ도다

龍武新軍深駐輦芙蓉別殿謾焚香至德二載예左右神武軍을賜名天騎故로曰新軍이라芙蓉苑이在京城南内ᄒᆞ니有別殿ᄒᆞ니라言駐輦宮中ᄒᆞ야新軍이侍衛ᄒᆞ고不遊幸別殿故로謾爾焚香於此也ㅣ라○龍武ㅅ새軍에기피駐輦ᄒᆞ야겨시니芙蓉ㅅ各別ᄒᆞᆫ殿에쇽졀업시香올퓌우ᄂᆞ다何時

詔此金錢會暫醉佳人錦瑟傍 唐制예中和節에賜宴錢ᄒᆞ야宰臣以下合宴曲江ᄒᆞ더니라錦瑟은瑤瑟之類ㅣ라一云繪紋이如錦ㅣ라○어느즤긔이어가金錢會ᄅᆞᆯ詔命ᄒᆞ야시든잠깐고ᄋᆞᆫ사ᄅᆞᆷ미錦瑟ㅅᄀᆞᅀᅵ醉ᄒᆞ더뇨

曲江陪鄭八丈南史飲

雀啄江頭黃柳花鵁鶄鸂鶒滿晴沙 鵁鶄鸂鶒ᄋᆞᆫ다水鳥ㅣ라○ᄀᆞᄅᆞᆷᄀᆞ데누른버들고ᄌᆞᆯ새직먹ᄂᆞ니鵁鶄과鸂鶒괘갠모래예ᄀᆞᄃᆞᆨ기안잿도다

自知白髮非春事且盡芳樽戀物華 上句ᄂᆞᆫ보미노로미저므니이리오늘그니게맛디아니타호미니라○센머리보ᄆᆞᆯ일아니

론고 돌내 알언마ᄂᆞᆫ ᄂᆞᆺ다온 搏을 近侍郎今
다 어녀 物ㅅ 비출 思戀ᄒᆞ노라
難浪跡此身那得更無家 言今爲侍臣이라 難如昔時之放浪
也ㅣ라 ○ 갓가온 侍臣이라 곳 이제 자최를
放浪ᄒᆞ미 어려우니 이 모ᄆᆞᆫ 언제 시러곰 ᄯᅩ
지비 업스리오 丈人才力猶強健豈傍青門學種瓜
邵平ㅣ 種瓜長安青門之外ᄒᆞ니라 ○ 丈人의 저조와 힘과ᄂᆞᆫ 오히려 強健ᄒᆞ니 엇뎨 青
門을 바라가 외 심구믈 비호리오

、上巳日徐司錄林園宴集

鬢毛垂領白花蘂亞枝紅 구미틧더리 도키 ᄂᆞ려 희니 곳 蘂ᄂᆞᆫ

가지예 기우러 블것도다 歆倒衰年廢招尋令節同 기우러더

늘근 나ᄒᆡ ᄇᆞ리옛노니 됴ᄒᆞᆫ 時節을 블리ᄎᆞ조믈 ᄒᆞᆫ가디로 호라 薄衣臨積

水吹面受和風 열운 오ᄉᆞ로 답사핫ᄂᆞᆫ 믈을 지러 안고 ᄂᆞᄎᆞᆯ 부ᄂᆞᆫ 和ᄒᆞᆫ ᄇᆞ

ᄅᆞᆷ을 ᄐᆞ노라 有喜留攀桂無勞問轉蓬 劉安招隱에 攀援桂

枝ᄒᆞ 聊淹留ㅣ라 ᄒᆞ다 ◦桂樹를 더위자바 머므러슈믈 깃노니 올마ᄃᆞᆫ니ᄂᆞᆫ 다봇 ᄀᆞᆮ호

믈 무루믈 잇비 아니ᄒᆞ리로다

∖端午日賜衣

宮衣亦有名端午被恩榮 言賜之必有名ㅣ라 非無名濫賞也

ㅣ라 ○ 宮中엣 오시 또 일우미 잇ᄂᆞ니 端午애 恩榮을 닙ᄉᆞ오라 細葛含風

軟香羅疊雪輕 細葛ᄋᆞᆫ 絺也ㅣ라 ○ 기ᄂᆞᆫ 츨근 ᄇᆞᄅᆞᄆᆞᆯ 머거 보ᄃᆞ랍고 곳다온 노ᄂᆞᆫ 疊疊ᄒᆞᆫ 누니 가ᄇᆡ야온 ᄃᆞᆺ도다 自天題處濕當暑著來

清 하ᄂᆞᆯ로브터 셔 ᄉᆞᆫ ᄯᅡ히 저젓ᄂᆞ니 더위ᄅᆞᆯ 當ᄒᆞ야 니부니 ᄆᆞᆯ리도다 意內稱

長短終身荷聖情 ᄠᅳᆷ 안해 길며 뎔우미 마ᄌᆞ니 모미 ᄆᆞᆺ도록 님굼 ᄠᅳ들 닙ᄉᆞ오리로다

牽牛織女

牽牛出河西織女處其東 牽牛ᄂᆞᆫ 天河ㅅ 西ㅅ 녀긔 낫고 織女

ᄂᆞᆫ 그 東녀긔 잇ᄂᆞ니라

萬古永相望七夕誰見同神光竟難候此事終朦朧 萬古애 기리 서ᄅᆞ ᄇᆞ라ᄂᆞ니 七夕에 뉘 ᄒᆞᆫᄃᆡ 잇거ᄂᆞᆯ 보니오 神光을 ᄆᆞᄎᆞᆷ매 기들우미 어려우니 이 이리 ᄆᆞᄎᆞᆷ매 어득ᄒᆞ도다

飄然精靈合何必秋遂通 서ᄅᆞᆯ히 精靈이 모도ᄆᆞᆫ 엇뎨 구틔여 ᄀᆞ을ᄒᆡ야 通ᄒᆞ리오

亭亭新粧立龍駕具層空 此ᄂᆞᆫ言織女之渡河也ㅣ라 노피 새로 ᄭᅮ미고 셔니 龍ᄆᆡ인 술위 층층인 虛空애 ᄀᆞ초ᄒᆞ얏도다

世人亦爲爾祈請走兒童 爾ᄂᆞᆫ指織女ㅣ라 七夕에 婦人이 結綵樓ᄒᆞ며 穿七孔針ᄒᆞ고 陳瓜果於庭中ᄒᆞ야 乞巧어든 蟢蛛ㅣ網於瓜上則以爲得巧ㅣ라ᄒᆞᄂᆞ니라

○世間앳사ᄅᆞᆷ미ᄯᅩ너를爲ᄒᆞ야비러請ᄒᆞ야아ᄋᆞ히ᄃᆞᆯ히奔走ᄒᆞᄂᆞ다 稱家隨

豐儉白屋達公宮 隨家豐儉ᄒᆞ야設饌以祀ᄒᆞ되自民家로至公宮也ㅣ라ᄀᆞ지븨마초豐儉을조차ᄒᆞ믈새지브로셔公宮에ᄉᆞᄆᆞᆺ디ᄒᆞᄂᆞ다 膳夫翼

堂殿鳴玉凄房櫳 櫳ᄋᆞᆫ盧東反ᄒᆞ니窓也ㅣ라外則主食之官이敬供이오內則婦人이盛服承祀ㅣ니라○차반ᄆᆡᆼᄀᆞᄂᆞᆫ사ᄅᆞᄆᆞᆫ堂殿에셔조심ᄒᆞ고서늘ᄒᆞᆫ房櫳애션佩玉을물이ᄂᆞ다

曝衣遍天下曳月揚微風 崔寔의四民月令에七月七日에曝衣裳ㅣ니라○오ᄉᆞᆯ삐요미天下이다ᄒᆞᄂᆞ니ᄃᆞ래ᄀᆞᆺ어微風에드논ᄂᆞᆺ다

蛛絲小人態曲綴瓜果中 거믜주를小人

디양ᄌᆞ곳ᄒᆞ니瓜와果實ㅅ
가온뒤곱고뢰오얼러노다 初筵浥重露曰

出甘所終 처엄돗ᄀᆞ로매重重인이슬을저
디고희돗ㅂ든ᄆᆞᄎᆞ믈돌히너기

낫
다 嗟汝未嫁女秉心欝忡忡防身動如律竭

力機杼中 忡忡은憂心皃ㅣ라此篇은以牛
女로化夫婦ᄒᆞ고以夫婦로興君

臣ᄒᆞ니言未嫁女ㅣ當秉心愼行ᄒᆞ야以禮
自防이니라○슬프다너남진아니어든너

집돌히ᄆᆞ옴자ᄇᆞ몰欝結ᄒᆞ야시름ᄒᆞ놋다
몸막조오몰뭔다마다法다이ᄒᆞᄂᆞ니뵈틀

ᄉᆞ이예셔히
믈다ᄒᆞ놋다 雖無舅姑事敢昧織作功 비록
싀아

비어미셤굘주리업스나뵈ᄧᆞ
ᄂᆞᆫ功을구티여아ᄃᆞ기ᄒᆞ리아 明明君臣契

咫尺或未容 君臣契合이 咫尺之間애 臣苟有虧ㅣ면 君必不容也ㅣ니라 ○님금과 臣下와 契合ᄒᆞ미 咫尺ㅅ ᄉᆞ이예도 시혹 容納디 몯ᄒᆞᄂᆞ니라

義無棄禮法恩始夫婦恭 言會合을 必以道ᄒᆞ야 禮法을 不可棄니 始或不恭이면 終必乖睽ㅣ니라 ○義理예 禮法 ᄇᆞ릴 주리 업스니 恩愛ᄒᆞ미 남진과 겨집괘 恭敬ᄒᆞ모로 비롯ᄂᆞ니라

大小有佳期戒之在至公方圓苟齟齬丈夫多英雄 言大小ㅣ各有期會ᄒᆞ니 要在至公이라 不可以私ㅣ니 苟不以正이면 猶方鑿圓枘之不相合이니 丈夫ᄂᆞᆫ 豈能容之리오 ○크며 져고매 아ᄅᆞᆷ다온 期會ㅣ 잇ᄂᆞ니 警戒ᄒᆞ미 至公ᄒᆞ매 잇ᄂᆞ니라 네모난 것과 두려운 것 패

真實로 맛디 아니ᄒᆞ면
丈夫ㅣ 英雄ㅣ 하니가

九日寄岑參

出門復入門兩脚但仍舊 門의 나면 任門의 드로니 뵈바리오 직녜를 仍ᄒᆞ얏도다 所向泥活活思君令人瘦 向ᄒᆞ야 가ᄂᆞᆫᄃᆡ ᄒᆞᆯ기 즈니 그듸를 ᄉᆞ랑호니 사ᄅᆞ므로 ᄒᆡ여 여위에 ᄒᆞᄂᆞ다 沈吟坐西軒 飯食錯昏晝 錯昏晝ᄂᆞᆫ 비어 두워 낫바ᄆᆞᆯ 골ᄒᆡ디 몯ᄒᆞ시라 ○ 기피 글입고 西軒의 안자셔 밥머ᄀᆞ믈 어ᄋᆞ름과 나죄 그르ᄒᆞ노라 寸步曲江頭難爲一相就라 岑參應在曲江而雨不可往也ㅣ라 ○ 寸만 거러 갈 曲江ㅅ 머리예

호번셔르나아가몬 吁嗟乎蒼生稼穡不可
호요미어렵도다
救言淫雨ㅣ害稼也ㅣ라○슬프다百姓이
녀름진는거슬可히救티못호리로다
安得請雲師疇能補天漏雲師는屛翳也ㅣ
라○엇뎨시러곰
雲師를주기며뉘能히하大明韜日月曠野
놀시는뒤놀기우려뇨
虩禽獸기불근히와ᄃᆞ롤바리니훤君子強
혼리해새즘싱이우놋다
逶迤小人困馳驟逶迤는遲回不行貌淫雨
泥塗애君子는乘車馬故
로強心而行이오小人則困於奔馳也ㅣ라
○君子는고돌파逶迤히돈니거니와小人
는馳驟호믈維南有崇山恐與川浸溜南目
뭇바호놋다긔노

픈모히잇노니내과다뭇
ᄒᆞ야믈에좀길가젼노라
是節東籬菊紛披

為誰秀
이시졀에東텩울햇菊花ㅣ
뫼뎌누를為ᄒᆞ야됴햇ᄂᆞᆫ고
岑生多

新語性亦嗜醇酎
岑生은새로왼마리하고
性도또술를즐기ᄂᆞ니라

采采黃金花何由滿衣袖
不見岑生故로心
有所思而寄之示

多ㅣ니라○黃金ᄀᆞᄐᆞᆫ곳ᄏᆡ요몰어
느말미로옷ᄉᆞ매예ᄀᆞᄃᆞ기ᄒᆞ리오

、九日曲江

綴席茱萸好浮舟菡萏衰
九日에佩茱萸ᄒᆞ
고飲菊花酒ᄒᆞ면

令人壽ㅣ니라○돗글너어ᄃᆞ로매茱萸ㅣ
됴ᄒᆞ니비를ᄠᅴ우니蓮ㅅ고지衰殘ᄒᆞ도다

季秋時已半九日意兼悲 季秋에 시졀이 ᄒᆞ마 半이로소니 九日에 ᄠᅳ디 兼ᄒᆞ야 슬프도다

江水淸源曲荊門此路疑 曲江水源이 屈曲ᄒᆞᆯᄉᆡ 謂之曲江이라 桓溫이 九日에 宴荊門龍山ᄒᆞ니 此ᄂᆞᆫ 言荊門人風景ᄋᆞᆯ 疑與曲江相似也ㅣ라 ○ ᄀᆞᄅᆞᇝ 믈 ᄆᆞᆯᄀᆞᆫ 晩 ᄎᆞᆳ 구븨와 荊門人이 길흘 疑心ᄒᆞ노라

晩來高興盡搖蕩菊花期 言今日이 已晩ᄒᆞ야 遊賞之興이 乃盡ᄒᆞ니 他日賞菊之期ㅣ 搖蕩難定也ㅣ라 ○ 나죄오매 노ᄑᆞᆫ 興이 다ᄋᆞ니 菊花 머글 期約이 搖蕩ᄒᆞ도다

、九日楊奉先會白水崔明府

今日潘懷縣同時陸浚儀 潘岳이 爲懷縣令ᄒᆞ고 陸雲이 爲浚儀縣令ᄒᆞ니 以喻楊崔二人ᄒᆞ니라 ○ 오ᄂᆞᆯ ᄂᆞᆯ 懷縣人 潘岳이 浚儀人 陸雲과 ᄒᆞᆫ쁴로다

坐開桑落酒來把菊花枝 劉墮ㅣ 善釀酒ᄒᆞ、ᄃᆡ니 熟於桑落之時故로 曰名ᄒᆞ니라 ○ 桑落酒를 안자 여러셔 菊花ㅅ 가지ᄅᆞᆯ 와 자밧도다 天字

清霜淨公堂宿霧披 衛瓘ㅣ 見樂廣曰若披雲霧覩青天이라ᄒᆞ다 ○ 하ᄂᆞᆯ효 ᄆᆞᆯ근 서리예 조ᄒᆞ니 公堂앳 자ᄂᆞᆫ 雲霧ㅣ 펴녯다 晚酣留客舞

鳧鷖共差池 鳧鷖은 用葉令王喬事ᄒᆞ야 比楊崔也ㅣ라 ○ 나조ᄒᆡ 醉코 소ᄂᆞᆯ며 믈위여 춤츠니 鳧鷖이 다ᄆᆞᄉᆞᆷ 조ᄃᆡ 아니ᄒᆞ두다

、雲安九日鄭十八携酒陪諸公宴

寒花開已盡菊蘂獨盈枝치위예고지프미ᄒᆞ마ᄆᆞᄎᆞ니菊花ㅣ호올로가지예ᄀᆞ득ᄒᆞ얏도다 舊摘人頻異輕香酒暫隨녜ᄣᅡ던사ᄅᆞ미ᄌᆞ조다ᄅᆞ니가비야ᄋᆞᆫ곳다오미수레잠ᄭᅡᆫ조ᄎᆞ놋다 地偏初衣裌山擁更登危ᄯᅡ히偏僻ᄒᆞᆫ듸처엄겹오ᄉᆞᆯ닙고모히ᄇᆞ린뒤가서야노ᄑᆞᆫ듸올오라 萬國皆戎馬酣歌淚欲垂萬國애다사호ᄆᆡᄆᆞ리로소니醉코놀래블로매눈믈리드리고뎌ᄒᆞᄂᆞ다

、九日五首

重陽獨酌杯中酒抱病起登江上臺重陽애ᄒᆞ올로杯中에술을브어病을아나셔니러ᄀᆞᄅᆞᆷ읏臺예올오라竹葉於人旣無分菊花從此不須開甫ㅣ因病ᄒᆞ야雖酌酒而不能飮故로有此聯ᄒᆞ니라竹葉은酒名ㅣ라○댓닙피사ᄅᆞᄆᆡ게ᄒᆞ마分이업스니菊花ᄂᆞᆫ일로브터퓌여ᄑᆞ디아니ᄒᆞ야노ᄒᆞ리로다殊方日落玄猿哭舊國霜前白鴈來白鴈은似鴈而小ᄒᆞ니來則霜降ᄒᆞᆯ서北人이謂之霜信ㅣ라○다ᄅᆞᆫ바해ᄒᆡ디거ᄂᆞᆯ거믄나비우ᄂᆞ니녯나라햇서리젼에ᄒᆡᆫ그려기오ᄂᆞ니라弟妹蕭條各何往干戈衰謝兩相催아ᄋᆞ와누위왜蕭條히제여곰

어드러 가니오 사홈과 늘곰괘 둘히 서르 뵈아ᄂᆞ다

舊日重陽日傳杯不放杯 녯날 重陽나래 잔 놀 傳ᄒᆞ야 잔 놀노티 아니ᄒᆞ다라

即今蓬鬢改但媿菊花開 곳 이제 다봇 ᄀᆞᄐᆞᆫ 구미 ᄃᆡ 고티니 菊花의 프믈 오직 붓그리노라

北闕心長戀西江首獨回 西江은 蜀江이니라 ○ 北闕을 ᄆᆞᄋᆞ매 기리 ᄉᆞ랑ᄒᆞ야 西江애셔 머리를 ᄒᆞ올로 횟도로노라

茱萸賜朝士難得一枝來 茱萸를 朝士를 주시것마ᄂᆞᆫ ᄒᆞᆫ 가지를 어더 오미 어렵도다

舊與蘇司業兼隨鄭廣文采花香泛泛坐客

醉紛紛蘇源明鄭虔也ㅣ라○네蘇司業과다몯ᄒᆞ야兼ᄒᆞ야鄭廣文을조차고

즐키니香氣ㅣ뻿고안자ᄂᆞᆫ소니酣ᄒᆞ야어즈럽더라野樹歌還倚秋

砧醒却聞미햇남글기웃ᄒᆞ야도로비기고ᄀᆞᄋᆞᆯ방하소리ᄅᆞᆯ세야도로드르로

ᄀᆞ歡娛兩冥寞西北有孤雲冥寞온虛無ㅣ니謂死也ㅣ라

○즐겨ᄒᆞ던이리둘히다업스니西北녀긔외로윈구룸곳잇도다

故里樊川菊登高素滻源樊川滻水ᄂᆞᆫ皆在長安ᄒᆞ니라○貝

ᄆᆞᄋᆞᆯ樊川엣菊花로흰滻水ㅅ츨햇登高ᄒᆞ요라他時一笑後今日

幾人存뎌ᄢᅴᄒᆞᆫ번우은後에오ᄂᆞᆯ나래몃사ᄅᆞᆷ미사랫ᄂᆞ니오巫峽盤

江路終南對國門 終南山은 長安ㅅ南山이라 ○ 巫峽엔 ᄀᆞᄅᆞ맷 길히 셔 잇ᄂᆞ니 終南山은 나랏門ᄋᆞᆯ 對ᄒᆞ얫ᄂᆞ니라 繫舟身萬里伏枕淚雙痕 ᄇᆡᄅᆞᆯ ᄆᆡ오 모미 萬里예 왯노니 벼개예 굿브로니 눈므리 두 그제로다 為客裁烏帽從兒具綠樽 나그내 ᄃᆞ외야 ᄒᆞ매 거믄 頭巾ᄋᆞᆯ 裁作ᄒᆞ고 아ᄒᆡᄅᆞᆯ 조차 ᄑᆞ른 酒樽을 ᄀᆞᆺ초호라 佳辰對羣盜愁絕更堪論 됴ᄒᆞᆫ 時節에 믈 盜賊을 對호니 시르믈 다시 議論ᄒᆞ얌즉ᄒᆞ니아

、九日諸人集于林

九日明朝是相要舊俗非 九日은 ᄂᆡ일 아ᄎᆞ미 이니 서르 마자

노뎐녯風俗이아니로다老翁難早出賢豪今幸知歸늘근ᄒᆞᆫ아
비ᄂᆞᆫ일나미이러우니어딘 손돌혀幸히오ᄆᆞᆯ아ᄅᆞᆯ디니라舊采黃花賸
新梳白髮微賸은石證反ᄒᆞ니有餘也ㅣ라○녜키던누르고지하니ᄉᆡ려
비소니흰머리터리젹도다謾看年少樂忠淚已沾衣뎌믄
사ᄅᆞᆷ의즐규믈쇽졀업시보뎟다츙눈눈믈이ᄒᆞ마오시젓ᄂᆞ다

丶九日登梓州城

伊昔黃花酒如今白髮翁녯누른곳ᄠᅴ운수ㅣ오이제머리셴
ᄒᆞᆫ아비로다追歡筋力異望遠歲時同즐거우믈조초매히

미비와다ᄅᆞ니먼 될ᄇᆞ리 오ᄆᆞᆫ歲時예ᄒᆞᆫ가지로다 蜑婦悲歌裏朝廷醉眼中隶沐日近巇子胥ᄒᆞ니朝廷ㅣ在吾의醉眼中矣로다○아ᄋᆞ와누위ᄂᆞᆫ 슬픈놀애소ᄀᆡ오朝廷ᄋᆞᆫ醉ᄒᆞᆫ눈가온ᄃᆡ로다 兵戈與關塞此日意無窮時有吐蕃之亂ᄒᆞ니라○사홈과다ᄆᆞᆺᄀᆞ애와介매이나래ᄠᅳ디다ᄋᆞᆷ이업도다

、九日奉寄嚴大夫

九日應愁思經時冒險艱九日에당당이시름ᄒᆞᄂᆞ니時節을디나ᄃᆞ록어려운길헤ᄃᆡ가놋다 不眠持漢節何路出巴山

嚴大夫ㅣ時在巴山ᄒᆞ니라。ᄌᆞ오더아니
ᄒᆞ야셔漢ㅅ符節을가져ᄂᆞ니어느길히巴
山으로나가리오 小驛香醪嫩重巖細菊斑 져고맛驛에곳
다온수리보ᄃᆞ랍고여러불바회옌ᄀᆞᄂᆞᆫ菊花ㅣ어르누겟ᄂᆞ니라 遙知簇鞍
馬回首白雲間 言嚴大夫ㅣ在巴山而回望甫也ㅣ라。기ᄅᆞ마기흔ᄆᆞ
ᄅᆞᆯ뫼화셔힌구룸서리예머리도로혀ᄇᆞ라ᄆᆞᆯ아ᄋᆞ라히아노라

巴嶺答杜二見憶 御史大夫嚴武

卧向巴山落月時兩鄕千里夢相思 言甫ㅣ在
梓州而向巴山也ㅣ라。巴山ㅅ돌믈明누워向ᄒᆞ얏ᄂᆞ니두ᄀᆞ올ᄒᆡ千里예ᄭᅮ메셔

ᄅᆞᄉᆞ랑ᄒᆞ노라可但步兵偏愛酒也知光祿最能

詩阮籍이爲步兵校尉오謝莊이爲光祿大夫ᄒᆞ니以比甫之嗜酒能詩ᄒᆞ니라

○可히오직步兵이술ᄉᆞ랑호믈偏히ᄒᆞᆯᄲᅮᆫ가光祿이안직글能히호믈알아노라

江頭赤葉楓愁客籬外黃花菊對誰皆言甫之事也ㅣ라○ᄀᆞᄅᆞᆷᄀᆞᇫ블근닙신남ᄀᆞᆫ그내롤시름케ᄒᆞᄂᆞ니울밧긧누른곳菊花ᄂᆞᆫ누를對ᄒᆞ얏ᄂᆞ고

跂馬望君非一度冷猿秋鴈不勝悲此ᄂᆞᆫ答饑鞍馬之語也ㅣ라○ᄆᆞᆯ타셔그ᄃᆡ롤ᄇᆞ라오미ᄒᆞᆫ번ᄲᅮᆫ니아니니사ᄂᆞᆯᄒᆞᆫ납과ᄀᆞᄋᆞᆳ그려기예슬프믈이긔디몯ᄒᆞ리로다

九日

去年登高郪縣北今日重在涪江濱 녯ᄒᆡ 郪縣ㅅ北녀긔 登高ᄒᆞ니 오ᄂᆞᆯ나래 涪江ㅅ ᄀᆞᅀᆡ 다시 이슈라 苦遭白髮不相放羞見黃花無數新 셴 머리 서르 노티 아니ᄒᆞ믈 심히 만나니 누른 고지 數 업시 새로이 퍼쇼ᄆᆞᆯ 븟그려 보노라 世亂鬱鬱久為客路難悠悠常傍人 時世 어즈러운 제 鬱鬱히 오래 나그내 ᄃᆞ외야 이슈니 길히 어려워 悠悠히 長常 사ᄅᆞᄆᆞᆯ 바라 ᄃᆞᆫ니노라 酒闌却憶十年事腸斷驪山清路塵 追想明皇ㅅ遊幸驪山也ㅣ라 ○ 술이 ᄃᆞᄋᆞ거ᄂᆞᆯ 열ᄒᆡㅅ

이롤 도로혀 ᄉᆞ랑ᄒᆞ노니 驪山ᄉᆞ몰 고길 ᄃᆞ르래 애롤 긋노라

九日藍田崔氏莊

老去悲秋強自寬興來今日盡君歡 늘거 가매 ᄀᆞ올ᄒᆞᆯ 슬허셔 고ᄃᆞᆯ ᄡᅡ 내 ᄆᆞᄋᆞ몰 어위키 ᄒᆞ노니 興이 오거ᄂᆞᆯ 오ᄂᆞᆯ나래 그듸와 歡樂ᄒᆞ몰 다ᄋᆞ노라

羞將短髮還吹帽笑倩傍人為正冠 뎌ᄅᆞᆫ 머리터리롤 가져 도로 두 번에 불유몰 붓그려 웃고 겨틧 사ᄅᆞᆷ ᄆᆞᆯ 비려 為ᄒᆞ야 冠을 고치이노라

藍水遠從千澗落玉山高並兩峯寒 藍水ᄂᆞᆫ 在藍田縣ᄒᆞ니라 玉山이 與春山華山으로 並立也ㅣ라 ○藍水ᄂᆞᆫ 멀리 즈믄 시내롤

조차디거늘玉山은노픠두뫼
부리를골와셔늘ᄒᆞ얏도다
明年此會知誰健醉把茱萸仔細看
오ᄂᆞᆫ힛ᄋᆡ會集에아
노라뉘健壯ᄒᆞ야실
고醉코茱萸를자바
셔仔細히볼다로다

絶句

每恨陶彭澤無錢對菊花
陶潛이爲彭澤令
ᄒᆞ니라○陶彭澤
이돈업시셔菊花對ᄒᆞ
얏단이를ᄆᆡ양슬노라
如今九日至自覺酒須賖
이제九日이오ᄂᆞ니내수
를고로매사몰아노라

小至

天時人事日相催冬至陽生春又來하ᄂᆞᆯ時節와사
ᄅᆞᄆᆡ이리날로서르뵈아ᄂᆞ니冬至예陽氣나보미ᄯᅩ오ᄂᆞᆺ다刺繡五紋添
弱線吹葭六琯動浮灰唐雜錄애宮中이以女工으로揆日長短
ᄒᆞᄂᆞ니冬至後에日漸長ᄒᆞ야增一線之工이니라漢書에以葭莩灰로實律之端ᄒᆞ고
按曆者ㅣ候之ᄒᆞ리氣至則灰飛ᄒᆞᄂᆞ니用六律이니라○繡질호매다ᄉᆞᆺ비ᄎᆡᆺᄀᆞᆫ시
리더으ᄂᆞ니골ᄉᆞ론ᄌᆡ불이ᄂᆞ여ᄉᆞᆺ대롱앤ᄠᅳᆫᄌᆡ뮈ᄂᆞᆺ다岸容待臘將舒
柳山意衝寒欲放梅두들양ᄌᆞᄂᆞᆫ臘日을기ᄃᆞ려將次ㅅ버드를펴
리라ᄒᆞᄂᆞ니뫼ㅅᄠᅳ든치위ᄅᆞᆯ다딜어梅花ᄅᆞᆯ픠우고져ᄒᆞᄂᆞᆺ다雲物不殊鄉

國異教兒且覆掌中杯 雲物이다ᄅᆞ디아니ᄒᆞ되鄕國은다ᄅᆞ니 아ᄒᆡᄅᆞᆯᄒᆡ여손가온ᄃᆡ잔올업텨먹노라

至日遣興奉寄北省舊閣老兩院故人

二首

去歲茲辰捧御床五更三點入鵷行 니건ᄒᆡㅅ이ᄢᅢ御床ᄋᆞᆯ받ᄌᆞ와五更三點에鵷鷺ㅅ行列에드로라

欲知趨走傷心地正想氤氳滿眼香 言趨走華州而想御爐香ᄒᆞ니其傷心은可知니라 ○ᄃᆞᆫ녀ᄠᅱ ᄆᆞᅀᆞᆷ슬논ᄯᅡᄒᆞᆯ알오져ᄒᆞᆯ딘댄옷 곳ᄒᆞᆫ누네ᄀᆞ독ᄒᆞᆫ香氣ᄅᆞᆯ正히ᄉᆞ티노라

無

路從容陪語笑有時顚倒著衣裳 ᄌᆞ녹ᄌᆞ녹기 말ᄉᆞᆷ과 우ᅀᅮ믈 뫼ᅀᆞ와 올길ᄒᆞᆫ 업고 업드러 옷ᄀᆞ외 니블 ᄢᅵ잇노라

何人錯憶窮愁日愁日愁隨一線長 窮愁ᄂᆞᆫ 謂陽生陰退ᄒᆞ야 乃愁盡之日也ㅣ라 ○어느 사ᄅᆞ미 시름다ᄒᆞ논 나리라 외오 思憶ᄒᆞ니오 시름다ᄒᆞᄂᆞ다ᄒᆞ논 나래 시르미 ᄒᆞᆫ시를 조차 기러가ᄂᆞ다

憶眠逍遙供奉班去年今日侍龍顔 唐拾遺ㅣ掌供奉諷諫ᄒᆞᄂᆞ니라 ○ᄉᆞ랑호니 녜 供奉人班列에 노라 녀니건 ᄒᆡᆺ 오ᄂᆞᆳ 나래 龍顔ᄋᆞᆯ 뫼ᅀᆞ오라

麒麟不動爐烟上孔雀徐開扇影還 麒麟은 爐

形이오 孔雀은 以尾로 為扇也ㅣ라 ○ 麒麟이 뮈디 아니ᄒᆞ얏거든 香爐애 너오ᄅᆞ고 孔雀이 ᄂᆞᆯ호야 열려 傘扇ㅅ 그르메 휫도더라

玉几由來天北極 朱衣只在殿中間 玉几는 御榻之几라 朱衣는 朝日에 傳呼百官入班者ㅣ라 ○ 玉으로 ᄒᆞᆫ 几는 由來로 하ᄂᆞᆯ 北極에 잇고 블근 옷니브니는 오직 殿ㅅ 가온ᄃᆡ 잇더라

孤城此日腸堪斷 愁對寒雲雪滿山 孤城은 甫ㅣ 在華州也ㅣ라 ○ 외ᄅᆞ왼 城ㅅ 이 나래 애ᄅᆞᆯ 긋쳠즉ᄒᆞ니 치운 구루메 힌 누니 뫼햇 ᄀᆞᄃᆞᆨᄒᆞ야 슈믈 서르 對ᄒᆞ얏노라

冬至

年年至日長為客忽忽窮愁泥殺人 泥ᄂᆞᆫ力計反ᄒᆞ니止也ㅣ라殺ᄂᆞᆫ去聲이니語助辭ㅣ라○ᄒᆡ마다冬至ㅅ나래기리나그내ᄃᆞ외요니忽忽히기폰시르미사ᄅᆞᄆᆡᄆᆞᅀᆞᄆᆞᆯ굿누르ᄂᆞ다

江上形容吾獨老天涯風俗自相親 ᄀᆞᄅᆞᇝ우희얼구른내ᄒᆞ올로ᄂᆞᆯ구니하ᄂᆞᆳᄀᆞᆺ風俗ᄋᆞᆫ내서르親ᄒᆞ라

杖藜雪後臨丹壑鳴玉朝來散紫宸 上句ᄂᆞᆫ甫ㅣ自言이오下句ᄂᆞᆫ想賀冬朝班也ㅣ라○도ᄐᆡ랏막대딥고눈온후에블근묏고ᄅᆞᆯ디러슈니佩玉ᄋᆞᆯ울여아ᄎᆞᆷ오매紫宸殿에셔흐터가ᄂᆞ니라

心折此時無一寸路迷何處見三秦 項羽ㅣ三分開中ᄒᆞ야封章邯

等三王ᄒᆞ니라 ○ ᄆᆞᄋᆞ미 이것거ᄃᆡ 이ᄣᅢ ᄒᆞᆫ寺도 엽스니 길ᄒᆞᆯ 迷失ᄒᆞ니 어느 ᄯᅢ 해 三秦을 보리오

臘日

臘日常年暖尚遙今年臘日凍全消 臘日이 常녜ᄉᆞ히 옌ᄃᆡ 위오히려 머ᄃᆡ니 올ᄒᆡᆺ 臘日엔 언 거시 다 녹ᄂᆞ다

侵凌雪色還萱草漏洩春光有柳條 눈비ᄎᆞᆯ 侵凌ᄒᆞ야 萱草ㅣ 도로 나ᄂᆞ니 봄비ᄎᆞᆯ ᄉᆡ여ᄃᆞᆯ거ᄂᆞᆫ 버들가지 잇도다

縱酒欲謀良夜醉還家初散紫宸朝 수를 ᄀᆞ장 머거셔 됴ᄒᆞᆫ 바ᄆᆡ 醉호믈 ᄭᅬᄒᆞ고 ᄯᅩᄒᆞ노니 지븨 도라오몬 紫

宸殿엣朝會로ᄎᆡ염ᄒᆞ도라 口脂面藥隨恩澤翠管銀罌
下九霄 唐制예臘日에賜口脂面藥ᄒᆞ더니管罌ᄋᆞᆫ所盛之器라○이베브ᄅᆞᄂᆞᆫ
脂와ᄂᆞᄎᆡ ᄇᆞᄅᆞᆯ藥이님굼恩澤올조차프른대롱과銀罌이하ᄂᆞᆯ로셔ᄂᆞ려오ᄂᆞ다

、杜位宅守歲

守歲阿咸家椒盤已頌花 阿咸ᄋᆞᆫ叔是位의小字也ㅣ니라晉
人劉臻妻ㅣ元日에獻椒花頌曰旲穹이周回ᄒᆞ니三朔이肇建이로다青陽이散暉오
澄景ㅣ載煥이로다美此靈葩ᄒᆞ야爰采爰獻ᄒᆞ노라聖容映之ᄒᆞ야永壽於萬이어다
ᄒᆞ니라○阿咸의지븨와셔ᄒᆡᄅᆞᆯ守호니椒다ᄆᆞᆫ盤애ᄒᆞ마고ᄌᆞᆯ頌ᄒᆞᄂᆞ다 盍簪喧

櫪馬列炬散林鴉言朋友ㅣ會而馬ㅣ喧鳴이오炬火明而栖鴉ㅣ驚飛니라○簪纓ᄒᆞᆫ사ᄅᆞ미모ᄃᆞ니멀허멧ᄆᆞ리우르고횃브를버리니수프렛가마괴ᄒᆞᄃᆡ가ᄂᆞ다四十明朝過飛騰暮景斜四十이니일아ᄎᆞᆷ미디나가ᄂᆞ니ᄂᆞᆫ나ᄌᆞᆺ혀기우도다誰能更拘束爛醉是生涯言誰能拘於禮法而不痛飮爲樂이리오○뉘能히ᄯᅩ얼미여시리오므르녹게醉ᄒᆞ미이生涯니라

千秋節有感二首

自罷千秋節頻傷八月來千秋節은玄宗ㅅ誕日이니八月五

日也ㅣ라○千秋節을罷ᄒᆞ오ᄆᆞ로 ᄇᆞ리ᄃᆡ八月이오ᄂᆞᆯ조ᄎᆞ로라 **先朝常宴會壯觀已塵埃** 先朝애長常이바디ᄒᆞ더니 壯大ᄒᆞᆫ뵈던거시ᄒᆞ마드트리ᄃᆞ외도다

鳳紀編生日龍池塹刼灰 鳳紀ᄂᆞᆫ即鳳曆이라 玄宗入潛邸舊宅中井이忽湧為小池ᄒᆞ니常有黃龍ㅣ在焉ᄒᆞ니라漢武ㅣ穿昆明池ᄒᆞ니有灰어ᄂᆞᆯ胡僧曰此ㅣ天地刼灰也ㅣ라○鳳紀예ᄂᆞᆫ나신나ᄅᆞᆯ혯ᄂᆞ니龍도ᄂᆞᆫ前刼人지예뀌엿도다

湘川新涕淚秦樹遠樓臺 湘南ㅣ在湘川ᄒᆞ야想望長安樓臺而感傷也ㅣ라○湘川에와셔ᄂᆞᆫ므ᄅᆞᆯ새려흘리노니秦ㅅ남기ᄂᆞᆫ樓臺ㅣ머리잇도다

寶鏡羣臣得金吾萬國回 千秋에王公戚

里ㅣ獻金鏡及承露絲囊ᄒᆞ더니라金吾將
軍은禁衛者ㅣ라○珍宝ᄅᆞᆯ왼귀우루ᄅᆞᆯ羣
臣ㅣ엇고金吾侍衛ᄒᆞ얏ᄂᆞᆫ
ᄃᆡᆫ萬國이도라오더니라 衢樽不重飮白
看獨餘哀 淮南子曰聖人之道ㅣ猶中衢而
致樽ᄒᆞ니過者ㅣ斟酌多少ᄒᆞ야
各得所宜라ᄒᆞ니此ᄂᆞᆫ言賜宴之酒ᄅᆞᆯ君羣臣
이皆得飮也ㅣ라○길헷酒樽올다지먹디
몯ᄒᆞ니현머리예ᄒᆞᆫ옹
로ᄂᆞᆯ호미나맛도다
御氣雲樓敞含風綵仗高 氣運을御ᄒᆞ얏ᄂᆞᆫ
구름신樓ㅣ훤ᄒᆞ
고ᄇᆞᄅᆞᆷ머굼ᄂᆞᆫ빗
난儀仗이놉더니라 仙人張內樂王母獻金
桃 西王母이獻仙桃於武帝ᄒᆞ니라○仙人
ᄋᆞᆫ안뒥音樂올펫고西王母ᄂᆞᆫ金곳ᄒᆞᆫ복

셩화ᄅᆞᆯ밧ᄌᆞᆸ더니라 羅襪紅蕖豔金羈白雪毛舞階銜

壽酒走索背秋毫 言羅襪佳人이走索上爲戲ᄒᆞ고金勒白馬ㅣ銜盃而舞也ㅣ라 ○ 노보션신ᄂᆞᆫ녀지븐블근蓮이고온ᄃᆞᆺ고金굴에ᄆᆡᆫᄆᆞᄅᆞᆫ힌눈ᄀᆞᆮᄒᆞᆫ터리나라버텅에셔춤처獻壽ᄒᆞᆯ술ᄅᆞᆯ머구멋고노우희ᄃᆞ라ᄀᆞᅀᆞᆳ터리ᄀᆞᄐᆞᆫ뒤셔도라셔더니라

聖主他年貴邊心此曰勞 甫ㅣ今在邊地而感念昔日之盛事ㅣ라 ○ 聖主ㅣ다ᄅᆞᆫᄒᆡ예貴ᄒᆞ더시니ᄀᆞᅀᆡ잇ᄂᆞᆫᄆᆞᅀᆞᄆᆞᆫ이나래잇비ᄉᆞ랑ᄒᆞ노라

桂江流向北滿眼送波濤 桂江이在甫의寓居之地ᄒᆞ니此애見甫의望長安之切이로다 ○ 桂江이흘러北녀그로向ᄒᆞᄂᆞ니누네ᄀᆞᄃᆞᆨ기믌겨

ᄅᆞᆯ 보내노라

晝夜 夢附 古詩二首 律詩二十一首

今夕行

今夕何夕歲云徂更長燭明不可孤 孤ᄂᆞᆫ 孤負也ㅣ라ㅇ 오ᄂᆞᆯ 나조ᄒᆞᆫ 엇던 나조코 ᄒᆡ 다 가ᄂᆞ니 更點이 길오 燭ㅅ 브리 ᄇᆞᆯᄀᆞ니 ᄒᆡᆺ ᄇᆞ리미 可티 아니ᄒᆞ도다

咸陽客舍一事無相與博塞爲歡娛 博은 局戲니 行棊子相塞ᄒᆞᆯᄉᆡ 謂之塞라ㅇ 咸陽ㅅ 客舍애 ᄒᆞᆫ 일도 업거늘 서르 다ᄆᆞᆺᄒᆞ야 雙陸ᄋᆞ로 歡娛ᄅᆞᆯ ᄒᆞ노라

憑陵大叫呼五白袒跣不

肯成梟盧 五白은 即今骰子ㅣ라 梟ᄂᆞᆫ 勝也ㅣ오 盧ᄂᆞᆫ 勝之名也ㅣ라 ○ 서리ᄡᅳ며 기울어 五白을 블로니 옷 메와ᄉᆞ며 발바사도 이긔유믈 일오디 몯ᄒᆞ리로라

英雄有時亦如此邂逅豈即非良圖 言如劉裕 劉毅等ㅣ以一時英雄ᄋᆞ로 皆爲蒲博ᄒᆞ니 今夕邂逅而爲之ᄒᆞ미 未必非良圖也ㅣ라 ○ 英雄이 또 이ᄀᆞ티 ᄒᆞᆯ 쁴 잇ᄂᆞ니 오ᄂᆞᆯ 맛나라슈미 엇뎨 됴ᄒᆞᆫ 꾀 아니리오

君莫笑劉毅從來布衣願家無儋石輸百萬 齊人이 名小甖爲儋石이니 受二斛이라 言劉毅ㅣ布衣窮時예 志大故로 能成大事ᄒᆞ니 蒲博之戲ㅣ 亦無害也ㅣ니라 ○ 그ᄃᆡᄂᆞᆫ 劉毅의 從來로 뵈옷 닙고 셔 願ᄒᆞ던 이ᄅᆞᆯ 우ᅀᅳᆷ 말라 지븨 儋石이

업서도百萬곰
던기더니라

夜歸

夜來歸來衝虎過山黑家中已眠臥 바ᄆᆡ도라오매
비믈다딜어디나오니모히어듭
고집안해현ᄒᆞ마ᄌᆞ오라자ᄂᆞ다 傍見北斗
向江底仰看明星當空大 明星ㅣ夜半乃見
이니라。北斗ㅣ
ᄀᆞᄅᆞᄆᆞᆯ向ᄒᆞ야ᄂᆞᆺ가와가ᄆᆞᆫ기ᄋᆞ로보고새
벼리虛空ᄋᆞᆯ當ᄒᆞ야크믈올워러보노라
庭前把燭嗔兩炬峽口驚猿聞一箇 嗔ᄋᆞᆫ嗔
風恚也
ㅣ라。ᄠᅳᆯ알ᄑᆡ자밧ᄂᆞᆫ燭ᄋᆞᆯ두브를믜여ᄒᆞᆫ
노니峽人이졧놀라우ᄂᆞᆫ나ᄇᆞᆯᄒᆞᆫ나ᄎᆞᆫ듣노

라

白首老罷舞復歌杖藜不睡誰能那 罷上讀爲

夜ㅣ니라 那는 何也ㅣ라 ○ 센머리 늘거시드러우니 매 춤츠고 또 놀애 브르노니 도ᄐᆞ랏막대 딥고 조오디 아니호몰 뉘 能히 엇데ᄒᆞ리오

、朝二首

淸旭楚宮南霜空萬嶺含 물ᄀᆞᆫ 아ᄎᆞᆷ 힛비치 楚宮ㅅ 南녀기로 소니 서ᄃᆞᆺ 虛空애 萬嶺이 머겟도다

野人時獨往雲木曉相參 ᄆᆡᆺ햇 사ᄅᆞ미 時로 ᄒᆞ오아 가니 구룸 ᄭᅵᆫ 남기 새배 서르 하 놀해 다햇도다

後鶻無聲過饑烏下食貪 뒤 온 매는 소리 업시 디나가고 주린 가마괴는 ᄂᆞ려

머구믈 ᄒᆞᄂᆞ다

貪病身終不動搖落任江潭 病ᄒᆞᆫ 모미 ᄆᆞᄎᆞ매 뮈돌 아니ᄒᆞ야셔 이어 ᄢᅥ러듀믈 江潭을 므던히 너기노라

浦帆晨初發郊扉冷未開 개옛 빗돗기 새배 처엄 나가ᄂᆞ니 ᄆᆡ햇 門ㅅ 부체ᄅᆞᆯ 치위여 다 못호라

村蹊黃葉墜野靜白鷗來 ᄆᆞ올히 섯긔니 누른 니픠 디고 미햇 괴외ᄒᆞ니 힌 골며기 오ᄂᆞᆺ다

礎潤休全濕雲晴欲半回 拄礎에 오로 져주미 마니 구루미 개야 半만 도라오고셔 ᄒᆞ놋다

巫山冬可怪昨夜有奔雷 巫山애 겨ᅀᅳ리 可히 怪異ᄒᆞ니 어제 바ᄆᆡ ᄃᆞᆫᄂᆞᆫ 울엣 소리 잇도다

、晩

杖藜尋晩巷 炙背近墻暄 도ᄐᆞ랏 막대 딥고 나죗 굴헝을 ᄎᆞᆺ고 등이리 뙤노라 다매 더운 ᄒᆡᆺ비츨 갓가이 호라 人見幽居僻 吾知養拙尊 幽深ᄒᆞᆫ ᄃᆡ 사ᄂᆞᆫ 偏僻ᄒᆞ몰 사ᄅᆞᆷ이 보ᄂᆞ니 拙ᄒᆞᆫ 몸 養ᄒᆞ며 尊ᄒᆞ몰 나ᄂᆞᆫ 아노라 朝廷問府主 耕稼學山村 朝廷에 일ᄒᆞᆫ 府主ㅅ긔 묻고 녀름지ᅀᅵ란 山村ㅅ 사ᄅᆞᆷᄃᆞ려 ᄇᆡ호노라 歸翼飛栖定 寒燈亦閉門 도라가ᄂᆞᆫ 새의 ᄂᆞ라가 깃호미 一定커ᄂᆞᆯ ᄎᆞᆫ 블 비취ᄂᆞᆫ ᄯᅩ 門을 다도라

、反照

反照開巫峽寒空半有無 도로비취ᄂᆞᆫ힛비치巫峽에여렛ᄂᆞ
니치운虛空에半만잇ᄂᆞᆫᄃᆡ업ᄂᆞᆫᄃᆡ로다 已低魚復暗不盡白鹽
孤 魚復浦白鹽山이皆在夔州ᄒᆞ다○ᄒᆞ마ᄂᆞᄌᆞᆨᄒᆞ니魚復이어듭고白鹽山ᄋᆞᆫ외ᄅᆞ왼
뒤다ᄋᆞ디아니ᄒᆞ얏도다 荻岸如秋水松門似畫圖 松門이亦
在夔州ᄒᆞ니言荻花ㅣ寒布ᄒᆞ니如秋水ㅣ翻波ㅣ오松門景物은如畫圖也ㅣ라○ᄀᆞᆯ
빗ᄂᆞᆫ두들곤ᄀᆞ올믈ᄀᆞᆺ고松門ᄋᆞᆫ그리미ᄀᆞᆺ도다 牛羊識僮僕既夕
應傳呼 牧童이모ᄂᆞᆫ소리ᄅᆞᆯ牛羊이相應ᄒᆞ아도라올서라○쇼와羊괘아ᄒᆡ죵
ᄃᆞᆯ홀아다ᄒᆞ마나조히어늘傳ᄒᆞ야블로믈對答ᄒᆞᄂᆞ다

、暝

日下四山陰山庭嵐氣侵 ᄒᆡ 뎌 네 뫼히 어드우니 묏 ᄠᅳᆯ헤 雲嵐 氣運이 侵遍ᄒᆞ놋다 牛羊歸徑險鳥雀聚枝深 쇼와 羊ᄋᆡ 도라오ᄂᆞᆫ 길히 險ᄒᆞ니 새 모다 안잣ᄂᆞᆫ 가지ᄂᆞᆫ 깁도다 正枕當星劒收書動玉琴 星劒은 劒上애 有星文也ㅣ오 玉琴ᄋᆞᆫ 以玉爲琴徽也ㅣ라 ○벼개ᄅᆞᆯ 고티노라 별사ᄀᆞᆫ 갈ᄒᆞᆯ 當ᄒᆞ고 書冊ᄋᆞᆯ 뫼호다가 玉琴ᄋᆞᆯ 뮈우라 半扉開燭影欲掩見清砧 半 門ㅅ 부체 燭ㅅ 그르메예 여럿거ᄂᆞᆯ 다도리라 ᄒᆞ다가 ᄆᆞᆯ곤 바ᄀᆞ하ᄅᆞᆯ 보라

、向夕

畎畝孤城外江村亂水中 밧이러믄 외로왼 城밧기오 ᄀᆞᄅᆞᆷ ᄆᆞ올ᄒᆞᆫ 어즈러운 믈 가온ᄃᆡ로다 深山催短景喬木易高風 기픈 뫼헤 뎌른 ᄒᆡ 뵈왓브니 노ᄑᆞᆫ 남ᄀᆞᆫ 노ᄑᆞᆫ ᄇᆞᄅᆞᆷ 부루미 쉽도다 鶴下雲汀近鷄栖草屋同 鶴ᄋᆞᆫ 구룸 ᄭᅵᆫ 믈ᄀᆞ의 ᄂᆞ료미 갓가오니 ᄃᆞᆯ고 새지븨 가세 올오미 ᄒᆞᆫ가지로다 琴書散明燭長夜始堪終 거믄고와 글월와 ᄇᆞᆯᄀᆞᆫ 燭ㅅ 브레 헤혀ᄂᆞ니 긴 바ᄆᆞᆯ 비르서 ᄆᆞᆺ 참직ᄒᆞ도다

、薄暮

江水最深地山雲薄暮時ᄀᆞᄅᆞᆷ므른안직기픈ᄯᅡ해뫼ᄒᆡ구룸첫어으름ᄢᅴ로다

寒花隱亂草宿鳥擇深枝치위옛고ᄌᆞᆫ어즈러운플서리예그ᅀᅳᆨᄒᆞ고자ᄂᆞᆫ새ᄂᆞᆫ기픈가지ᄅᆞᆯᄀᆞᆯᄒᆡ놋다

舊國見何日高秋心苦悲舊國을보ᄆᆞᆫ어느날오노ᄑᆞᆫᄀᆞᅀᆞᆯᄒᆡᄆᆞᅀᆞ몰심히슬노라

人生不再好鬢髮白成絲人生이다시됴히ᄃᆞ외디몯ᄒᆞᄂᆞ니구믿과머리왜셰여시라ᄃᆞ외도다

、日暮

日落風亦起城頭烏尾訛訛ᄂᆞᆫ動也ㅣ라○ᄒᆡ디고ᄇᆞᄅᆞ미ᄯᅩ

니ᄂᆞ니城머리예가마괴ᄯᅥ리뮈놋다 黃雲高未動白水已揚波 누른구루미노파뮈디아니ᄒᆞ얏고ᄒᆡᆫ므른ᄒᆞ마믈겨리베프놋다 羌婦語還哭胡兒行且歌 되겨집은말ᄒᆞ락도로울오되아ᄒᆡᄂᆞᆫᄃᆞᆫ니며ᄯᅩ놀애브르놋다 將軍別上馬夜出擁雕戈 將軍이各別히ᄆᆞᆯᄐᆞ바ᄆᆡ나가雕戈로ᄢᅧᆺ도다

、日暮

牛羊下來久各已閉柴門 쇼와羊괘ᄂᆞ려오ᄂᆞᆫ나조ᄒᆡ제여곰ᄒᆞ마섭나모門을닷놋다 風月自清夜江山非故園 ᄇᆞᄅᆞᆷ과ᄃᆞᆯ

와 절로 몯곤 바믜 ᄀᆞ롬과 石泉流暗壁草露

뫼ᄒᆡ 故園이 아니로다 滿秋根 돌햇 시므리 어드운 石壁에 흐르고 프렛 이스른 ᄀᆞ올 불휘예 ᄀᆞ독ᄒᆞ도다

頭白燈明裏何須花燼繁 燈花明繁則白髮이 可羞故也ㅣ라

○블 불근 소개 머리 셰니 엇뎨 구틔여 블고지 하거니오

、夜二首

白夜月休弦燈花半委眠 힌 바미 ᄃᆞ리 上弦ᄒᆞ디 아니ᄒᆞ니 블고지 半만 조오라 더디여 가놋다 號山無定鹿落樹有驚蟬 뫼해셔 우ᄂᆞᆫ 安定티 아니ᄒᆞᆫ 사ᄉᆞ미오 남긔셔 디ᄂᆞᆫ 놀라ᄂᆞᆫ 미야미 잇도다 暫

憶江東膾兼懷雪下船張翰이思江東鱸魚而歸ᄒᆞ고王子猷ㅣ雪夜애乘舟訪戴安道ᄒᆞ니라○江東앳鱠ᄅᆞᆯ 잠간 ᄉᆞ랑ᄒᆞ고 눈 아랫 ᄇᆡᄅᆞᆯ 兼ᄒᆞ야 ᄉᆞ랑ᄒᆞ노라

蠻歌犯星起重覺在天邊蠻人ᄋᆡ 놀애 벼ᄅᆞᆯ 두 犯ᄒᆞ야 니ᄂᆞ니 하ᄂᆞᆯ ᄀᆞᄋᆡ와 이슈믈 다시 알와라

城郭悲笳暮村墟過翼稀城郭ㅅ 슬픈 픗뎌 나조ᄒᆡ 村墟에 디나가ᄂᆞᆫ 새 드므도다

甲兵年數久賦斂夜深歸輸征稅ᄒᆞ고夜還也ㅣ라○甲兵닐언 힛數ㅣ 하니 賦斂바티고 바미 깁거늘 도라오노다

暗樹依巖落明河繞塞微어드운 남ᄀᆞᆫ 바회 돌브터 ᄠᅥ디고 ᄇᆞᆯᄀᆞᆫ 銀河ᄂᆞᆫ ᄀᆞ오、

로바ᄆᆞ리 微ᄒᆞ도다

微斗斜人更望 月細鵲休飛 古詩예 月明星稀ᄒᆞ니 烏鵲이 南飛라 ᄒᆞ다 ○ 北斗ㅣ 빗겨 가거늘 사ᄅᆞ미 다시 ᄇᆞ라오니 ᄃᆞ리 ᄀᆞᄂᆞ라 가치 ᄂᆞᆯ지 아니ᄒᆞ놋다

、夜

絶岸風威動 寒房燭影微 그츤 두들게 ᄇᆞᄅᆞ미 威嚴이 뮈ᄂᆞ니 치운 房읫 燭ㅅ 그르메 微微ᄒᆞ도다

嶺猿霜外宿 江鳥夜深飛 뫼햇 나ᄇᆡᆫ 서리 밧긔 셔 자고 ᄀᆞᄅᆞ매 새는 바미 깁ᄃᆞ록 ᄂᆞ놋다

獨坐親雄劒 哀歌嘆短衣 劒有雌雄ᄒᆞ니라 ○ ᄒᆞ오아 안자 雄劒을 親히 ᄒᆞ고 슬피 놀애

블더뎌ᄅᆞᆫ 오ᄉᆞᆯ 嗟嘆ᄒᆞ노라

烟塵繞閶闔白首壯心違 閶闔ᄋᆞᆫ 指闕門ᄒᆞ니 言吐蕃이 陷京師也ㅣ라○ ᄂᆡ와 드틀왜 大闕ㅅ 門의 버므럿ᄂᆞ니 셴머리예 健壯ᄒᆞᆫ ᄆᆞᄋᆞ미 어그릇도다

、中夜

中夜江山靜危樓望北辰 中夜애 ᄀᆞᄅᆞᆷ과 뫼 괘괴ᄒᆞ니 노ᄑᆞᆫ 樓의셔 北辰ᄋᆞᆯ ᄇᆞ라노라

長爲萬里客有媿百年身 기리 萬里옛 나그내 ᄃᆞ외요니 百年ㅅ 모몰 븟그류미 잇노라

故國風雲氣高堂戰伐處 高堂ᄋᆞᆫ 西方地名ㅣ라 此ᄂᆞᆫ 言長安애 有風雲際會之氣어ᄂᆞᆯ 甫ㅣ 在夔

峽而不得預ᄒᆞ고惟見吐蕃之亂而已니라○故國엣風雲ㅅ氣運이오高堂앳사호맷드트리로다

胡雛負恩澤ᄒᆞ니嗟爾太平人 此ᄂᆞᆫ言胡人이負國恩而反逆ᄒᆞ니昔日太平之民이今皆被亂也ㅣ라○되삿기님금恩澤을져ᄇᆞ리니슬프다너희太平ᄒᆞᆫ젯사ᄅᆞ미러니라

、中宵

西閣百尋餘中宵步綺疏 尋은八尺也ㅣ라綺疏ᄂᆞᆫ窓牖에鏤爲綺文也ㅣ라○西ㅅ녁閣이百尋이나ᄆᆞ니바미綺疏애ᄃᆞᆫ니로라

飛星過水白落月動沙虛 ᄂᆞᄂᆞᆫ벼르므레디나해이ᄒᆞ고디ᄂᆞᆫᄃᆞᆯ비츤몰애예

뮈여뮈엿도다 擇木知幽鳥潛波想巨魚 나모ᄀᆞᆯ히리란 幽深
ᄒᆞᆫ 새ᄅᆞᆯ 알오 믈겨레 수멧ᄂᆞ니란 큰 고기ᄅᆞᆯ ᄉᆞ치노라 親朋滿天地兵
甲少來書 親ᄒᆞᆫ 벋디 天地예 ᄀᆞ독ᄒᆞ얏건마ᄂᆞᆫ 사호미라 올 音書ㅣ 젹도다

、不寐

瞿塘夜水黑城內改更籌 瞿塘애 밤므리 어드우니 城안해 更
漏ㅅ 사ᄉᆞ리 고티놋다 翳翳月沉霧輝輝星近樓 ᄀᆞ려 ᄃᆞ리
雲霧에 ᄃᆞᆷᄂᆞ니 빗내 벼리 樓에 갓갑도다 氣衰甘少寐心弱恨容
愁 氣運이 衰老ᄒᆞ야 ᄌᆞ미 져고ᄆᆞᆯ ᄃᆞᆯ히 너기고 ᄆᆞᅀᆞ미 殘弱ᄒᆞ니 시르믈 容納호ᄆᆞᆯ 슬로

라 多壘滿山谷桃源無處求 한軍壘이 묏고 ᄅᆡᄀᆞᄃᆞᆨᄒᆞ니 桃源을 求ᄒᆞᆯ ᄃᆡ 히 업도다

、倦夜

竹涼侵臥內野月滿庭隅 대옛 서늘호미 누엇는 안해 侵凌ᄒᆞ고 ᄆᆡ햇 ᄃᆞ론 ᄠᅳᆯ 모해 ᄀᆞᄃᆞᆨᄒᆞ옛도다 重露成涓滴稀星乍有無 重重인 이스른 젹젹 ᄠᅳ드로미 이렛고 드믄 벼론 잠간 이시락 업스락ᄒᆞ놋다 暗飛螢自照水宿鳥相呼 어드운 ᄃᆡ 셔 ᄂᆞᄂᆞᆫ 반ᄃᆡᄂᆞᆫ 제 비취옛고 므레 셔 자ᄂᆞᆫ 새ᄂᆞᆫ 서르 브르놋다 萬事干戈裏空悲清夜徂 사홈 소개

여러가짓이레ᄒᆞᆫ갓몰고
바미디나가몰ᄂᆞᆯ로라

夜

露下天高秋水清空山獨夜旅魂驚이스리ᄂᆞ리고

하ᄂᆞᆯ히놉고ᄀᆞ올므리몰그니빈뫼
ᄒᆞ오아바ᄆᆡ나그내넉슬놀라노라踈燈自

照孤帆宿新月猶懸雙杵鳴드믄블비츤외
ᄅᆞ왼비예셔자

몰제비취옛고새ᄃᆞᄅᆞᆫ두방
해우ᄂᆞᆫ뒤오히려돌엿도다南蔔再逢人臥

病北書不至鴈無情謂鴈이不傳書信也ㅣ
라○南븍蔔花ᄅᆞᆯ다시

맛나니사ᄅᆞ미病ᄒᆞ야누엇노니北녁音
書ㅣ오디아니ᄒᆞ나그려기ᄠᅳ디업도다

蟾倚杖看牛斗銀漢遙應接鳳城 鳳城은宮城ᄒᆞ다
○ᄃᆞᆯ비체거러막다히ᄅᆞᆯ비겨셔牛斗星을
보니銀漢이아ᄋᆞ라히당당이鳳城에니엣
거니
라

東屯月夜

抱疾漂萍老防邊舊穀屯 病을아나ᄯᅥᄃᆞᆫ니ᄂᆞᆫ말왐ᄀᆞᆺᄐᆞᆫ늘
그니로ᄀᆞᅀᆞᆯ防守ᄒᆞᄂᆞᆫ녜
穀食屯聚ᄒᆞ던ᄯᅡ히로다 春農親異俗歲
月在衡門 衡門은橫一木於門上ᄒᆞ니貧者
의所居ㅣ라○봄녀ᄅᆷ지ᅀᅵ란ᄃᆞᆫ 青女霜楓
ᄅᆞᆫ風俗을親히ᄒᆞ고ᄒᆡᄂᆞᆫ래나모
ᄆᆞᄃᆡ야밍ᄀᆞᄅᆞᆫ門의잇노라

重黃牛峽水喧 青女ᄂᆞᆫ 霜神이라 ○ 青女의 서리 온 ᄉᆞᆺ 남기 하니 黃牛ㅅ

峽엣 므리 수으어리ᄂᆞ다 泥留虎鬪迹月掛客愁村 ᄒᆞᆰ긔ᄂᆞᆫ 버

믜 사호던 자최 머므렛고 ᄃᆞᄅᆞᆫ 나그내 시름ᄒᆞᄂᆞᆫ ᄆᆞᅀᆞᆯᄒᆡ 거렛도다 喬木澄稀

影輕雲倚細根 노ᄑᆞᆫ 남근 드믄 그르메 ᄆᆞᆰ고 가비야온 구루믄 ᄀᆞᄂᆞᆫ 불휘예

비겻도다 數驚聞雀噪暫聽想猿蹲 ᄌᆞ조 놀라ᄂᆞᆫ 새 수으어류

믈 듣고 잠ᄭᅡᆫ ᄌᆞ오ᄂᆞᆫ 나비 주잔자슈믈 스치노라 日轉東方白風來

北斗昏 ᄒᆡᄂᆞᆫ 東方ᄋᆞ로 올마 ᄇᆞᆰ고 ᄇᆞᄅᆞᄆᆞᆫ 北斗로셔 오니 어듭도다 天寒

不成寢無夢寄歸魂 하ᄂᆞᆯ히 치위 자ᄆᆞᆯ 일우디 몯ᄒᆞ니 도라가ᄂᆞᆫ 넉

슬브틀仔
미엽도다

、將曉二首

石城除擊柝鐵鎖欲開關 柝은 巡更者의 所擊木柝也ㅣ라。

石城에셔 두드리ᄂᆞᆫ 柝ᄋᆞᆯ 더니 쇠 길쇄ᄂᆞᆫ 門關ᄋᆞᆯ 열오져 ᄒᆞᄂᆞ다

鼓角悲荒塞星河落曉山

붑과 吹角소리ᄂᆞᆫ 거츤 ᄀᆞᄋᆡ 슬프거늘 별와 銀河ᄂᆞᆫ 새뱃 뫼ᄒᆞ로 디ᄂᆞ다

巴人常小梗蜀使動無還 梗은 亂也ㅣ라。

巴州ㅅ 사ᄅᆞ미 常녜 져기 길외면 蜀ㅅ 使者ㅣ 뮌다마다 도라가디 몯ᄒᆞᄂᆞ다

垂老孤帆色飄飄犯百蠻

늘구메 다ᄃᆞ라 ᄐᆞᆫ 외ᄅᆞ왼 ᄇᆡㅅ돗 비치 飄飄히

百蠻件홀侵犯ᄒᆞ옛도다

軍吏回官燭舟人自楚歌 軍吏ㅣ 그윗 燭人브를 도라 가져 가고 ᄇᆡ옛 사ᄅᆞᄆᆞᆫ 제 楚ㅅ 놀애ᄅᆞᆯ 브르ᄂᆞ다

寒沙蒙薄霧落月去淸波 서늘ᄒᆞᆫ 몰애옌 열운 雲霧ㅣ 씨옛고 디논 ᄃᆞᄅᆞᆫ ᄆᆞᆯᄀᆞᆫ 믈겨리 가놋다

壯惜身名晩衰慙應接多 져믄 제 모맷 일후믈 ᄂᆞ지 호ᄆᆞᆯ 슬코 늘거션ᄂᆞᆫ 接對호미 하믈 븟그리노라

歸朝日簪笏筋力定如何 簪笏은 謂爲官職也ㅣ라 ○朝廷에 가면 나날 簪笏 ᄒᆞ리언마ᄂᆞᆫ 내 히미 一定ᄒᆞ야 엇더홀고

曉望

白帝更聲盡陽臺曉色分白帝城에更漏ㅅ소리다ᄋᆞ니陽臺옛새밧비치ᄂᆞᆫ호놋다 高峯寒上日疊嶺宿霾雲노ᄑᆞᆫ묏부리옛도다오ᄅᆞᆫᄂᆞᆫ히서늘ᄒᆞ고重疊ᄒᆞᆫ뫼햇어드ᄒᆞᆫ구루미자놋다地拆江帆隱天清木葉聞地拆ᄋᆞᆫ言江闊也ㅣ니故로帆隱於其間이니라○ᄯᅡ히뻐뎐ᄃᆡᄀᆞᄅᆞᆺ맷빗돗기그윽ᄒᆞ고하ᄂᆞᆯ히ᄆᆞᆯᄀᆞ니나못닙소리ᄅᆞᆯ드르리로다荊扉對麋鹿應共爾為羣가서나모門이사ᄉᆞᆷ믈對ᄒᆞ얏ᄂᆞ니당당이너와다ᄆᆞᆺᄒᆞ야믈ᄒᆞ야이시리로다

夢 古詩二首 律詩二首

夢李白二首

死別已呑聲生別常惻惻주거 여희요ᄆᆞᆫ ᄒᆞᆫ마 소리ᄅᆞᆯ ᄉᆞᆷ세거니와 사라 여희여실 서 長常슬허ᄒᆞ노라 江南瘴癘地逐客無消息江南ᄋᆞᆫ 病잇ᄂᆞᆫ ᄯᅡ해 내조친 나그내 消息이 업도다 故人入我夢明我長相憶故人이 내 ᄭᅮ메 드니 내의 기리 서르 ᄉᆞ랑호믈 번드기 ᄒᆞ도다 恐非平生魂路遠不可測平生앳 넉시아닌가 저컨마ᄂᆞᆫ 길히 머러 可히 測量티 몯ᄒᆞ리로다 魂來楓林靑魂返關塞黑楚之地예 多靑楓ᄒᆞ니 言白之魂이 自楚地而來也ㅣ라 ○넉시 올 저긘 신나모 수프리퍼

러ᄒᆞ뒤오닉시도라갈제「권關塞ㅣ어드운뒤로다 今君在羅網何以

有羽翼 白이時예流夜郎故로去在羅網이니라○이제그듸그므레거러잇거시니엇뎨배ᄂᆞᆯ개잇ᄂᆞ니오

落月滿屋梁猶疑見顔色 見月色而疑為白之顔負ᄒᆞ니百世之下애想見其風采로다○디ᄂᆞᆫᄃᆞᆯ비치집ᄆᆞᆯ리ᄀᆞ독ᄒᆞ니그듸ᄂᆞᆺ빗치비취엿ᄂᆞᆫ가오히려疑心ᄒᆞ노라

水深波浪闊無使蛟龍得 므리깁고믈겨리어위니蛟龍ᄋᆞ로ᄒᆡ여엇게ᄒᆞ디말라

浮雲終日行遊子久不至 ᄠᅳᆫ구루믄나리뭇도록ᄃᆞᆫ니거ᄂᆞᆯ노니ᄂᆞᆫ子ᄂᆞᆫ오래오디몯ᄒᆞ놋다

三夜頻夢君情親見君意 사ᄒᆞ올

바ᄆᆞᆯ ᄌᆞ조 그ᄃᆡᄅᆞᆯ ᄭᅮ메 보니 ᄠᅳ디 親ᄒᆞ야 그ᄃᆡᆺ ᄠᅳ들 보노라 告歸常局促

苦道來不易 夢中告別之際예 其形神이 局促不伸也ㅣ라 ○ 가노라 니르지 그 長常局促ᄒᆞ야 셔심히 닐오ᄃᆡ 오미 쉽디 아니ᄒᆞ니라 江湖多風波

舟楫恐失墜 出門搔白首 若負平生志 江湖애 ᄇᆞᄅᆞᄆᆞᆯ 겨리 하니 ᄇᆡᄅᆞᆯ 일흘가 젓노라 ᄒᆞ고 門의 나 센 머리ᄅᆞᆯ 글ᄂᆞ니 平生앳 ᄠᅳ들 져ᄇᆞ린 ᄃᆞᆺᄒᆞ도다

冠蓋滿京華 斯人獨憔悴 冠蓋ᄒᆞᆫ 사ᄅᆞ미 셔울 ᄀᆞᄃᆞᆨ기 잇거ᄂᆞᆯ 이 사ᄅᆞᄆᆞᆫ ᄒᆞ올로 이우렛도다 孰云網恢恢 將老身反累 老子애 天網이 恢恢라 ᄒᆞ니 ᄡᅥᄂᆞᆫ 譏法網密ᄒᆞ야 濫及無辜也ㅣ라 ○ 뉘 닐오ᄃᆡ 그

무리 어위다 ᄒᆞᄂᆞ니오 將次ㅅ 늘 구매 모미 도ᄅᆞ혀 버므렛도다 千秋萬歲名寂寞身後事 千秋萬歲예 갈 일후미 寂寞ᄒᆞᆫ 몸 後에 이리ᄃᆞ외리로다

、歸夢

道路時通塞江山日寂寥 길히 ᄢᅢ로 通ᄒᆞ락 마그락ᄒᆞᄂᆞ니 ᄀᆞᄅᆞᆷ과 뫼콰ᄂᆞᆫ 나날 寂寥ᄒᆞ도다 偷生唯一老伐叛已三朝 일버어 사랎ᄂᆞ니 나ᄂᆞᆫ 오직ᄒᆞᆫ 늘그니로소니 叛逆을 征伐호ᄆᆞᆫ ᄒᆞ마 세 朝ㅣ로다 雨急青楓暮雲深黑水遙 프른 신나모 나조ᄒᆡ 비 ᄲᆞᄅᆞ고 거믄 므리 아ᅀᆞ라ᄒᆞᆫ ᄃᆡ 구루미 기펏도다 夢歸歸未得不用楚辭招 도라가 몰 [illegible]

뒤도라가몰得디몯ᄒᆞ니楚辭를베ᄂᆡ술브르디마롤디로다

晝夢

二月饒睡昏昏然不獨夜短晝分眠 二月에ᄌᆞ오로미하昏昏ᄒᆞ니ᄒᆞᆫ갓바미뎌롤ᄲᅮᆫ아니라나지눈호도록ᄌᆞ오노라 桃花氣暖眼自醉春渚日落夢相牽 복셩花ㅅ氣運ㅣ더워누니절로醉ㅣᄒᆞ니봄믈ᄀᆞ이ᄒᆡ디거늘ᄭᅮ미서르잇거오ᄂᆞ다 故鄕門巷荊棘底中原君臣豺虎邊 言盜賊之亂ᄒᆞ니라○故鄕ㅅ門巷ᄋᆞᆫ가서나모미ᄐᆡ오中原ㅅ君臣ᄋᆞᆫ豺虎ㅅᄀᆞ이잇도다 安得務農息戰鬪普天

無吏橫索錢 橫은去聲이라○엇뎨시러곰 녀름지이ᄅᆞᆯ 힘ᄡᅳ고 사호ᄆᆞᆯ 그처 너븐 하ᄂᆞᆯ 아래 官吏 빗기 도ᄂᆞᆯ 求索ᄒᆞ미 업게 ᄒᆞ려뇨

分類杜工部詩卷之二十一

分類杜工部詩卷之十二

初月

光細弦欲上 비치 ᄀᆞᄂᆞ니 시우리 오ᄅᆞ고져 ᄒᆞ고 影斜輪未安 그르메 기우니 돌에 便安티 아니ᄒᆞ도다

微升古塞外 잠ᄭᆞᆫ 녯 邊塞 밧긔 오ᄅᆞ더니 已隱暮雲端 ᄒᆞ마 나죗 구룸 그테 숨ᄂᆞ다

河漢不改色 關山空自寒 言月出而便隱無光故로 天河ㅣ 不改色而關山이 亦自寒吟而已니라 ○ 河漢ㅣ 비ᄎᆞᆯ 고티디 아니ᄒᆞ며 關山ᄋᆞᆫ 갓 절로 서늘ᄒᆞ얏도다

庭前有白露 暗滿菊花團 團ᄋᆞᆫ 露垂貌ㅣ라 ○ ᄠᅳᆯ을 펴ᄒᆞᆫ ㅣ 二 니 깃 下 니

그으기菊花애ᄀᆞ독ᄒᆞ야두려웻도다

、月

天上秋期近人間月影清 하ᄂᆞᆯ우희秋期ㅣ갓가오니人間애ᄃᆞᆯ그르메ᄆᆞᆰ도다

入河蟾不沒擣藥兎長生 蟾兎ᄂᆞᆫ月中所有也ㅣ라○ᄀᆞᄅᆞ매드러도두터비ᄌᆞᆷ디아니ᄒᆞᄂᆞ니藥딘ᄂᆞᆫ톳기長常사랏도다

只益丹心苦能添白髮明 불근ᄆᆞᅀᆞ미苦ᄅᆞ외요ᄆᆞᆯ오ᄌᆞᆨ더으며센머리의ᄇᆞᆯ고ᄆᆞᆯ能히더으ᄂᆞ다

干戈知滿地休照國西營 言悲征夫ㅣ見月而感傷也ㅣ라○干戈ᄅᆞᆯᄯᅡ해ᄀᆞ독ᄒᆞ야슈믈다노니나랏西ㅅ녁軍營에

비취디마롤디이다

、月三首

斷續巫山雨天河此夜新 巫山앳비그츠락니오락ᄒᆞ더니하ᄂᆞᆯ銀河ㅣ오ᄂᆞᆯ바미새롭도다 若無靑嶂月愁殺白頭人 殺은去聲이니語助辭ㅣ라○프른묏부리옛ᄃᆞ리萬一업더든머리셴사ᄅᆞᆷ시름케ᄒᆞ리랏다 魍魎移深樹蝦蟆動半輪 月中에有蝦蟆ᄒᆞ니라半輪은缺月也ㅣ라○귓거슨기픈남ᄀᆞ로올마ᄀᆞᆷ고두터비ᄂᆞᆫ半ᄃᆞᆯ에예ᄉᆞ위놋다 故園當北斗直想照西秦 此ᄂᆞᆫ想長安故居ᄒᆞ니라○故園이北斗ㅅ벼

례雷ᄒᆞ얏ᄂᆞ니 西秦에 비취여 슈믈 바ᄅᆞ스치노라

併照巫山出新窺楚水清 巫山애 다 비취여 벗고 楚ㅅ 므를 새려 엿와 ᄀᆞᆯ도다

鸞栖愁裏見二十四回明 나그내로 栖止ᄒᆞ야 는 시름 소개 여 보니 스믈네 디위 ᄃᆞᆯ 볼기ᄂᆞ다

必驗升沉體如知進退情 月이 初出則升而進之道ㅣ오 落則沉而退之道也ㅣ라 ○오ᄅᆞ며 ᄂᆞ리ᄂᆞᆫ 體ᄅᆞᆯ 반ᄃᆞ시 알며 나아가며 믈러오ᄂᆞᆫ ᄠᅳ들 아ᄂᆞᆫ ᄃᆞᆺᄒᆞ도다

不違銀漢落亦伴玉繩橫 銀漢은 天河ㅣ오 玉繩은 星名ㅣ라 ○銀漢의 ᄃᆞ믈어 그릇디 아니ᄒᆞ며 玉繩의 빗겨 가믈 ᄯᅩ 벗ᄒᆞ놋다

萬里瞿塘峽春來六上弦 萬里ㅅ瞿塘峽에 봄오매 여슷버늘 시우리 오ᄅᆞ거다

時時開暗室故故滿青天 時時예 어드운 지븨 開明ᄒᆞ고 짐즛 프른 하ᄂᆞᆯ해 ᄀᆞ독ᄒᆞ얏도다

爽合風襟靜當空淚臉懸 서늘호미 모ᄃᆞ니 ᄇᆞᄅᆞ맷 옷기지 寂靜ᄒᆞ고 虛空ᄋᆞᆯ 當ᄒᆞ야 눈믈 무든 ᄂᆞᄎᆡ 매ᄃᆞᆯ엿도다

南飛有烏鵲夜久落江邊 古詩예 月明星稀ᄒᆞ니 烏鵲南飛라 ᄒᆞ다 ○ 南녀그로 ᄂᆞᄂᆞᆫ 가막가치 잇더니 바미 오라니 ᄀᆞᄅᆞᆷᄀᆞᅀᆞ로 뎌가 快

四更山吐月殘夜水明樓四更에 뫼히 ᄃᆞᄅᆞᆯ 비와ᄐᆞ니 너르더ᄅᆞᆫ 바ᄆᆡ 므를 비치 樓에 ᄇᆞᆯᄀᆞᆺ도다 塵匣元開鏡風簾自上鉤片月이 初出故로 玄元開匣而月形이 如簾鉤ㅣ니라。드틀 무든 匣애 곳 거우루를 여러 내ᄂᆞᆫ ᄃᆞᆺ고 ᄇᆞᄅᆞᆷ 부ᄂᆞᆫ 바리 절로 갈고공에 올앗ᄂᆞᆫ ᄃᆞᆺᄒᆞ도다 兎應疑鶴髮蟾亦戀貂裘言月中之蟾兎ㅣ疑戀甫之髮與裘也ㅣ라。돗기 당당이 내 센 머리를 疑心ᄒᆞ며 두터비도 ᄯᅩ 내니 貝ᄂᆞᆫ 갓오ᄉᆞᆯ 思戀ᄒᆞᄂᆞ니라 斟酌姮娥寡天寒奈九秋羿妻姮娥ㅣ服不死藥而奔月ᄒᆞ니라。姮娥의 ᄒᆞ올로 이슈믈 斟酌ᄒᆞ니 하ᄂᆞᆯ히 치운 九秋에 엇던고

、月圓

孤月當樓滿寒江動夜扉 외ᄅᆞ왼ᄃᆞᆯ비처樓의當ᄒᆞ야ᄀᆞᄃᆞᆨᄒᆞ、니서ᄂᆞᆯᄒᆞᆫᄀᆞᄅᆞᄆᆞᆫ밤門ㅅ부체예뮈ᄂᆞ다 委波金不定照席綺愈依 言月色이委於波浪則搖蕩ᄒᆞ야如金不定이오照綺席ᄒᆞ니炯爛而光捐依也ㅣ라。빗치믈겨릐ᄃᆡᄃᆡ이니金ㅅ비치定티아니ᄒᆞᆫᄃᆞᆺ고돗ᄀᆡ비취여기베더욱븐ᄂᆞ다

未缺空山靜高懸列宿稀 이제ᄃᆡᄃᆡ아니ᄒᆞ、야시니뷘뫼히寂靜ᄒᆞ고노ᄑᆡᄃᆞᆯ여시니버렷ᄂᆞᆫ버리드므도다 故園松桂發萬里共清輝 故園에솔와桂樹ㅣ픳ᄂᆞ니萬里예ᄆᆞᆯᄀᆞᆫ빗치다ᄆᆞᆺᄒᆞ、얏도다

月夜

今夜鄜州月閨中只獨看 時예甫의妻子ㅣ在鄜州ᄒᆞ니라。오ᄂᆞᆯ밤鄜州옛ᄃᆞᄅᆞᆯ도장안해셔오직ᄒᆞ오아보ᄂᆞ니라 遙憐小兒女未解憶長安 ᄒᆞ고兒女ᄅᆞᆯ아ᄋᆞ라히憐愛ᄒᆞ노니長安ᄉᆞ랑ᄒᆞ몰그르디몯ᄒᆞ얏ᄂᆞ니라

香霧雲鬟濕清輝玉臂寒 此ᄂᆞᆫ想其妻也ㅣ라。곳다온雲霧에구룸ᄀᆞᆺᄒᆞᆫ마리저젓고ᄆᆞᆰ고빗난玉ᄀᆞᆺᄒᆞᆫᄑᆞᆯ히서늘ᄒᆞ니라 何時倚虛幌雙照淚痕乾 此ᄂᆞᆫ言何時예歸家ᄒᆞ야倚幌而坐ㅣ어든月照夫妻也ㅣ오。어느ᄢᅴ뷘帳을지여셔ᄃᆞᆯ히눈믈그제ᄆᆞᄅᆞ닐비취에ᄒᆞ려뇨

一百五日夜對月 冬至後一百五日이爲寒食이라

無家對寒食有淚如金波 金波ᄂᆞᆫ月光이如金之波流也ㅣ라

○집업시셔寒食올對ᄒᆞ니 잇ᄂᆞᆫ 눈므리金믈결ᄀᆞᆺ도다

斫却月中桂清光應更多 ᄃᆞᆯ가온ᄃᆡ桂樹를버히면ᄆᆞᆯᄀᆞᆫ 빗치당당이가셔야ᄒᆞ리로다

離放紅蘂想像嚬青蛾 여희여슈에블근곳부리ᄎᆞᆺᄂᆞ니ᄑᆞ른눈 셔블벵긔여 슈믈ᄉᆞ치노라

牛女謾愁思秋期猶渡河 言牛女는秋猶渡河而會라不如甫之長別也ㅣ라○牽牛織女는ᄉᆞ긜업시시름ᄒᆞ놋다ᄀᆞ 올ᄒᆡᆫ오히려銀河 ᄅᆞᆯ것너가리라

八月十五夜月二首

滿目飛明鏡 歸心折大刀 大刀頭에 有環ᄒᆞ니 謂還也ㅣ니 今折則言不還也ㅣ라 ○ 누네 ᄀᆞᄃᆞᆨ기 블고 거우뤼 ᄂᆞᄂᆞ니 도라갈 ᄆᆞᅀᆞ미 큰 갈히 것도다

轉蓬行地遠 攀桂仰天高 다봇 옴ᄃᆞᆺ ᄒᆞ야ᄂᆞᆫ 녀논 ᄯᅡ히 머니 桂樹를 더위자 바라 ᄒᆞᄂᆞᆯ 노포ᄆᆞᆯ 울워노라

水路疑霜雪 林栖見羽毛 믈길홀 서리와 누닌가 疑心ᄒᆞ노니 수프레 깃ᄒᆞᆫ 옛 눈 새 터리ᄅᆞᆯ 아라 보리로다

此時瞻白兔 直欲數秋毫 月色이 明徹故로 烏羽兎毫ᄅᆞᆯ 皆可見也ㅣ라 ○ 이 ᄢᅢ 힌 톳기ᄅᆞᆯ 보노니 곳 ᄀᆞᅀᆞᆯ 터리ᄅᆞᆯ 혀오져 ᄒᆞ노라

秋月仍圓夜江村獨老身 ᄀᆞ올ᄃᆞᆯ 조ᄎᆞ로 ᄃᆞ려운 바ᄆᆡ ᄀᆞᄅᆞᆷ ᄆᆞ올히 ᄒᆞ오ᅀᅡ 늘근 모미로다

捲簾還照客倚杖更隨人 바ᄅᆞᆯ 거두니 도로 나그내ᄅᆞᆯ 비취오 막대ᄅᆞᆯ 지여 슈니 또 사ᄅᆞᄆᆞᆯ 좃ᄂᆞ다

光射潛虯動明翻宿鳥頻 비치 수맷ᄂᆞᆫ 龍ᄋᆞᆯ 소니 움즈기고 ᄇᆞᆯ고맨자ᄂᆞᆫ 새 두위이주믈 ᄌᆞ조 ᄒᆞᄂᆞ놋다

茅齋依橘柚清切露華新 새 지비 橘柚人 남ᄀᆞᆯ 브터시니 淸切ᄒᆞᆫ 이ᄉᆞᆯ 비치 새롭도다

、䨴月星漢中王

夜深露氣清江月滿江城 바미 기퍼 이ᄉᆞᆯ 氣運이 ᄆᆞᆰ고 ᄀᆞᄅᆞᆺ

ᄆᆡᆺᄀᆞ 돌비치 ᄀᆞᄅᆞᆷ城의 ᄀᆞ독ᄒᆞ얏도다 浮客轉危坐歸舟應獨行 ᄇᆡ ᄐᆞᆫ 나ᄂᆞᆫ 나그내 ᄀᆞ장 노피 안조니 가ᄂᆞᆫ ᄇᆡᄂᆞᆫ 당당이 ᄒᆞ오아 녀가니라 關山同一照烏鵲自多驚 言月明故不能宿也ㅣ라 ○關山애 ᄒᆞᆫᄀᆞᆯᄋᆞ티 비취유미 ᄒᆞᆫ가지니 가막가치 제 해 놀라ᄂᆞ다 欲得淮王術風吹暈已生 淮南王이 以蘆灰로 鋪牖下ᄒᆞ야 隨月光令圜ᄒᆞ고 畫缺一面則月暈亦缺於天ᄒᆞ더니 此ᄂᆞᆫ 以淮王으로 比漢中也ㅣ라 ○淮王의 術을 得ᄒᆞ고져 ᄒᆞ노니 ᄇᆞᄅᆞ미 부니 두려ᄒᆞ마 나ᄂᆞ다

江月

江月光於水高樓思殺人 殺ᄋᆞᆫ 去聲이니 語助辭ㅣ라 ○ ᄀᆞᄅᆞ맷 ᄃᆞ리 므레 빗나니 노ᄑᆞᆫ 樓의 이셔 사ᄅᆞᄆᆞᆯ 시름케 ᄒᆞᄂᆞ다 天邊長作客老去一霑巾 하ᄂᆞᆳ ᄀᆞᅀᅵ 기리 나그내 ᄃᆞ외옛노니 늘거 가매 ᄒᆞᆫ 번 手巾을 저지노라 玉露團淸影銀河沒半輪 玉ᄀᆞᆮᄒᆞᆫ 이스ᄅᆞᆫ ᄆᆞᆯᄀᆞᆫ 그르메예 두려우니 銀河앤 半 ᄃᆞᆯ에 ᄌᆞ맛도다 誰家挑錦字燭滅翠眉嚬 竇滔ㅣ 爲秦州刺史ㅣ라 被從流沙ㅣ어ᄂᆞᆯ 妻蘇氏ㅣ 織錦爲回文旋圖詩ᄒᆞ야 寄之ᄒᆞ니라 ○ 뉘 지븨셔 錦字ᄅᆞᆯ 도도아 ᄡᅳᄂᆞ고 燭ㅅ브리 ᄢᅥ가ᄂᆞᆯ 프른 눈섭을 ᄡᅵᆼ긔엿거니라

ㆍ舟月對驛近寺

更深不假燭月朗自開船 更點이기프니燭ㅅ블비디아니ᄒᆞ리로소니ᄃᆞ리ᄇᆞᆯᄀᆞ비치절로비예여뎻도다

金刹青楓外朱樓白水邊 刹ᄋᆞᆫ謂寺也ㅣ라○金ㅅ혼뎌른프른싣나모밧기오블근樓ᄂᆞᆫ힌믈ᄀᆞ이로다

城烏啼眇眇野鷺宿娟娟 娟娟ᄋᆞᆫ月色의文ㅣ라○城에가마괴ᄂᆞᆫ아ᄋᆞ라ᄒᆞᆫᄃᆡ셔울오미햇하야로비ᄂᆞᆫ고온ᄃᆞᆯ비체셔자놋다

皓首江湖客鉤簾獨未眠 머리히여ᄒᆞᆫᄀᆞᄅᆞᆷ매왯ᄂᆞᆫ나그내발을갈공이예걸오ᄒᆞ오아ᄌᆞ오지못ᄒᆞ얏노라

↘江邊星月二首

驟雨淸秋夜金波耿玉繩 金波ᄂᆞᆫ月色이오 玉繩은星名이라 ○ᄲᆞᄅᆞᆫ비오ᄂᆞᆫ ᄆᆞᆰ고ᄀᆞ올바ᄆᆡ 金ᄀᆞᄐᆞᆫ믈겨리玉繩이빗나도다

天河元自白江浦向來澄 하ᄂᆞᆯ銀河ㅣ本來제ᄒᆡ니ᄀᆞᄅᆞᆷ개ᄂᆞᆫ向來로ᄆᆞᆯᄀᆞᆺ도다

映物連珠斷緣空一鏡升 言星如連珠ㅣ오 月如飛鏡ㅣ라 ○物에비취니니ᅀᅳᆫ구스리그츤ᄃᆞᆺ고虛空애버므러ᄒᆞᆫ거우리오ᄅᆞᄂᆞᆫᄃᆞᆺ도다

餘光憶更漏況乃露華凝 나ᄆᆞᆫ비체更漏ᄅᆞᆯᄉᆞ랑ᄒᆞ노니ᄒᆞᄆᆞᆯ며이슬비치얼의엿도다

江月辭風纜江星別霧舩 此ᄂᆞᆫ 言星月이 落也ㅣ라 ○ ᄀᆞᄅᆞᆺ맷 ᄃᆞᄅᆞᆫ ᄇᆞᄅᆞᆷ 부ᄂᆞᆫ 빗주를 말오 ᄀᆞᄅᆞᆺ맷 벼ᄅᆞᆫ 雲霧ᄭᅴ 비ᄅᆞᆯ 여희ᄂᆞ다

雞鳴還曙色 鷺浴自晴川 ᄃᆞᆰ기 우니 새배 비치 도라오ᄂᆞ니 하야로비의 沐浴ᄋᆞᆫ 갠 내ᄒᆞᆯ 브ᄐᆞᆺ도다

歷歷竟誰種 悠悠何處圓 古詩예 歷歷種白楡ㅣ라 ᄒᆞ니 謂星也ㅣ라 ○ 번드번드기 ᄆᆞᄎᆞ매 뉘 시므니오 머리 어느 고대가 두려웻ᄂᆞᆫ고

客愁殊未已 他夕始相鮮 言月이 今已落 故로 愁未止ᄒᆞ니 後日之夕에 更相鮮明也ㅣ니라 ○ 나그내 시르미 ᄀᆞ장 마디 아니ᄒᆞᄂᆞ니 다ᄅᆞᆫ 나조ᄒᆡ아 비르소 서르 鮮明ᄒᆞ리로다

天河

常時任顯晦秋至最分明 言天河ㅣ至秋而顯明也ㅣ라○常時예ᄇᆞᆯ기며어두우믈므던히너기더니ᄀᆞ올히오나안죽分明ᄒᆞ도다

縱被微雲掩終能永夜清 비록微微ᄒᆞᆫ구루믜ᄀᆞ료ᄆᆞᆯ니버도ᄆᆞᄎᆞ매能히긴바ᄆᆡᄆᆞᆯᄀᆞᆺ도다

含星動雙闕伴月落邊城 벼ᄅᆞᆯ머거雙闕에뮈오ᄃᆞᄅᆞᆯ벗ᄒᆞ야邊城으로디가ᄂᆞ다

牛女年年渡何曾風浪生 牽牛織女ㅣ히마다건나ᄂᆞ니어느일즉ᄇᆞᄅᆞᆷ믓겨리나리오

雨雪雲雷附 古詩十四首 律詩三十六首

喜雨

春旱天地昏日色赤如血 보ᄆᆡ ᄀᆞᄆᆞ라 하ᄂᆞᆯ콰 ᄯᅡ쾌 어드우니 힛비치 블거 피 ᄀᆞᆺ도다 農事都已休兵戈況騷屑 騷屑은 不安ᄒᆞᆫ ㅣ라 ○ 녀름 짓ᄂᆞ니 이를 다ᄒᆞ마 마ᄂᆞ니 사호미 ᄒᆞ믈며 어즈럽도다 巴人困

軍須慟哭厚地熱 巴州人 사ᄅᆞ미 軍事애 須求ᄒᆞ몰 잇비 ᄒᆞᄂᆞ니 둣거운 ᄯᅡ히 더우믈 셜워 우ᄂᆞ다 滄江夜來雨真宰罪一雪 真宰ᄂᆞᆫ 造化之主ㅣ라 ○ 滄江애 바미 비 오ᄂᆞ니 真宰ㅣ 罪ᄅᆞᆯ ᄒᆞᆫ번 싯도다 穀根小蘇

息沴氣終不滅 沴ᄂᆞᆫ 陰陽ㅅ 錯謬妖氣也ㅣ라 ○ 낫 불휘 져기 ᄭᅵ요ᄃᆡ아

내 ᄒᆞᆫ 意氣運은 모ᄎᆞ매 ᄇᆞᆺ디 아니ᄒᆞᄂᆞ다 何由見寧歲解我憂思結 어느 말ᄆᆡ로 便安ᄒᆞᆫ ᄒᆡ를 보아 내 시르믜 ᄆᆞᅀᆞᄆᆞᆯ 그르려뇨 崢嶸羣山雲交會未斷絶 노ᄑᆞᆫ 여러 뫼헷 구루미 서르 모다 긋디 아니ᄒᆞ얏다 安得鞭雷公滂沲洗吳越 滂沲ᄂᆞᆫ 雨皃ㅣ라 甫自註時聞浙右에 多盜賊ᄒᆞ라 ○ 엇뎨 시러곰 雷公ᄋᆞᆯ 채텨 滂沲히 吳越을 시스려뇨

大雨

西蜀冬不雪春農尚嗷嗷 西蜀애 겨으레 눈 오디 아니ᄒᆞ니 보ᄆᆡ 녀름지ᅀᅳᆯ 사ᄅᆞ미 오히려 수으워리놋다 上天回哀眷朱夏雲

鬱陶鬱陶ᄂᆞᆫ積不散皃ㅣ라○上天이도ᄅᆞ
혀슬허眷顧ᄒᆞ시니블근녀르메구루
미얼의엿도다執熱乃沸鼎纖絺成縕袍ᄃᆡ위ᄅᆞᆯ자바소ᄐᆡ셔
붑괴ᄃᆞᆺᄒᆞ니ᄀᆞᄂᆞᆫ츨오시소옴든오시ᄃᆞ외얏도다風雷颯萬里霈澤
施蓬蒿ᄇᆞᄅᆞᆷ과울에萬里예셔늘ᄒᆞ니霈澤이다봊ᄠᆞ게니르리베펫도다敢
辭茅葦漏已喜黍豆高라茅葦ᄂᆞᆫ謂茆屋也ㅣ라○茅葦로니ᅀᅳᆫ지
비ᄉᆡ요ᄆᆞᆯ구틔여말리아ᄒᆞ야마기장콩이노파가ᄆᆞᆯ깃노라三日無行人
二江聲怒號二江은成都人內江外江也ㅣ라○사ᄋᆞᄅᆞᆯ길녀ᄂᆞᆫ사ᄅᆞ미업
스니두ᄀᆞᄅᆞᇝ소리ᄂᆞᆫ怒ᄒᆞ야우르놋다流惡邑里淸矧茲遠江

皐더러운거슬흘려ᄀᆞ올ᄆᆞ올도ᄅᆞᆯ니ᄒᆞ몰며이연ᄀᆞᄅᆞᆷ두돌기ᄯᆞᆺ녀荒庭

步鸛鶴隱几望波濤鸛鶴은水鳥ㅣ니鳴則雨應ᄒᆞᄂᆞ니라○거ᄂᆞᆫ뜰헤셔鸛鶴ㅣ것ᄂᆞ니비거셔믈거를ᄇᆞ라노라

几ᄅᆞᆯ沉痾聚藥餌頓忘所進勞言沉痾之故로聚藥餌라니今雨ㅣ清凉ᄒᆞᆯ식忘進藥之勞也ㅣ니라○기픈病에藥餌ᄅᆞᆯ뫼하ᄃᆞᆺ다니나오와머굴깃부믈다닛과라

則知潤物功可以資不毛此ᄂᆞᆫ言因雨之潤ᄒᆞ야雖不毛之地라도亦能資而生也ㅣ라○物을저지ᄂᆞᆫ功이可히버더리아니나ᄂᆞᆫ녀ᄒᆞᆯ빌유믈알와라

陰色靜壠畝勸耕自官曹어드우ᄒᆞᆫ비채밧ᄋᆞ이러미安靜ᄒᆞ니밧가롬勸ᄒᆞ믄ᄀᆞ올로

브리ᄒᆞ놋다 四隣出耒耜何必吾家操 네 이우졔 ᄡᅥ보ᄅᆞᆯ 내ᄂᆞ니 엇뎨 구틔여 내 집ᄲᅮᆫ 자ᄇᆞ리오

雨三首

峽雲行清曉烟霧相徘徊 峽에 구루미 몰고 새배녀ᄂᆞ니 ᄂᆡ와 雲霧왜 서르 머므럿도다 風吹滄江去雨洒石壁來 ᄇᆞᄅᆞᄆᆞᆫ 滄江ᄋᆞᆯ 부러 가고 비ᄂᆞᆫ 石壁오 ᄲᅳ려 오놋다 淒淒生餘寒殷殷兼出雷 淒淒ᄂᆞᆫ 雨落負ㅣ라 殷은 去聲이니 雷聲이라 ○ 淒淒히 나ᄆᆞᆫ 서늘호미 나ᄂᆞ니 殷殷히 울에ᄉᆞ리 나미 조차 잇도다 白谷變氣候朱炎安在哉

힌묏고리氣候ㅣ改變ᄒᆞᄂᆞ니 高鳥濕不下 블근더위ᄂᆞᆫ어듸이시리오

居人門未開 노ᄑᆞᆫ새ᄂᆞᆫ저저ᄂᆞ리디아ᄂᆡ ᄒᆞ고사ᄂᆞᆫ사ᄅᆞᆷ은門을여디아니ᄒᆞᄂᆞ다

楚宮久已滅 幽佩爲誰哀 侍臣書王夢

賦有冠古才 楚襄王이夢與神女遇ᄒᆞ니 朝爲行雲ᄒᆞ고暮爲行雨ㅣ라ᄒᆞ니 ᄒᆞ다宋玉이作高堂賦ᄒᆞ니此ᄂᆞᆫ言雨聲이 如神女의佩響音也ㅣ라 ○ 楚宮이오래ᄒᆞ마 滅ᄒᆞ니幽深ᄒᆞᆫ佩玉소리ᄂᆞᆫ누를爲ᄒᆞ야슬 ᄑᆞ니오侍臣이님금ᄭᅴ믈스니賦ㅣ녯사ᄅᆞᆷ ᄆᆡ게쎗것ᄂᆞᆫ 지죄잇도다

冥冥翠龍駕 多自巫山臺 龍駕ᄂᆞᆫ神 女의所乘車也ㅣ라神女祠ㅣ在巫山陽臺 ᄒᆞ니라 ○ 어득ᄒᆞᆫᄑᆞ른龍머린술위ᄒᆡ巫山

臺로브터오놋다

靑山淡無姿白露誰能數프른뫼히몰가양지업더니힌이ᄉᆞ를뉘能히혜리오

片片水上雲蕭蕭沙中雨蕭蕭ᄂᆞᆫ風聲이라ㅇ片片ᄒᆞᆫ믈우흿구루미오蕭蕭ᄒᆞᆫ몰앳가온ᄃᆡㅅ비로다

殊俗狀巢居曾臺俯風渚楚地ㅣ面水背山ᄒᆞ니俗多架木爲居ᄒᆞᄂᆞ니라ㄱ다ᄅᆞᆫ風俗ᄋᆞᆫ깃ᄀᆞᆺ야사로미ᄀᆞᆺᄒᆞ니노ᄑᆞᆫ臺ᄂᆞᆫᄇᆞᄅᆞᆷ부ᄂᆞᆫ믈ᄀᆞ올구벗도다

佳客適萬里沉思情延佇佳客ᄋᆞᆫ必有所指者ᄒᆞ니然不可考ㅣ로다延佇ᄂᆞᆫ延頸佇立也ㅣ라ㅇ됴ᄒᆞᆫ나그내萬里예가니기피ᄉᆞ랑ᄒᆞ논ᄠᅳ데셔셔ᄇᆞ라료라

掛帆

遠邑外驚浪滿吳楚 此는卽估客이掛帆於吳楚也ㅣ라○먼 빗 밧긔 빗돗 ᄀᆞᆯ ᄃᆞ라 갓ᄂᆞ니 놀라온 믈겨리 吳楚애 ᄀᆞ독ᄒᆞ얏도다

久陰蛟螭出 寇盜復幾許 上句는喻世晦冥而賊民者ㅣ出也ㅣ라○오란 陰氣예 龍이 나ᄂᆞ니 盜賊은 ᄯᅩ 언마만 ᄒᆞᆯ고

空山中宵陰微冷先枕席 뷘 뫼 밤中에 어드우니 잠깐 서늘ᄒᆞ도미 벼개와 돗기 몬져 오ᄂᆞ다

回風起淸曉萬象萋已碧 회로리 ᄇᆞᄅᆞ미 닐곤 새배니 萬象이 萋萋ᄒᆞ야 ᄒᆞ마 프러ᄒᆞ도다

落落出岫雲 渾渾倚天石 落落ᄋᆞᆫ疎寂貌ㅣ라○落落ᄒᆞᆫ 묏부리예 냇ᄂᆞᆫ 구루미오 어드

운하ᄂᆞᆯ홀비쳇 ᄂᆞᆫ돌히로다 日假何道行兩含長江白 日 行

黃道ᄒᆞᄂᆞ니ᄂᆞᆫ兩ㅣ聽寘故로來見日行之 道也ㅣ라ᄀᆞ히ᄂᆞᆫ어느길ᄒᆞᆫ비려뎌ᄂᆞᆫ고비

ᄂᆞᆫ긴ᄀᆞᄅᆞᆷ믈어 게ᄒᆡ여ᄒᆞ도다 連檣荊州船有士荷戈戟 대빗

니엇ᄂᆞᆫ荊州ㅅ비예사 ᄅᆞ미戈戟을메엿도다 南防草鎮慘霑濕赴

遠役 南녁그로草鎮이므ᄅᆡ여믄뒤防守章 ᄒᆞᄂᆞ니비롤저져면役事애가놋다

盜下避山揔戎備強敵 揔戎은元帥也ㅣ라 ○믈盜賊은ᄂᆞ려뫼

ᄒᆞ로避ᄒᆞ고揔戎은셰위 ᄃᆞᆫ彼敵을막ᄌᆞᄅᆞ놋다 水深雲光廓鳴櫓

各有適 므리깁고구룸비치훤ᄒᆞ니우 ᄂᆞᆫ비치졔여곰가ᄂᆞᆫᄃᆡ잇도다 漁艇

一息悠悠美歌負樵客 고기잡는비는멀리셔 쉬오뇌놀애는나모지
는客이로다 留滯一老翁書時記朝夕 머므렷는ᄒᆞᆫ늘근한
아비時節을써아ᄎᆞᆷ나조ᄒᆡᆺ이ᄅᆞᆯ記錄ᄒᆞ노라

秋雨歎三首

雨中百草秋爛死階下決明顏色鮮 決明이夏初애
生苗ᄒᆞᄂᆞ니根蒂紫色이오葉似苜蓿ᄒᆞ니七月에花ᄒᆞᄂᆞ니라○빗소개온가짓프리
ᄀᆞ올히주믈어죽거늘버텽아래決明이양ᄌᆡ鮮明ᄒᆞ도다 著葉滿枝翠
羽蓋開花無數黃金錢 니피브터가지예ᄀᆞ독ᄒᆞ니프른지ᄎᆞ로

혼개곳고고지ᄀᆞ믈數업
시ᄒᆞ니누른金돈ᄀᆞᆺ도다 涼風蕭蕭吹汝急
恐汝後時難獨立 싀늘ᄒᆞᆫᄇᆞᄅᆞ미蕭蕭히너
ᄅᆞᆯ부로ᄆᆞᆯᄲᆞᆯ리ᄒᆞᄂᆞ니너
時節에ᄠᅥ디실서ᄒᆞ오아
셔슈미어려울가젓노라 堂上書生空白頭
臨風三嗅馨香泣 書生은甫ㅣ自謂라○堂
우ᄒᆺ書生이속졀업시머
리셰유니ᄇᆞᄅᆞᄆᆞᆯ臨ᄒᆞ야곳
다온내ᄅᆞᆯ세번맛고우노라
闌風伏雨秋紛紛四海八荒同一雲 謂闌刪
無定之
風과沉伏不止之雨ㅣ니라○헤부치ᄂᆞᆫᄇᆞ
ᄅᆞᆷ과오란비왜ᄀᆞ올히어즈러우니四海와
八荒애ᄒᆞᆫ가짓구
루미同ᄒᆞ도다 去馬來牛不復辨濁涇清

渭何當分言隕雨ㅣ晦冥ᄒᆞ고潦水ㅣ漲溢故로牛馬涇渭ᄅᆞᆯ不可分辨也ㅣ라

○가ᄂᆞᆫ ᄆᆞᆯ와 오ᄂᆞᆫ 쇼ᄅᆞᆯ 分別히 아디 몯ᄒᆞ리로소니 ᄒᆞ린 涇水와 ᄆᆞᆯᄀᆞᆫ 渭水ᄂᆞᆫ 어느 제 ᄀᆞ리ᄂᆞᆫ홀고

禾頭生耳黍穗黑農夫田父無消息

곡셕 그테 귀나고 기장이 사기 거므니 農夫와 田父왜 消息이 업도다

城中斗米換衾裯相許寧論兩相直直은 謂價ㅣ相當也ㅣ라

○城中에셔 ᄒᆞᆫ 말 ᄡᆞᆯ로 니브를 밧고ᄂᆞ니 서르 그리 ᄒᆞ홀션뎡 어느 두 갑시 ᄃᆞ외 서르 마조ᄆᆞᆯ 議論ᄒᆞ리오

長安布衣誰比數反鏁衡門守環堵衡門은 橫木爲門也ㅣ라 環堵ᄂᆞᆫ 環은 周回也ㅣ오 方丈이 爲堵ㅣ니 四方이 各一堵也ㅣ라 ○長安 옛

뵈옷니브니로뉘比數ᄒᆞ리오도로나모빗기미온門을닫고횟도로ᄉᆞ다믈守ᄒᆞ얏노라

老夫不出長蓬蒿稚子無憂走風雨 늘근아비ᄂᆞᆫ나ᄃᆞᆫ니디아니ᄒᆞ야셔다봇과ᄠᅳᆨ괘기렛거늘져믄아ᄃᆞᆯ온시름업서ᄇᆞᄅᆞᆷ비예ᄃᆞᆫ니다

天雨聲颼颼催早寒胡鴈翅濕高飛難 颼颼ᄂᆞᆫ風聲이라○비소리颼颼ᄒᆞ야이른치우믈뵈아ᄂᆞ니되그려기ᄂᆞᆯ개저저노ᄑᆞ로미어렵도다

秋來未曾見白日泥汚后土何時乾 ᄀᆞᅀᆞᆯ오매일쯕ᄇᆞᆯᄀᆞᆫ나ᄅᆞᆯ보디몯ᄒᆞ리로소니ᄒᆞᆰ홀기后土ᄅᆞᆯ더러이ᄂᆞ니어느ᄢᅴ아ᄆᆞᄅᆞ료

苦雨奉寄隴西公兼呈王徵士 甫ㅣ自註漢中

王及王徵이라

今秋乃淫雨仲月來寒風 이ᄀᆞ올히오란비오ᄂᆞ니仲月에서놀ᄒᆞᆫᄇᆞᄅᆞ미오ᄂᆞ다

羣木水光下萬家雲氣中 믈남근믈빗아래드릿고萬家ᄂᆞᆫ구룸氣運ㅅ소기로다

所思礙行潦九里信不通 所思ᄂᆞᆫ指漢中王及王徵士ᄒᆞ다○ᄉᆞ랑ᄒᆞᄂᆞᆫ사ᄅᆞ미길우흿므리ᄀᆞ렛ᄂᆞ니九里예音信이ᄉᆞᄆᆞᆺ디몯ᄒᆞ놋다

悄悄素滻路迢迢雲漢東 此ᄂᆞᆫ言漢中王及王徵士ㅅ所居也ㅣ라○ᄒᆡᆫ滻水ㅅ길히시름ᄃᆞ외오雲漢東녀근아ᄋᆞ라ᄒᆞ도다

顧騰六尺馬背著孤征鴻畫見公子面

超然懽笑同 公子ᄂᆞᆫ 指璵及徽也ㅣ라○願ᄒᆞᆫᄃᆞᆫ 노ᄅᆡ예 자만ᄒᆞᆫ 모ᄅᆡ 등에 리뫼ᄀᆞᆮ이 녀ᄂᆞᆫ 그려기 ᄀᆞᄐᆞ니ᄅᆞᆯ ᄃᆞ려가 公子ᄋᆡᄂᆞᆫ 출헌히 보아 超然히 즐겨 우ᄋᆞ믈 ᄒᆞᆫ가지로 ᄒᆞ고 져 ᄒᆞ노라

奮飛旣胡越局促傷樊籠 言欲往見公子이언마ᄂᆞᆫ 但道路ㅣ礙隔ᄒᆞ니 若在樊籠之中而局促不得伸也ㅣ라○ᄂᆞ로과다 ᄂᆞᆯ오져 ᄒᆞ나 ᄒᆞ마 胡와 越와 ᄀᆞᆮᄐᆞᆯ시 局促ᄒᆞ야 樊籠애 ᄃᆞ렷ᄂᆞᆫ ᄃᆞᆺ호믈 슬노라

一飯四五起憑軒心力窮 言一飯之頃에 頻起而望ᄒᆞ나 心力이 窮困也ㅣ라○ᄒᆞᆫ 번 밥 머글 저긔 네다ᄉᆞᆺ 번을 니러 軒檻을 비교니 心力이 窮盡ᄒᆞ야라

嘉蔬沒溷濁時菊碎榛叢 됴ᄒᆞᆫ 柔蔬ㅣ 더러운 ᄃᆡ ᄲᅡ디고 時節人菊

從ㅣ나모 들굴서 리에브어뎟도다

鷹隼亦屈猛烏鳶何所蒙

매도히 任勇猛을구퓟ᄂᆞ니가마괴ᄉᆡ로기ᄂᆞᆫ므스글니브리오

式瞻北鄰居取適南巷翁言雨潦ㅣ阻礙ᄒᆞ야所向不通而所瞻適者ㅣ近隣而已

라ㅇ 北녁이우제사ᄂᆞ니로ᄅᆞᆯ 배보며 南녁굴형엣한아비게가몰取ᄒᆞ노라

掛席釣川漲焉知清興終言乘此雨水之漲ᄒᆞ야當從舟而釣則清興이無窮盡也ㅣ니라

ㅇ 빗돗글 ᄃᆞ라 ᄂᆡᆺ므리미렛ᄂᆞᆫ 뒤코기ᄅᆞᆯ 낫그면 어느몰ᄂᆞᆫ 興의ᄆᆞᄎᆞᄆᆞᆯ 알리오

雨

行雲遞崇高飛雨藹而至녀ᄂᆞᆫ구루미노ᄑᆞᆫ미해옮ᄂᆞ니ᄂᆞᄂᆞᆫ비해오놋다瀑瀑石間溜汩汩松上駛瀑瀑은水聲이라駛ᄂᆞᆫ疎吏反ᄒᆞᄂᆞ니馬行疾也ㅣ니言松上之雨ㅣ汩汩疾流ㅣ니라○돌ᄉᆞ이예흐르ᄂᆞᆫ므른瀑瀑ᄒᆞ고소나못우흿ᄇᆡᄅᆞᆫ비ᄂᆞᆫ汩汩ᄒᆞ놋다亢陽乘秋熱百穀亦已焚皇天德澤降燋卷有生意노ᄅᆞᆫ陽氣ㅣ기울더위를ᄐᆞ、니온가지나ᄃᆞᆯ도ᄒᆞ마ᄇᆞ리리러니큰하ᄂᆞᆯ히德澤을ᄂᆞ리오니ᄆᆞᆯ라거두쥔거시사ᄅᆞᆯᄠᅳ디잇도다前雨傷卒暴今雨喜容易凡雨ㅣ暴猝則害穀ᄒᆞ고徐徐則入土深ᄒᆞᄂᆞ니容易ᄂᆞᆫ言徐徐也ㅣ라○아랫비를ᄲᆞᆯ리오ᄆᆞᆯ하이오몯

슬타니 이제 비를 날ᄒᆞ야 오ᄆᆞᆯ 깃노라 不可無雷霆間作鼓增氣 雷ᄂᆞᆫ 所以增龍之氣也ㅣ라 ○ 울에 업수미 可티 아니ᄒᆞ니 섯거 니르와다 鼓動ᄒᆞ야 氣運을 더으ᄂᆞᆺ다 佳聲達中霄所望時一致 謂望雨而得雨也ㅣ라 ○ 됴ᄒᆞᆫ 소리 바ᄅᆞ미 ᄉᆞ뭇ᄂᆞ니 ᄇᆞ라논 바ᄅᆞᆯ 이 ᄢᅴ ᄒᆞᆫ번 닐위ᄋᆡ라 淸霜九月天髣髴見滯穗 言秋稔而收穫之時예 多遺穗也ㅣ라 ○ ᄆᆞᆯᄀᆞᆫ 서릿 九月ㅅ 하ᄂᆞᆯ해 ᄉᆞᄆᆞ시 ᄇᆞ렛ᄂᆞᆫ 낫이사 ᄀᆞᆯ 보ᄂᆞᆫ ᄃᆞᆺᄒᆞ야라 郊扉及我私我圃日蒼翠 詩예 雨我公田이오 遂及我私ㅣ라 ᄒᆞ다 ○ 뫼햇 門ㅅ 부체예 내 아ᄅᆞᆷ 바티 이ᄎᆞ니 내 菜圃ㅣ 나날 프르ᄂᆞᆺ다 恨無抱甕力庶減臨江

費言當旱而設江灌圍ㅣ러니今則䖏肯甚費力也ㅣ라○독아놀힘업스믈늘다니기루몰다너셔勞費ᄒᆞ몰거의덜리로다

雨

山雨不作泥江雲薄爲霧뫼햇비즌ᄒᆞᆯ글밍ᄀᆞ디아니ᄒᆞ니ᄀᆞᄅᆞᇝ구루믄열워ᄂᆞᆫ개ᄃᆞ외엿도다晴飛半嶺鶴風亂平沙樹비갠뒤半嶺엣鶴이ᄂᆞᆯ오ᄇᆞᄅᆞᆷ앤平ᄒᆞᆫ몰앳엿남기어즈럽도다明滅洲景微隱見巖姿露言雨與晴이相半也ㅣ라○븕ᄀᆞ락업스락ᄒᆞᄂᆞᆫ믈ᄀᆞ잇빗치微微ᄒᆞ고수므락나락ᄒᆞᄂᆞᆫ바회옛양지뵈ᄂᆞᆺ도다拘悶出門遊曠

絕經回趣 言雨ㅣ拘碍而悶故出遊寫焉 나然雨不得遊高故로眺望興趣ㅣ曠絕也ㅣ라○얼믜여 담가 門의 나노로니 누네 다나ᄂᆞᆫ 景趣ㅣ 아ᄋᆞ라히 굿도다

消中日伏枕卧久塵及屨 消中은 渴病也ㅣ 라○消渴ᄒᆞ야 나날 벼개예 굿브렛노니 누워 슈미 오라니 드트리 시네 미첫도다 豈無平肩輿莫辨望鄉路 言雨ㅣ昏暗也ㅣ라○엇뎨 平ᄒᆞᆫ 메ᄂᆞᆫ 술위 업스리오마ᄂᆞᆫ 本鄉으로 가ᄂᆞᆫ 길흘 ᄀᆞᆯ히디 몯ᄒᆞ예라

兵戈浩未息蛇虺反相顧 蛇虺ᄂᆞᆫ 喩盜賊也ㅣ라○兵戈ㅣ 해 ᄀᆞ디 못ᄒᆞ야 시니 蛇虺ㅣ 도ᄅᆞ혀 서르 도라보놋다

悠悠邊月破鬱鬱流年度 月破ᄂᆞᆫ 月將缺也ㅣ라○悠悠

히ᄀᆞ잇ᄃᆞ리 허ᄂᆞ니 답다비 셔흘ᄃᆡ 가난ᄒᆡ를 ᄃᆡ내노라 針灸阻朋曾糠籺對童孺 籺은 音紇이니 麤米니 貧者所食也ㅣ라 ○ 侶伴ᄃᆡ무를 阻隔ᄒᆞ고 ᄇᆞᆺ라기 바ᄇᆡ로 가히를 糲ᄒᆞ야 옛노라 一命須屈色新知漸成故 一命은 卑官故로 屈ᄅᆞᆯ 下人也ㅣ라 ○ 一命이라 모로매 ᄂᆞᆺ비ᄎᆞᆯ 구플디니 새로 아논 사ᄅᆞ미 漸漸 녯버디 ᄃᆞ외ᄂᆞ다 窮荒益自卑飄泊欲誰訴 窮荒ᄒᆞᆫ ᄀᆞᅀᆡ와 더옥 내 ᄂᆞᄌᆞᆨᄒᆞ노니 두루 ᄇᆞ터 ᄃᆞᆫ뇨ᄆᆞᆯ 뉘게 告訴ᄒᆞ고져 ᄒᆞ리오 尪羸愁應接俄頃恐違迕 尪은 脊病ㅣ라 ○ 病ᄒᆞ야 지드리워 사ᄅᆞᆷ 應接ᄒᆞ몰 시름ᄒᆞ노니 아니한ᄃᆡ데 어긔르처 ᄇᆡ슬ᄲᅳᆷ가 진노라 浮俗何萬端幽

人有高步ᄒᆞᄂᆞᆫ風俗이ᄌᆞ모여리가지그듸로소니幽深ᄒᆞᆫ사ᄅᆞᄆᆞᆫ노피거로미잇ᄂᆞ니라

龐公竟獨往尙子終罕遇龐德公과尙長은皆隱士ㅣ라○龐公이ᄆᆞᄎᆞ매ᄒᆞ오ᅀᅡ로가니尙子ᄂᆞᆫᄆᆞᄎᆞ매맛나보미드므도다

宿留洞庭秋天寒瀟湘素杖策可入舟送此齒髮暮宿ᄂᆞᆫ音秀ㅣ오留ᄂᆞᆫ上聲ㅣ니須待也ㅣ라素ᄂᆞᆫ氷色이白也ㅣ라○洞庭ㅅᄀᆞᅀᆞᆯ히하ᄂᆞᆯ히서ᄂᆞᆯ고瀟湘이ᄒᆡ여호ᄆᆞᆯ기들워막대디퍼어루비예드러이齒髮의늘구믈보내요리라

喜晴

皇天久不雨旣雨晴亦佳 큰하ᄂᆞᆯ히 오래 비 오디 아니ᄒᆞ더니 ᄒᆞ마 비오고 ᄀᆡ니 ᄯᅩ 됴토다 出郭眺西郊蕭蕭春增華 城郭애 나 西ㅅ녁킈ᄅᆞᆯ 보니 蕭蕭히 봄비치 더으도다 青熒陵陂麥窈窕桃李花 窈窕ᄂᆞᆫ 美貌ㅣ라。두듨게 보리ᄂᆞᆫ 프르러 빗나고 桃李ㅅ고ᄌᆞᆫ 窈窕ᄒᆞ도다 春夏各有實我飢豈無涯 봄과 녀ᄅᆞᆷ에 제여곰 여르미 잇ᄂᆞ니 내 주류믄 엇데 ᄀᆞᆺ이 업스리오 干戈雖橫放慘澹鬪龍蛇 甘澤不猶愈且耕今未賒 甘澤은 謂雨ㅣ라。干戈ㅣ 비록 어즈러이 퍼서 슬피 龍蛇ㅣ 사호나 甘澤은 오히려 됴티 아나토소리 밧가로미 이제 머디

아니ᄒᆞ도다 丈夫則帶甲婦女終在家 남지니 甲을 니버가시나 겨지븐 ᄆᆞᄎᆞᆷ매 지비 잇도다 力難及黍稷得種菜與麻 히미 기장 피 심굼매 밋지 몯ᄒᆞ나 菜蔬와 다뭇 사ᄆᆞᆯ 시러곰 시므리라 千載商山芝徃者東門瓜其人骨已朽此道誰疵瑕 言四皓ㅣ採商山ᄒᆞ며 邵平ㅣ種瓜長安東門ᄒᆞ야 皆避亂而隱ᄒᆞ니 其人이 已亡而其道ㅣ可尚也ㅣ라 ○千載옛 商山앳 芝草와 디나간 東門엣 외ᄂᆞᆫ 그 사ᄅᆞ미 ᄲᅧ ᄒᆞ마 서그나 이 道ᄅᆞᆯ 뉘 허믈ᄒᆞ리오 英賢遇轗軻遠引蟠泥沙 轗軻ᄂᆞᆫ 不遇也ㅣ라 ○어딘 사ᄅᆞ미 轗軻ᄅᆞᆯ 마니러ᄂᆞᆫ 머리 혀가 泥沙애 서렛ᄂᆞ니라 顧慙

昧所適回首白日斜 白日斜ᄂᆞᆫ言年老也ㅣ라○갈바를아득ᄒᆞ야 머리를돌와보니볼고히기우루믈도로봇그리노라 漢陰有鹿門滄海有靈查焉能學衆口咄咄空咨嗟 龐公이隱鹿門山ᄒᆞ다天河ㅣ與海通ᄒᆞ니有人이每年八月에浮槎去來ᄒᆞ더니라殷浩ㅣ見廢ᄒᆞ야書空作咄咄怪事四字ᄒᆞ니라○漢陰엔鹿門山이잇고滄海엔靈ᄒᆞᆫ들구리잇ᄂᆞ니엇뎨能히믈사ᄅᆞᄆᆡ이블비화咄咄ᄒᆞ야ᄒᆞᆫ갓咨嗟ᄒᆞ리오

晩晴

高堂暮冬雪壯哉舊瘴無復似塵埃 高堂觀이在夔

州ᄒᆞ다○高堂ㅅ暮冬애누니壯大ᄒᆞ니녜뎌위在드틀ᄀᆞᆺ호미엳ㅂ도다崖沉谷

浚白皚皚江石鈌裂青楓摧皚ᄂᆞᆫ白皃ㅣ라○비레ᄃᆞᄆᆞ며

뫼ㅅ고리ᄲᅢ뎌허여ᄒᆡ히니ᄏᆞᄅᆞᆫ맷돌히뼈디고프른싯남기것듯놋다南天三

旬苦霧開赤日照耀從西來六龍寒急光徘

徊南녁하ᄂᆞᆯ히세열흘ᄅᆞᆯ심ᄒᆞᆫ雲霧ㅣ여니블근ᄒᆡ비치비취여西ㅅ녀그로브터오

ᄂᆞ니여슷龍이치위ᄲᆞᆯ라비치머므놋다照我衰顏忽落地口雖

吟詠心中哀내ᄂᆞᆯ근ᄂᆞᆺ출비취오忽然히ᄯᅡ해디ᄂᆞ니이베비록입주리나

ᄆᆞᄋᆞ매슬노라未怪及時少年子揚眉結義黃金臺

燕昭王이 築黃金臺ᄒᆞ야 以禮郭隗ᄒᆞ니 言年少人이 欲及時仕進也ㅣ라 ○ 時節을 미출 져믄 사ᄅᆞ미 눈쉬블 펴고 黃金臺예 義氣를 相結호믈 怪異히 너기디 몯ᄒᆞ리로다

汨乎吾生何飄零 支離委絶同死灰 支離ᄂᆞᆫ 猶流離也ㅣ라 ○ 믈 흐르ᄃᆞ시 새 ᄌᆞ모 불려ᄃᆞ니노니 ᄒᆡ여디며 ᄇᆞ리여 모ᄆᆞ 미 주근 ᄌᆡ와 ᄀᆞᆺᄒᆞ라

復陰

方冬合沓玄陰塞 昨日晩晴今日黑 合沓은 相繼皃ㅣ라 ○ 뵈야ᄒᆞ로 겨으레 니어 거믄 陰氣ㅣ 마ᄀᆞ시니 어제ᄂᆞᆫ 나조ᄒᆡ 개더니 오ᄂᆞᆯ 어

몸도다 萬里飛蓬映天過 孤城樹羽揚風直 村羽는 屯兵羽旗也ㅣ라 ○ 萬里예 ᄂᆞᄂᆞᆫ다보지 하ᄂᆞᆯ홀 비취여 디나고 외로온 城에 셰엿ᄂᆞᆫ 羽旗ᄂᆞᆫ ᄇᆞᄅᆞ매 꾀고 댓도다

江濤簸岸黃沙走 雲雪埋山蒼兕吼 믈 거리 두들게 부치고 누른 몰애 ᄃᆞᄅᆞ니 구룸과 눈괘 뫼ᄒᆞᆯ 무뎃고 蒼兕ㅣ 우르ᄂᆞ다

君不見夔子之國杜陵翁 牙齒半落左耳聾 夔子國은 即夔州ㅣ라 ○ 그듸ᄂᆞᆫ 보디 아니ᄒᆞᄂᆞᆫ다 夔子ㅅ 나라해 왯ᄂᆞᆫ 杜陵엣 한아비 니 半만 ᄲᅡ디고 왼 귀 머구라

雨

冥冥甲子雨已度立春時 諺云春雨甲子ㅣ면赤地千里라ᄒᆞ니此ᄂᆞᆫ憂之之言이라 ○아ᄃᆞᆨᄒᆞᆫ甲子ㅅ날비ᄒᆞ마立春ㅅ時節을디나놋다

輕箑煩相向纖絺恐自疑 箑은所甲反ᄒᆞ니扇也ㅣ라此言氣候ㅣ非時而溫也ㅣ라 ○가비야온부제를서르려이서르向ᄒᆞ노니ᄀᆞᄂᆞᆫ츨오ᄉᆞᆯ귀혀ᄂᆡ疑心ᄒᆞ노라

烟添纔有色風引更如絲 너더으니애야라비치잇고ᄇᆞᄅᆞ미혀니在실ᄀᆞᆺ도다

直覺巫山暮兼催宋玉悲 巫山애有神女ㅣ朝爲行雲ᄒᆞ고暮爲行雨ᄒᆞ니라宋玉이悲秋ᄒᆞ니此雨ㅣ亦可悲也ㅣ리라 ○巫山ㅅ나조ᄒᆡ宋玉의슬후믈조쳐뵈야ᄆᆞᆯ곤아노라

春夜喜雨

好雨知時節 當春乃發生 됴ᄒᆞᆫ 비 時節을 아ᄂᆞ니 보ᄆᆞᆯ 當ᄒᆞ야 베퍼 나게 ᄒᆞ놋다

隨風潛入夜 潤物細無聲 ᄇᆞᄅᆞᆷ 조차 ᄀᆞ마니 바ᄆᆡ 드ᄂᆞ니 物을 저져 ᄀᆞᄂᆞ라 소리 업도다

野徑雲俱黑 江船火獨明 ᄆᆡ해 길헤 구루미 다 어듭고 ᄀᆞᄅᆞᆷ ᄇᆡ옛 브리 ᄒᆞ오아 ᄇᆞᆯ리도다

曉看紅濕處 花重錦官城 새배 블근 저즌 ᄃᆡᄅᆞᆯ 보니 錦官城에 고지 해 폣도다

江雨有懷鄭典設

春雨闇闇塞峽中 早晚來自楚王宮 即指神女之雨

ᄒᆞ다 ○ 몸비어드어득ᄒᆞ야 峽中에 마갓 亂ᄂᆞ니 엇제 오몰 楚王ㅅ 宮을 브트나오

波分披已打岸弱雲狼藉不禁風에 즈러운 믈겨리헤 여더ᄒᆞ마두 들구티ᄂᆞ니 븐ᄃᆞ라 온구루미 답사여 ᄂᆞ두 몰이 긔다못ᄒᆞ놋다

寵光蕙葉與多碧點注桃花舒小紅 蕙草ㅅ 니플 寵光ᄒᆞ야 한 프른 비츨 주고 桃花애 브어 져근 블구믈 펴놋다

谷口子真正憶汝岸高灘滑限西東 鄭子真이 居谷口ᄒᆞ더니 此ᄂᆞᆫ 用同姓故事ᄒᆞ야 比典談

ᄒᆞ다 ○ 谷口에 子真아 正히 너를 ᄉᆞ랑ᄒᆞ노니 드틀기 놉고 灘水ㅣ 믯그러워 東西ㅣ 限隔ᄒᆞ도다

雨不絶

鳴雨旣過漸細微映空搖颺如絲飛 우르ᄂᆞᆫ비ᄒᆞ마 다나고漸漸細微ᄒᆞ니虛空에비취여이어부치여실ᄀᆞ티ᄂᆞ놋다 階前短草泥不亂院裏長條風乍稀 階砌ㅅ아ᄂᆡ뎌른ᄑᆞ레ᄒᆞᆯ기어즈럽디아니ᄒᆞ고집안햇긴가지옌ᄇᆞᄅᆞ미져기드므도다 舞石旋應將乳子行雲莫自濕仙衣 零陵에有石이遇風雨則飛如燕ᄒᆞ니라巫山神女ㅣ行雲은見前註ᄒᆞ다○춤츠ᄂᆞᆫ돌ᄒᆞᆫ도로혀당당이젓먹ᄂᆞᆫ아ᄃᆞᄅᆞᆯ더브렛도다구루믈녜요맨아니제仙衣ㅣ젓ᄂᆞᆫ가 眼邊江舸何忽促未得

安流逆浪歸 눈ᄀᆞ이 ᄀᆞᄅᆞᆺ 비조 모ᄒᆡ 왓비 가ᄂᆞ니 便安히 흐르ᄂᆞᆫ 뒤틀엇 디 못ᄒᆞ야 믈겨를 거스러 가놋다

梅雨

南京犀浦道 四月熟黃梅 成都애 有犀浦縣ᄒᆞ니라 ○ 南京入 犀浦ㅅ 길헤 四月에 누른 梅實이 니겟도다

湛湛長江去 冥冥細雨來 湛湛ᄋᆞᆫ 水平貌ㅣ라 ○ 平ᄒᆞᆫ 긴 ᄀᆞᄅᆞ미 가고 아ᄃᆞᆨᄒᆞᆫ ᄀᆞᄂᆞᆫ 비 오ᄂᆞ다

茅茨疎易濕 雲霧密難開 새집 우희 설퓌여 저주미 쉬우니 雲霧ᄂᆞᆫ 칙칙ᄒᆞ야 여로미 어렵도다

竟日蛟龍喜 盤渦與岸迴 나리 ᄆᆞᆺ도리

록蛟龍이깃거ᄒᆞᄂᆞ니믈뉘누리두들과다뭇횟도랏도다

、喜雨

南國旱無雨今朝江出雲 南國에ᄀᆞᄆᆞ라비업더니오ᄂᆞᆯ아ᄎᆞᄆᆡᄀᆞᄅᆞᄆᆡ셔구루미나ᄂᆞ다

入空纔漠漠洒迴已紛紛 虛空애드러아야라漠漠ᄒᆞ더니ᄲᅳ려ᄒᆞ마ᄀᆡ조렵도다

巢燕高飛盡林花潤色分 가셋져비ᄂᆞᆫ노피ᄂᆞ로미ᄋᆞ고수프렛고ᄌᆞᆫ져존비처ᄂᆞᆫ횟도다

晩來聲不絕應得夜深聞 나조ᄒᆡ소리긋디아니ᄒᆞᄂᆞ니당당이시러곰밤깁도록드르리로다

、雨

萬木雲深隱連山雨未開萬木은구루메기리그윽ᄒᆞ얏고니은뫼헨비여디아니ᄒᆞ얏도다

風扉掩不定水鳥過仍回ᄇᆞᄅᆞ맷門ㅅ부체ᄂᆞᆫ다다도安定티아니ᄒᆞᄂᆞ니므렛새ᄂᆞᆫ디나가지즈로도라오놋다

鮫館如鳴杼樵舟豈伐枚南海中에有鮫人이居水中織綃ᄒᆞᄂᆞ니言雨聲ㅣ如杼鳴也ㅣ라○鮫人의지븨ᄇᆡᆺ더지비우ᄂᆞᆫᄃᆞᆺᄒᆞ니나모뷔ᄂᆞᆫᄇᆡ옌어느날글베히리오

清涼破炎毒衰意欲登臺믈고서늘호미더웟모지로몰헤티니늘근ᄠᅳ데臺예오ᄅᆞ고져ᄒᆞ노라

夜雨

小雨夜復密 回風吹早秋 져근 비 바ᄆᆡ ᄯᅩ 칙칙ᄒᆞ니 회로리ᄇᆞᄅᆞ미 이른 ᄀᆞᄋᆞᆯ홀 부ᄂᆞ다

野凉侵閉戶 江滿帶維舟 ᄆᆡ햇 서늘호미 다ᄃᆞᆫ 이페 侵逼ᄒᆞᄂᆞ니 ᄀᆞᄅᆞ미 ᄀᆞ득ᄒᆞ야 ᄆᆡᆫ 옛ᄂᆞᆫ ᄇᆡᄅᆞᆯ 帶ᄒᆞ얏도다

通籍恨多病 為郎忝薄遊 甫ㅣ 嘗為拾遺ᄒᆞ니 為通禁門之籍也ㅣ라 ○通籍데 病하 몰 슬노니 郎官 ᄃᆞ외요매 열이 노로ᄆᆞᆯ 더러이노라

天寒出巫峽 醉別仲宣樓 하ᄂᆞᆯ히 서늘거든 巫峽으로 셔 나가 醉코 仲宣樓ᄅᆞᆯ 여희요리라

丶更題

只應踏初雪騎馬發荊州오딕당당이 첫누눈 ᄇᆞᆯ와 ᄆᆞᆯ타 荊州ㅣ로 녀 나가리로다 直怕巫山雨真傷白帝秋곳 巫山ㅅ 비롤 저ᄒᆞ며 眞實로 白帝ㅅ ᄀᆞ올ᄒᆞᆯ 슬로라 羣公蒼玉佩天子翠雲裘羣公은 프른 玉을 칫고 天子ᄂᆞᆫ 프른 구룸 ᄀᆞᆺᄒᆞᆫ 갓오ᄉᆞᆯ 니비겨시니라 同舍晨趨侍胡爲淹此留ᄒᆞᆫ 官舍에 잇던 사ᄅᆞ믄 새배 ᄃᆞ라가 侍衛ᄒᆞ거늘 엇데라 오래 예와 머믈아뇨

丶雨四首

微雨不滑道斷雲疎復行 져근 ᄇᆡ예 길히 믯그럽디 아니ᄒᆞ니 그츤 구루믄 섯긔오 ᄯᅩ 녀ᄂᆞᆺ다 紫崖奔處黑白鳥去邊明 블근 비레 드ᄂᆞᆫ ᄯᅡ해 어듭고 ᄒᆡᆫ 새 가ᄂᆞᆫ ᄀᆞᅀᅵ 블ᄀᆞᆺ도다 秋日新霑影寒江舊落聲 ᄀᆞᄋᆞᆳ ᄒᆡᄂᆞᆫ 새려 지ᄌᆞᆫ 글에 오시ᄂᆞᆯ ᄎᆞᆫ ᄀᆞᄅᆞᄆᆞᆫ 녜브터 디ᄂᆞᆫ 소리로다 柴扉臨野碓半濕擣香秔 섭門이 ᄆᆡ해 방하ᄅᆞᆯ 臨ᄒᆞ얏ᄂᆞ니 ᄎᆞᆷ만 저즌 곳다온 우게를 딛ᄂᆞᆺ다 一

江雨舊無時天晴忽散絲 ᄀᆞᄅᆞᇝ ᄆᆡ 비 녜브터 ᄢᅴ 업스니 하ᄂᆞᆯ히 개얏다가 忽然히 시리 흣ᄂᆞᆫ ᄃᆞᆺᄒᆞ도다 暮秋霑物冷今日過雲

遲 暮秋에 저즌 거시 서늘ᄒᆞ니 오ᄂᆞᆯ ᄂᆞ래 디나가ᄂᆞᆫ 구루미 더듸도다

上馬回休出看鷗坐不辭 回休出은 謂騎馬欲出去ᄒᆞ다가 因雨ᄒᆞ야 休出而還入家也ㅣ라 ○ ᄆᆞᆯ 탓다가 도라와 나가디 아니ᄒᆞ고 ᄀᆞᆯ며기 보노라 안자쇼ᄆᆞᆯ 마다 아니ᄒᆞ노라

高軒當灩澦潤色靜書幃 노ᄑᆞᆫ 軒檻이 灩澦를 當ᄒᆞ얏ᄂᆞ니 저즌 비체 글 ᄡᅳᄂᆞᆫ 帳이 寂靜ᄒᆞ도다

物色歲將晏天隅人未歸 萬物ㅅ 비츤 ᄒᆡ 將次ㅅ 늣도소니 하ᄂᆞᆯ 모해 사ᄅᆞ미 도라가디 몯ᄒᆞ얏도다

朔風鳴淅淅寒雨下霏霏 淅淅은 風聲이오 霏霏ᄂᆞᆫ 雨貌ㅣ라 ○ 北녁 ᄇᆞᄅᆞᄆᆞᆫ 淅淅히 울오 서늘ᄒᆞᆫ 비ᄂᆞᆫ 霏霏

히ᄂᆞ리놋다

多病久加飯衰容新授衣 詩예九月에授衣니라○한病에오래바불더머고니늘근양지애새져오ᄉᆞᆯ주ᄂᆞ다

時危覺凋喪故舊短書稀 時節ㅅ危亂애보으왜요몯아노니녯버디저른글워리드므리오놋다

楚雨石苔滋京華消息遲 楚ㅅ비예돌해이시젓고셔울흰消息이더듸도다

山寒青兕叫江晩白鷗飢 뫼히서늘ᄒᆞ니프른미햇쇠울오ᄀᆞ롬나조히흰ᄀᆞᆯ며기주리놋다

神女花鈿落鮫人織杼悲 神女鮫人ᄋᆞᆫ見前註ᄒᆞ다花鈿은首飾이라○神女이花鈿이디고鮫人의뵈

ᄠᅳᄂᆞᆫ ᄇᆡ 뒤집소리 슬ᄑᆞ도다 繁憂不自整終日洒如繰ᄒᆞᆫ시르미 제 整齊티 몯ᄒᆞᄂᆞ니 나리 ᄆᆞᆺ도록 실ᄀᆞ치 ᄲᅳ리ᄂᆞ다

白帝

白帝城中雲出門白帝城下雨翻盆 白帝城ㅅ 가온ᄃᆡ 구루미 門의 셔 나고 白帝城ㅅ 아래 비 그르스로 업티ᄂᆞᆫ ᄃᆞᆺᄒᆞ놋다

高江急峽雷霆闘翠木長藤日月昏 노ᄑᆞᆫ ᄀᆞᄅᆞᆷ과 ᄲᆞᆯ론 峽에 울에 사호고 프른 나모와 긴 藤蘿앤 ᄒᆡᄃᆞ리 어듭도다

戎馬不如歸馬逸千家今有百家存 書에 歸馬于華山之陽이라 ᄒᆞ니 言征伐이 不如修文이

라 下句ᄂᆞᆫ 言殘敝也ㅣ라 ○사호맷ᄆᆞ리 몰보내요미 安逸홈만 ᄀᆞᆺ디 몯ᄒᆞ니 ᄌᆞ믄지비 이젠 온 집 ᄉᆡᆼ잇도다

哀哀寡婦誅求盡慟哭秋原何處村 誅求ᄂᆞᆫ 賦歛也ㅣ라 ○슬픈 ᄒᆞᆯ어믜게 바도ᄆᆞᆯ다ᄒᆞᄂᆞ니 ᄀᆞ올 두들게 셜워우ᄂᆞ니 어듸 ᄆᆞ올힌고

、村雨

雨聲傳兩夜寒事颯高秋 비소리 두 바ᄆᆞᆯ 傳ᄒᆞᄂᆞ니 치운 이ᄅᆞᆫ 노ᄑᆞᆫ ᄀᆞ올히 서늘ᄒᆞ도다

挈帶看朱紱開箱觀黑裘 甫ㅣ 爲工部員外郎ᄒᆞ야 服緋故로 云朱紱ᄒᆞ니라○ ᄯᅴᄅᆞᆯ 자바 朱紱을 보고 箱子ᄅᆞᆯ 여러 거믄 갓

오ᄉᆞᆯ보노라 世情只益睡盜賊敢忘憂 上句ᄂᆞᆫ言思及世情則無聊ᄒᆞ야惟睡而已니라◎世上ㅅᄠᅳ덴 오직ᄌᆞ오로미더으ᄂᆞ니盜賊에敢히시르믈니즈리아 松菊新露洗茅齋慰遠遊 言惟以松菊으로消遣愁寂耳라○솔과菊花ㅣ쇄새려제제싯기니새지븨머리와노로ᄆᆞᆯ慰勞ᄒᆞᄂᆞ라

、朝雨

涼氣曉蕭蕭江雲亂眼飄 蕭蕭ᄂᆞᆫ風聲이라◎써늘ᄒᆞᆫ氣運이새배蕭蕭ᄒᆞ니ᄀᆞᄅᆞᆷ맷구루메누네어즈러이나ᄇᆞᆺ기ᄂᆞ다 風鸞藏近渚雨燕集深條 ᄇᆞᄅᆞᆷ맷鸞鳥ᄋᆞᆫ갓가온믌ᄀᆞ애갈맷고비옛졔비ᄂᆞᆫ기픈나못

가지예 모대ᄂᆞ도다 黃綺終辭漢巢由不見堯 黃綺ᄂᆞᆫ 四皓之一이라 巢ᄂᆞᆫ 甫ㅣ 自喩不仕ᄒᆞ니라 ○ 黃綺ㅣ ᄆᆞᄎᆞᆷ내 漢ᄋᆞᆯ 말오 巢由ㅣ 堯ᄅᆞᆯ 보지 아니ᄒᆞ니라 草堂樽酒在幸得過清朝 草堂애 樽酒ㅣ 이실시 幸히 시러곰 ᄆᆞᆯᄀᆞᆫ 아ᄎᆞᆷ ᄆᆞᆯ 지내노라

、對雨書懷走邀許主簿

東嶽雲峯起溶溶滿太虛 東岳에 구루미 뫼 부리 ᄀᆞᄐᆞ니 나ᄢᅧ 큰 虛空애 ᄀᆞ독ᄒᆞ도다 震雷翻幙燕驟雨落河魚 震動ᄒᆞᄂᆞᆫ 울에 옌 지빗 져비 ᄃᆞ우티고 ᄲᆞᄅᆞᆫ 비옌 天河앳 고기 지놋다 座對賢人

酒門聽長者車 徐邈ㅣ以酒ㅣ清者ㅣ爲聖人ㅣ오濁者ㅣ爲賢人ㅣ라 陳平ㅣ以席爲門ᄒᆞ니門外예多長者車轍ᄒᆞ니라○안잣ᄂᆞᆫ뒤賢人酒을對ᄒᆞ야셔門에열우니술윗소리ᄅᆞᆯ듯노라

相邀愧泥濘騎馬到階除 서르마조매길즈로믈붓그리노니ᄆᆞᄅᆞᆯ타階除예니르러오라

、白水明府舅宅喜雨得過字

吾舅政如此古人誰復過 우리아자비政治ㅣ이ᄀᆞᆺᄐᆞ니녜사ᄅᆞ민ᄃᆞᆯ뉘또너므리오

碧山晴又濕白水雨偏多 프른뫼ᄒᆡ개얏다가또저즈니白水에비偏히하도다

精禱既不昧歡娛將

謂何言祈禱而得雨也ㅣ라○精誠으로비로미ᄒᆞ마아도디아니ᄒᆞ니즐겨ᄒᆞ믄將次人엇더ᄒᆞ니오湯年旱頗甚今日醉絃歌湯時예大旱七年ᄒᆞ니라○成湯은날굽히ᄒᆞ믈ᄀᆞ므로미不모甚ᄒᆞ야니와오ᄂᆞᆯ로醉ᄒᆞ야셔거믄고놀며놀애브로노라

、晨雨

小雨晨光內初來葉上聞져근비새뱃빗소기로소니처엄오몰닙우희드르리로다霧交纔洒地風逆旋隨雲雲霧ㅣ섯거아야라ᄡᅡ해ᄲᅳ리티니ᄇᆞᄅᆞ미거스리부니도로혀구루믈조차놋다暫起柴

荊色輕霑鳥獸羣 잠깐 紫荊ㅅ 비ᄎᆞᆯ 니르왓고 가비야이 새 즘ᄉᆡᆼ의 무를 저지놋다

麝香山一半亭午未全分 麝香山이 在秭歸縣ᄒᆞ니라○麝香山ㅅ 半이 나지ᄃᆞ록 오로 ᄂᆞᆫ호지 몯ᄒᆞ얫도다

\ 江閣對雨有懷行營裴二端公

南紀風濤壯陰晴屢不分 南紀ᄂᆞᆫ 嶺南也ㅣ라○南紀예 ᄇᆞᄅᆞ맷 믈겨리 壯大ᄒᆞ니 어드우며 개요ᄆᆞᆯ ᄌᆞ조 ᄂᆞᆫ호지 몯ᄒᆞ리로다

野流行地日江入度山雲 미해 흐르ᄂᆞᆫ 므른 ᄯᅡ해 ᄃᆡ논 나리오 ᄀᆞᄅᆞᄆᆞᆫ 뫼ᄒᆞ로 건너가ᄂᆞᆫ 구루므로 드리라 가놋다

層閣憑雷殷長空面水文 殷은

雷聲ㅣ라 ○ 層層인 樓閣은 우렛소리예 雨비 ᄃᆡᆺ고 긘 虛空은 믈 文을 向面ᄒᆞ얏도다

來桐柱壯 應洗伏波軍 伏波將軍馬援ㅣ征南蠻ᄒᆞ야 立桐柱ᄒᆞ니 時예 襄端公ㅣ討長沙之亂故로 比馬援而去今雨必洗此兵馬也ㅣ라 ○ 비 銅柱入壯녀긔 오ᄂᆞ니 당당이 伏波의 軍을 싯놋다

、對雨

莽莽天涯雨 江邊獨立時 莽莽ᄒᆞᆫ 하ᄂᆞᆯ ᄀᆞᇫ비여 ᄀᆞᄅᆞᇝ ᄀᆞ이 ᄒᆞ오아 셧ᄂᆞᆫ ᄢᅴ로다

不愁巴道路 恐失漢旌旗 巴山ㅅ 길흘 시름 아니ᄒᆞ거니와 漢人 旌旗를 일흘가 저ᄒᆞ노라

雪嶺防秋急 繩橋戰

勝遲雪嶺繩橋ᄂᆞᆫ皆蜀地니時예吐蕃入寇ᄒᆞ니라○雪嶺엔ᄀᆞ올힛防戍ᄅᆞᆯᄉᆡᆯ리ᄒᆞ고繩橋앤사화이과오몰더븨ᄒᆞ놋다西戎甥舅禮未敢背恩私中宗이金城公主로妻賛普ᄒᆞ니라○西ㅅ녀되ᄂᆞᆫ甥과舅왓禮니ᄀᆞ틔여恩私ᄅᆞᆯ져ᄇᆞ리ᄅᆞᆯ지아니니라

、雨

始賀天休雨還嗟地出雷비르서하ᄂᆞᆯ히비마로ᄆᆞᆯ慶賀ᄒᆞ다니도로ᄯᅡ해울엣소리나ᄆᆞᆯ嗟歎ᄒᆞ노라驟看浮峽過密作渡江來ᄉᆡᆯ리峽으로ᄯᅥ지나가ᄆᆞᆯ보노니ᄎᆡᆨᄎᆡᆨᄒᆞ야ᄀᆞᄅᆞᄆᆞ로건나오ᄆᆞᆯ짓노라牛馬

行無色蛟龍鬪不開몯와ᄯᅩ왜네매비치업ᄉᆞ니蛟龍이사호모여지아니ᄒᆞ놋다干戈盛陰氣未必自陽臺言非神女之所爲也ㅣ라○干戈애陰氣ㅣ盛ᄒᆞᆯ뿌니언뎡구틔여陽臺로브터아니니라

中丞嚴公雨中垂寄見憶一絶奉荅二絶

雨映行宮辱贈詩元戎肯赴野人期行宮은指贈詩所過之處ㅣ라元戎은指中丞ᄒᆞ고野人은指甫ㅣ라○비行宮의비취엿거늘글주믈辱도이ᄒᆞ니元戎은野人의期約애오몰줄가江邊老病雖無力

強擬晴天理釣絲 言元戎이肯來則當理釣絲以待也라○ᄀᆞᄅᆞᆷᄀᆞᄋᆡ
늘거病ᄒᆞ야비록히미업스나갠하ᄂᆞᆯ해
낙주를다ᄉᆞ리고져고돌파니기노라

何日雨晴雲出溪白沙青石洗無泥 어ᄂᆞ나래비개
야구루미시내예나힌모래와
프른돌히싯겨홀기업ᄉᆞ려뇨

荒徑桂杖穿花聽馬嘶 言欲見元戎之來訪也ㅣ라○오직모로
매대버혀거츤길홀열오막대디퍼
고즐들워가몰우루믈드로리라

、晴二首

久雨巫山暗新晴錦繡文 오란비예巫山이
어듭더니새려개

니錦繡人文ᄀᆞᆺ도다 碧知湖外草 紅見海東雲 프르니란ᄀᆞᄅᆞᄆᆡ
밧긧프를알오 불그니란 바ᄅᆞᆺ東녀긧구루믈보노라 竟日鶯相和 摩
霄鶴數羣 나리ᄆᆞᆺᄃᆞ록곳고리서르對答ᄒᆞᄂᆞ니 하ᄂᆞᆯᄒᆞᆯᄀᆞ라가ᄂᆞᆫ鶴ᄋᆞᆫ두어
무리로다 野花乾更落 風處急紛紛 라미햇고지몯ᄯᅩ지ᄂᆞ니
ᄇᆞᄅᆞᆷ부ᄂᆞᆫᄃᆡ해셜러어즈럽도다
啼烏爭引子 鳴鶴不歸林 우ᄂᆞᆫ가마괴ᄂᆞᆫᄃᆞ톼삿기ᄅᆞᆯ혀고우
ᄂᆞᆫ鶴ᄋᆞᆫ수프레가지아니ᄒᆞᄂᆞᆺ다 下食遭泥去 高飛恨久陰
ᄂᆞ려먹다가ᄒᆞᆰᄀᆞᆯ맛니러가ᄂᆞ니 노피ᄂᆞ로ᄆᆡ오래어드우믈슬ᄂᆞᆺ다 雨聲衝

塞盡日氣射江深 빗소리ᄂᆞᆫ 邊塞예 다 잘어다ᄋᆞ고 힛氣運은 ᄀᆞᄅᆞ매 기피 ᄡᅩᆺ도다 回首周南客驅馳魏闕心 太史公이 留滯周南ᄒᆞ니 甫ㅣ 自比也ㅣ라 中山公子牟ㅣ 身居江海之上ᄒᆞ야 心懸魏闕之下ㅣ라 ᄒᆞ니 甫ㅣ 自比不忘君也ㅣ라 ○머리 횟돌아 ᄇᆞ라ᄂᆞᆫ 周南앳 나그내 노ᄅᆞᆫ 宮闕에 ᄆᆞᄋᆞ미 ᄃᆞᆫᄃᆞᆺ다

、晩晴

返照斜初徹浮雲薄未歸 도로 비취ᄂᆞᆫ 힛비츤 빗겨 처엄 ᄉᆞᄆᆞ챗고 ᄠᅳᆫ 구루믄 열위도 라가지 아니ᄒᆞ얏도다 江虹明遠飮峽雨落

餘飛虹이入水而飲ᄒᆞᄂᆞ니라○ᄀᆞᄅᆞᆺ므
지게ᄂᆞᆫ머리셔믈머구미됨고峽에비
ᄂᆞᆫ나모ᄂᆞᆫ거시듯ᄂᆞᆺ다鳧鶴終高去熊羆覺自肥上句ᄂᆞᆫ喻
高蹈之士ᄒᆞ고下句ᄂᆞᆫ喻聚斂以自益者ㅣ
라○鳧鶴은ᄆᆞᄎᆞ매노피가거놀熊羆ᄂᆞᆫ제
ᄉᆞᆯ쥬믈아ᄂᆞᆺ다秋分客尚在竹露夕微微ᄀᆞ올히ᄂᆞᆫ호ᄃᆞ로ᄭᅢ
나그내오히려이ᄭᅵ니대옛
이스리나조히微微ᄒᆞ도다

、晩晴

村曉鶯風度庭幽過雨沾ᄆᆞ올나조ᄒᆡ놀나온ᄇᆞᄅᆞ미ᄃᆞ나가
ᄂᆞ니ᄠᅳ리幽深ᄒᆞᆫ되
지나ᄂᆞᆫ비저지ᄂᆞᆺ다夕陽薰細草江色映踈

薕나ᄆᆡᆺ히 옌ᄀᆡ는 프리 옷곳ᄒᆞ고 그 롬비 츤 섯권 바래 비 취옛도다

書亂誰能帙杯乾自可添 上句는 言風雨故로 書亂 而不能整[illegible]卷帙也ㅣ라。

글워리 어즈러우니 뉘 能히 卷帙ᄒᆞ리 오자니 ᄆᆞᄅᆞ니 내 可히 더열디로다

時聞有餘論未怪老夫潛 漢人王符ㅣ著潛夫論ᄒᆞ니 甫ㅣ欲效其潛隱

기니라。時로 나ᄆᆞᆫ 論이 요몰 듯노니늘 근 노미 潛隱호미 怪異티 아니ᄒᆞ도다

、雨晴

天際秋雲薄從西萬里風 하ᄂᆞᆳ ᄀᆞᅀᆞᆳ 구루미 열우니 西ㅅ녀그로셔 조차 오ᄂᆞᆫ 萬里옛 ᄇᆞᄅᆞ미로다

今朝好晴景久雨不妨

農오ᄂᆞᆯ아ᄎᆞᄆᆡ괏경이죠ᄒᆞ니비오래오뒤農事에妨害리아니ᄒᆞ도다塞柳

行疎翠山黎結小紅ᄀᆞᄋᆡ비드론섯긘프론거시行列ᄒᆞ얏고뫼햇

비ᄂᆞᆫ죠고맛블근거시ᄆᆡ잣도다胡笳樓上發一鴈入高空

되프리樓우희셔나ᄂᆞ니ᄒᆞᆫ그려기ᄂᆞᆫ노ᄑᆞᆫ虛空으로드니가놋다

、雨晴

雨時山不改晴罷峽如新비올젠뫼ㅅ비치가시디아니ᄒᆞ더니

개요ᄆᆞᆯ모ᄆᆞᆺ나니峽이새로온ᄃᆞᆺᄒᆞ도다天路看殊俗秋江思殺

人思殺ᄂᆞᆫ씹ᄂᆞᆫ聲ㅣ라○하ᄂᆞᆳ길헤다ᄅᆞᆫ風俗을보노니ᄀᆞᄅᆞᇝᄀᆞᅀᆞ사ᄅᆞᄆᆞᆯ시름케

ᄒᆞ나、다 有猿揮淚盡無犬附書頻 陸機ㅣ犬이 名黃耳니 機ㅣ在洛ᄒᆞ야 附書ᄒᆞ야 使歸其家ᄒᆞ니라○ 잇ᄂᆞ나비소리예눈믈ᄲᅳ리ᄆᆞᆯ다ᄒᆞ나가히 ᄂᆞᆫ글월브토ᄆᆞᆯᄌᆞ조ᄒᆞᆯ거시업도다 故國愁眉外長歌欲損神 故國은시름ᄃᆞ왼눈섭밧기로소니 긴놀애예精神ㅣ損ᄒᆞᆯ돗ᄒᆞ도다

曉晴吳郎見過北舍

圃畦新雨潤媿子廢鋤來 菜圃ㅅ이러미새 비예지조니고다 의기옴ᄆᆡ기廢ᄒᆞ고ᄂᆞ 오ᄆᆞᆯ븟그리노라 竹杖交頭拄柴扉隔徑開 대막대ᄅᆞᆯ머리로붓거딥고섭 나모門을길흘즈음처여루라 欲栖羣鳥

亂來去小童催 거세 ᄃᆞ로리라 ᄒᆞᄂᆞᆫ 믈새 어ᄌᆞ러우니 가디 몯ᄒᆞ얏거늘 저믄 아ᄒᆡ 뵈아ᄂᆞ다

明日重陽酒相迎自醱醅 醱ᄋᆞᆫ 開酒也ㅣ라 ○ 내일 重陽엣 수리 서르 마조매 제 거르디 아니ᄒᆞᆫ 수우리 옴ᄌᆞ기리로다

返照

楚王宮北正黃昏白帝城西過雨痕 楚王ㅅ 宮ㅅ 北녀긔 正히 어으르미로소니 白帝城ㅅ 西녀긘 디나가ᄂᆞᆫ 빗그제로다

返照入江翻石壁歸雲擁樹失山村 도로 비취엿ᄂᆞᆫ 힛비츤 ᄀᆞᄅᆞᄆᆡ 드러 石壁에 드위엿ᄂᆞ니 도라가ᄂᆞᆫ 구루미 남ᄀᆞᆯ ᄢᅵ니 뫼ㅅ ᄆᆞᅀᆞᆯ 일흐리로다

衰

秊肺病惟高枕絶塞愁時早閉門 늘근 해 肺病으로 오직 노피 벼개 볘오 먼 ᄀᆞ애 시름ᄃᆞ왼 ᄢᅴ 일 門을 다도라

不可久留豺虎亂南方實有未招魂 ○豺虎ᄂᆞᆫ 嶺盜賊ᄒᆞ니라 可히 오래 머므지 못ᄒᆞ리로소니 豺虎ㅣ 어즈러우니 南方애 眞實로 브르지 못ᄒᆞᆫ 넉시 잇도다

舟中夜雪有懷盧十四侍御弟

朔風吹桂水大雪夜紛紛 北녁 ᄇᆞᄅᆞ미 桂水ᄅᆞᆯ 부ᄂᆞ니 큰 누니 바미 어즈러이 오ᄂᆞ다

暗度南樓月寒深北渚雲 어ᄃᆞ운 뒤 南樓엣 비취던 ᄃᆞ래 디나가ᄂᆞ니 치위예 北녁 믌ᄀᆞᆺ 구루미 깁도다

燭斜初近

見舟蓋竟無聞 獨브리비슥ᄒᆞ니ᄎᆡ엄보미갓갑고비므거우되ᄆᆞᄎᆞ매듣디몯ᄒᆞ리로다 不識山陰道聽鷄更憶君 言不如王子猷이居山陰ᄒᆞ야雪夜에乘舟去訪故로聞曉鷄而但思侍御也ㅣ라○山陰ㅅ길ᄒᆞᆯ아디몯ᄒᆞᆯ시ᄃᆞᆯ긔소리듣고ᄯᅩ그듸ᄅᆞᆯᄉᆞ랑ᄒᆞ노라

、對雪

北雪犯長沙胡雲冷萬家 北녁누니長沙애侵犯ᄒᆞ니되구루미萬人의지븨셔놀ᄒᆞ도다 隨風且間葉帶雨不成花 ᄇᆞᄅᆞ몰조차나괴섯고비ᄅᆞᆯᄯᅴ차고지이디몯ᄒᆞᄂᆞ다 金錯囊垂罄銀壺

酒易賒 金錯은錢也ㅣ라○金錯뎌ᄒᆞᆫ나못 치븨유매다ᄃᆞ르니銀壺로수를사 미쉽도다

無人竭浮蟻有待至昏鴉 謂待友人이 來飮而至於 棲鴉之時也ㅣ라○사ᄅᆞ미개야미ᄯᅳᆫ수를 다ᄋᆞ게머구리업스니기들웟나죗가마괴 자매니르 라호라

、對雪

戰哭多新鬼愁吟獨老翁 老翁은甫ㅣ自謂 라○사호매우니 새鬼거시하도다시름ᄒᆞ야글이 프믄ᄒᆞ오가늘곤하나비로다

亂雲低薄暮急雪舞回風 어즈러운구루믄엽처나조 ᄒᆡᄂᆞ즉ᄒᆞ고ᄲᆞᄅᆞᆫ눈ᄂᆞᆫ회로

리ᄇᆞᄅᆞ매 춤츠놋다

瓢棄樽無綠 爐存火似紅 此ᄂᆞᆫ 言無酒故로 棄飮瓢ㅣ오 爐存故로 雖無火而似見紅也ㅣ라 ○ 바골ᄇᆞ리니 樽에 프른 수리 업고 火爐ㅣ 이시니 브리 븕근 ᄃᆞᆺᄒᆞ도다

數州消息斷 愁坐正書空 殷浩ㅣ 見廢ᄒᆞ야 書空作咄咄怪事四字ᄒᆞ、나라 ○ 두어ᄀᆞ옰 消息곳처시니 시름ᄒᆞ야 안자셔 正히 虛空애 스노라

、又雪

南雪不到地 青崖沾未消 南方앤 누니 ᄯᅡ해 니르지 아니ᄒᆞ더니 오ᄂᆞᆯ 프른 비레예 저저 녹디 아니ᄒᆞ엿도다

微微向日薄脈脈

去人遠 微微히 ᄒᆡ를 向ᄒᆞ야 엳고 脈脈히 사ᄅᆞ미게 머러 아ᄋᆞ라ᄒᆞ도다 冬熱鴛鴦病峽深豺虎驕 겨으리 더우니 鴛鴦이 病ᄒᆞ고 峽이 기프니 豺虎ㅣ 모치도다 愁邊有江水焉得北之朝 시름ᄃᆞ왼 ᄀᆞ이 ᄀᆞᄅᆞᆷ므리 잇ᄂᆞ니 엇뎨 시러곰 北ᄋᆞ로 朝建에 가려뇨

雲雷 古詩一首 律詩二首

雷

大旱山嶽焦密雲復無雨 큰 ᄀᆞ모래 山嶽이 ᄆᆞᄅᆞ니 어드운 구루미오 ᄯᅩ 비 늗 업도다 南方瘴癘地罹此農事苦 南方 더운

病인ᄂᆞᆫ 仟해 이 農事ㅣ 辛苦ᄒᆞ매 버므럿도다

封內必舞雩峽中喧

擊鼓 言祈雨也ㅣ라 ○封疆안해셔 모로매 춤셔 雩祭ᄒᆞᄂᆞ니 峽入가온ᄃᆡ셔 ᄂᆞᆺ 부려 붑 치놋다

真龍竟寂寞土梗空俯僂 土梗은 土龍이라 俯僂ᄂᆞᆫ 鞠躬ᄒᆞ야 祈雨於土龍也ㅣ라 ○真實ㅅ 龍은 ᄆᆞᄎᆞ매 괴외커늘 ᄒᆞᆰ기로 ᄆᆡᆼᄀᆞ론 龍의게 ᄒᆞᆫ갓 모ᄆᆞᆯ 구펴셔 鞠躬ᄒᆞ놋다

吁嗟公私病稅斂缺不補 슬프다 구위와 私處에 病ᄒᆞ니 賦稅 바도ᄆᆞᆯ 거시 이저뎌 깁디 몯ᄒᆞ리로다

故老仰面啼瘡痍向誰數 녯 늘그니ᄂᆞ 촐 울워러 우ᄂᆞ니 헌ᄃᆡ므우믈 누를 向ᄒᆞ야 혜리오

暴尫或前聞鞭巫非稽古 尫은 烏光反 ᄒᆞ니 病瘠之

人이라 魯穆公曰天久不雨ᄒᆞᆫ나 吾ㅣ欲暴尫ᄒᆞ노라 ○ 尫病ᄒᆞᆫ 닐뵈ᄠᅴ요믄시혹알귀ᄃᆞᆺ던이리어니와 스승튜은 네ᄅᆞᆯ마초ᄡᅳ지아니ᄒᆞᆫ이리로다 請免偃

兵處分聽人主萬邦但各業一物休盡取 言不尙武ᄒᆞ고 唯聽人主之命ᄒᆞ야 使人으로 安業而不盡取於民ᄒᆞ면 雖遇旱乾이나 民은 揖脊이니라 ○ 請ᄒᆞᆫ든 몬져 甲兵을 기우려 處分ᄒᆞ기ᄅᆞᆯ 님금이 믈드러 萬邦옛 사ᄅᆞᆷ미 오직 제여곰 守業게ᄒᆞ고 ᄒᆞᆫ 것도 다 앗디 마ᄅᆞᆯ디니라

水旱其數欲免

湯免親覩 言水旱은 自有天數ᄒᆞ니 惟盡人道而已니라 ○ 비오며 ᄀᆞ모로ᄆᆞᆫ 그 天數ㅣ 그러ᄒᆞ니 堯와 湯괘 親히 보ᄆᆞᆯ 免ᄒᆞ니아

上天鑠金石盡盈

衰亢許拙失望築場圃築場圃ᄒᆞ고納禾稼ᄒᆞᄂᆞ니此ᄂᆞᆫ言失秋成之望也ㅣ라○내늘거더욱혜아료미疎拙ᄒᆞ니場圃ᄆᆡᆼ골오져ᄇᆞ라오믈일콰라

、雷

巫峽中宵動滄江十月雷巫峽이밤中에뮈니滄江에十月ㅅ우레로다龍蛇不成蟄天地劃爭回龍과ᄇᆡ얌괘蟄藏호믈일우디몯ᄒᆞ니하ᄂᆞᆯ와ᄯᅡ쾌昨려뎌ᄃᆞ토와도라오놋다却碾空山過深盤絕壁來此ᄂᆞᆫ形容雷聲之動山壁間也ㅣ라○도로뷘뫼ᄒᆞᆯ그라지나고기피노ᄑᆞᆫ石壁에서려오놋다何須鬬雲雨霹靂楚王臺言鬬

神女의行雲雨也ㅣ라。엇뎨모로매구룸과비와로사楚王ㅅ臺를霹靂티ᄂᆞ니오

雲

龍以瞿塘會江依白帝深 龍이瞿塘으로ᄡᅥ모댓고ᄀᆞᄅᆞᄆᆞᆫ白帝城을브터깁도다

終年常起峽每夜必通林 ᄒᆡᄆᆞᆺ도록댱샹峽에ᄂᆞ르와댓고밤마다반ᄃᆞ기수프레ᄉᆞᄆᆞᆺ찻도다

收穫辭霜渚分明在夕岑 벼를뷔니서리왓ᄂᆞᆫ믌ᄀᆞ올말오번ᄃᆞ기나죗묏부리예잇도다

高齋非一處秀氣豁煩襟 노ᄑᆞᆫ지븨ᄒᆞᆫ고지아니로소니됴ᄒᆞᆫ氣運에어즈러운가ᄉᆞ미훤ᄒᆞ야라

分類杜工部詩卷之十二